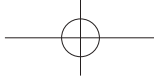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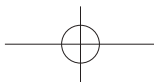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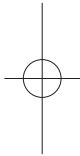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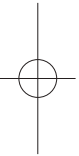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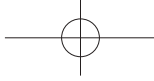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노
원
달
빛
산
책



2022
Nowon
Moonlight
Walk

은
하
수
를
건
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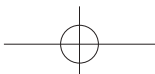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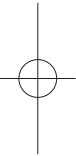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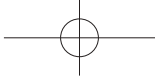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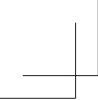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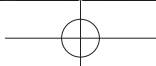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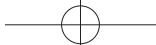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요 <반달>의 가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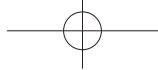
은하수처럼 빛나는 당현천 산책길에서
쪽배가 된 반달이 셋별을 등대삼아 길을 찾아 가듯이
희망찬 미래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2022 노원달빛산책’은 이제 노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찾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노원달빛산책은 여러 지자체의 등축제와는 구별되는 열린미술관을 표방하며 노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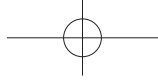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날까’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노원달빛산책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노원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품과 참여 작가 17명의 36작품 120여점을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달빛산책이었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라는 주제로 희망의 여정을 선보인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고 누렸던 일상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가꿔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66만여 명의 시민들이 달빛산책을 찾아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제 기간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구민 여러분들이 문화도시 노원의 중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변화되고 풍성한 축제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원구청장 오승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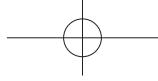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에도
풍성한 가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온 노원달빛산책이
2022년 올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17일간 진행된 축제에
약 66만여 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노원구만의 자랑인 친환경 생태하천 당현천에서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깊어가는 가을밤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노원구 의회는 내년에도 ‘노원 달빛산책’이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으로 가는 길에
노원달빛산책이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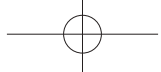
노원달빛산책이 시작된 14일부터 축제 운영을 위해 매일 직원들과 당현천 산책길을 걸으니 함께 산책하는 많은 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도 해보고,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친구를 초대해 작품을 보여주시며 “너도 노원으로 이사와” 하는 중년 남성도, 전화로 지인을 초대하며 축제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축제 뿐 아니라 당현천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예쁘게 가꿔진 꽃밭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밤늦게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찾아온 청년들은 소등된 달빛산책길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연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은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야간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길에서 오늘은 이렇게 보였던 작품이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표현합니다. 거기에 더해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곳, 예술을 내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은 구민들의 입으로 다른 지역에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겠죠. 이제 3년을 맞은 노원달빛산책이 어떻게 성장해갈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하천인 당현천과 문화예술의 만남은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2022년 노원달빛산책의 여정을 담은 기록을 남기며 내년에 아름다운 이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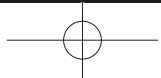
2022노원달빛산책

2022 Nowon Moonlight Walk

노원달빛산책의 상징이 되는 글자체를 사용한 홍보판이다.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로고 조명을 제작하였다. 도시의 화려한 광고판이 환경적, 시각적 공해가 되어가는 지금,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작가의 사려 깊은 뜻이 담겨 있다.

This promotional board is written in the representative font of Nowon Moonlight Walk. The logo lighting was created by the recycled materials. As the blazing lights of city billboards are regarded to be visually pollutive nowadays, this piece contains the artist's considerateness toward the environment and natur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7500×30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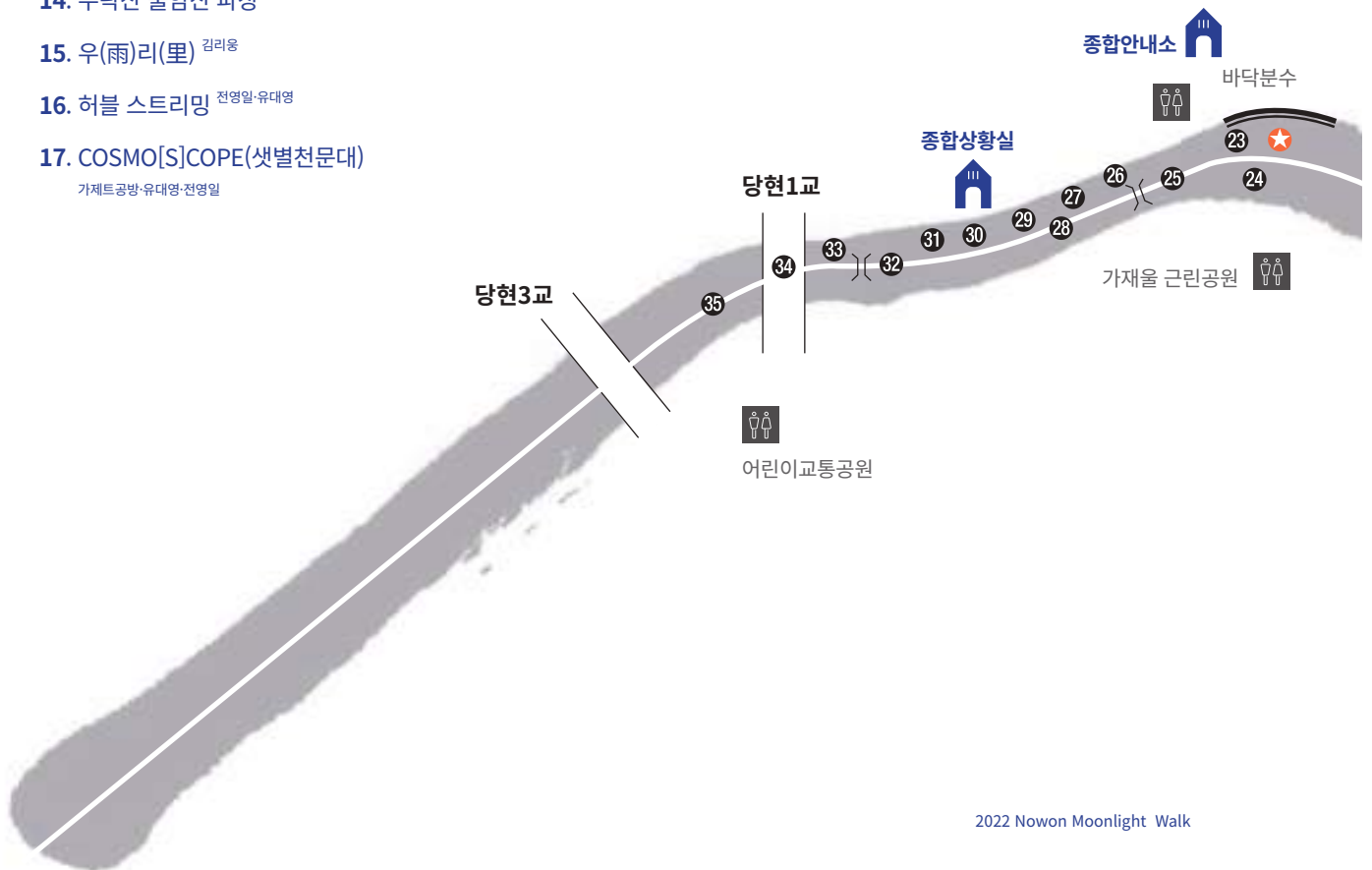


작품설치 장소

1. 별의 탄생 전영일
2. 큰고래자리 전영일
3.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이박·가제트공방
4. 다함께 춤을 인송자
5. 환희의 불꽃 ver.1 전영일
6. Unknown 박국진
7. 군집 박국진
8. 해신달신 전승일
9. Made in Universe 김재성
10. Starlight Festival 정영두
11. 하얀 그림자 전영일
12. 공선점(共線點,
Collinear Point) 두따곰
13. 환희의 빛 전영일
14. 수락산 불암산 파장 백진현
15. 우(雨)리(里) 김리웅
16. 허블 스트리밍 전영일·유대영
17. COSMO[S]COPE(샛별천문대)
가제트공방·유대영·전영일

18. 은하수 속으로 전영일
19. Signal of Earth Live 인송자
20. 고목의 울림-소리나무 성동훈
21. 달토끼 전영일
22. Over the Rainbow 국근일
23. 빛의 미로 전영일·가제트공방
24. 노원달빛산책 전영일
25. 호흡 박봉기
26. 달숲 이기범
27.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전영일
28. 은하수 by 윌리엄 허셀 정영두
29. 코스모스 성운 전영일

30. 식물정거장 김이박
31.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 전영일
32. 환희의 불꽃 ver.2 전영일
33. 불명의자 전영일
34. 우주칼대기 이현수
35. 음.어.아 인송자
- ★ 불의 정원 공연
15~30일, 금, 토요일 각 2회
19:00/20:00
- 동심 인송자



2022 Nowon Moonlight Walk

노원달빛산책 토론회

노원달빛산책의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10. 22. (토), PM 4:00~6:30

장소: 노원문화재단 6층

스카이라운지

- 공공예술, 관공(官公)을 넘어서
(발제 1: 안태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시민의 문화권리'로서 공공미술
(발제 2: 정윤희, 문화연구자)
- 예술제의 제도화를 고민하기:
어떻게 제도의 독성은 빼고 장점은 취할
것인가 (발제 3: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사회: 손이상 (노원달빛산책 감독)

진행: 김수정 (미술비평, 미학)

달빛해설사 프로그램 및 작가와의 대화

달빛해설사

매일, PM 7:00

작가와의 대화

10. 15. (토), 19:00 정영두

10. 21. (금), 18:00 국근일, 19:00 인송자

10. 22. (토), 18:00 김이박, 19:00 전영일

10. 28. (금), 18:00 이기범, 19:30 박봉기

10. 29. (토), 18:00 뚜따꿈, 19:00 유대영

www.nowonarts.kr

개막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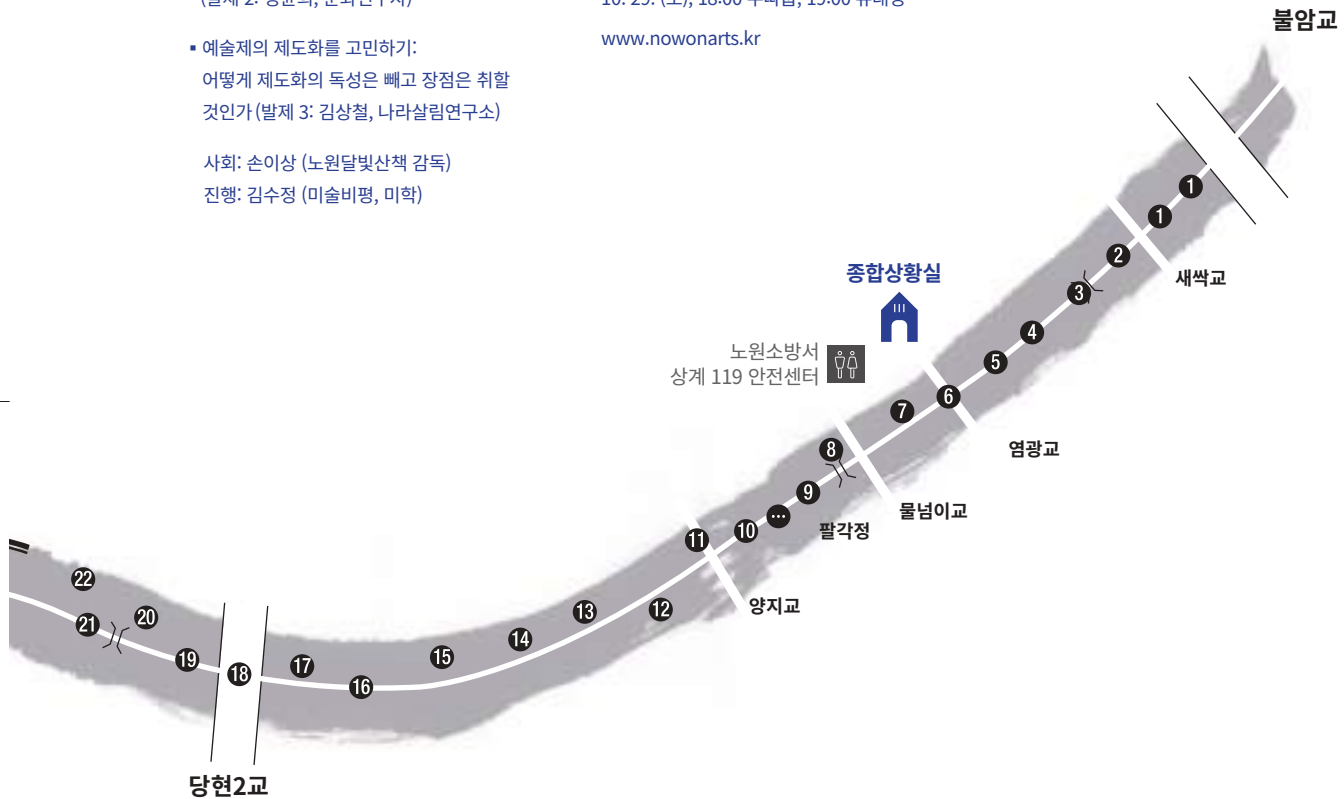
예술꽃화랑 불도깨비

10. 14. (금), PM 5:30

개막점등식

PM 6:00

장소: 당현천 바닥분수





- 2022노원달빛산책을 마치며 18
- 2022 노원달빛산책-은하수를 건너서 19

작품소개

- 고목의 울림-소리나무 24
- 달숲 28
- 은하수 by 윌리엄 허셀 32
- Signal of Earth Live 36
- 다함께 춤을 38
- 환희의 불꽃 ver.1 42
- 환희의 불꽃 ver.2 43
- Starlight Festival 46
- 음.어.아 50
- 별의 탄생 52
- 코스모스 성운 56
- 큰고래자리 58
- Made in Universe 62
- 무지개 너머 66
- 빛의 미로 70
- 호흡 72
- Unknown 76
- 군집 78
- 해신달신 80
- 하얀 그림자 82
- 환희의 빛-12별자리 84
- 수락산 불암산 파장 88
- 우(雨)리(里) 90
- 달토끼 92

- 우주 깔대기 94
- 공선점(共線點) 98
- 허블 스트리밍 100
- 은하수 속으로 102
-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04
- COSMO[S]COPE
(샛별천문대) 108
-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시민참여작품) 110
- 식물정거장 112
-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 116
- 불명의자 118
- 동심 120

달빛산책

- ‘노원달빛산책’을 보며 생각한
지극히 사적인, 그러나 어찌 보면
다분히 사회적인 비평의
단상들_김수정(미학자, 비평가) 124





세미나

- 기조발제: 퍼블릭 아트에서 커뮤니티 아트로 146
- 예술제의 제도화를 고민하기: '커먼즈'라는 기준 148
- 공공예술, 관공(官公)을 넘어서 152
- '시민의 문화권리'로서의 공공미술 156
- 2022 노원달빛산책 토론회-모두 토론 162

사람 · 사람들

- 타이틀: 달빛 해설사가 말한다 174
- 2022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176

2022노원달빛산책을 마치며

전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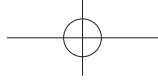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노원달빛축제
예술감독

노원달빛산책은 2020년 처음 열렸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으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위로, 예술적인 치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안고 2021년 ‘달 지구를 보다’가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에너지 넘치는 도시의 화려함을 조금 누르고 도시 외곽의 주거 중심지인 노원에 걸맞은 가족 중심의 열린 미술관을 추구하였던 ‘노원달빛산책’은 팬데믹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넉넉하고 차분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달랠했습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마스크까지 더해진 일상은 모두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던 터라 은은한 달빛을 닮은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의 종식을 앞둔 시점이라 예측되었으며 기획 단계에서 ‘터널을 나온 것처럼 긴장되면서도 기쁘게, 형언할 수 없는 우주적 환대를 표현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화려함’을 가지고 작가를 초대하고 작품을 정리해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공간을 더욱 내실 있는 야외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으며 더욱 멀리에서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창의적 발상, 움츠린 어깨를 펴고 전시장 속으로 빠져들도록 인터랙티브한 조명 기술 적용에도 많은 힘을 썼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공간을 압도할 만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km에 이르는 긴 공간이기에 쉬어갈 틈과 집중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불명’이란 작품처럼 은근하게 매력을 발산하는 시민참여형 작품들이 주목을 끌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중요했습니다.

당현천을 가로지르며 공간을 경계 지우며 팍 채울 수 있는 스케일이 큰 작업들도 중요하다는 평가도 해줍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습니다. 대중적인 축제와 예술적인 축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당현천의 노원달빛산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공공미술로서 대표적인 작품을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노원달빛을 따라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하기만 한 등축제, 빈수레처럼 시끄럽기만 한 도시의 불빛을 지양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멋진 예술축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서 시작한 만큼 보다 원숙하고 스케일 있는 ‘노원달빛’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2023년은 팬데믹을 벗어난 자유롭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원구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예술교육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진정한 공공미술축제로서 ‘노원달빛’을 세워내겠습니다.



이수

노원달빛축제
전시감독

2022 노원달빛산책-은하수를 건너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노원달빛산책>은 공공미술전시형식의 빛축제로, 전문가 토론회, 교육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풍부한 연계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노원구만의 독자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노원달빛산책>의 제목은 ‘은하수를 건너서’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동요 ‘반달’에서 은하수를 건너 희망을 찾아간다는 2절의 첫 구절을 인용하였다. 은하수가 된 당현천을 상징하는 별과 달, 천문대와 함께 환경과 우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참여형 공공예술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2020년에 시작한 <노원달빛산책>은 전영일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달을 주제로 희망과 염원을 담은 전시를 개최하여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이름을 알렸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환경문제 등 전지구적 위기를 희망의 관점으로 극복하기 위해 달에서 본 지구를 주제로 빛축제를 공공미술 전시개념으로 확장, 올해는 은하수가 된 당현천을 걸으며 범우주적인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2022노원달빛산책>은 구민들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 17명(팀)의 작가들의 36작품 120여점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소개했다. 관람객은 당현천을 산책하며 미디어아트, 조각, 오토마타, 빛조각, 참여형 설치미술 및 시민참여공공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성동훈, 김리웅, 박국진, 백진현 등 조각가들과, 국근일, 인송자, 전영일, 이기범, 김재성 등 빛조각 작가 뿐 아니라 설치미술에는 김이박, 뚜따꿍, 박봉기, 정영두 작가, 미디어아트에 유대영, 이한수 작가, 오토마타에 전승일 작가 등이 참여했다. 그밖에도 구조물 설치에 가제트공방이 협업하여 다양한 작가들이 전시를 위해 소통하였다.

전시에 앞서 일곱 명의 작가들과 관내 초등학교, 청소년, 노원구민이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공공예술 참여 프로그램인 ‘달빛마중’을 진행했다. 김이박 작가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성동훈 작가의 <고목의 울림-소리나무>, 전영일 작가의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작품에 남겼다. 인송자 작가의 <Signal of Earth Live>는 초등학교들과 긴 줄을 놀이형식으로 엮어 완성한 작품이며, 유대영 작가는 불암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미디어 천문대 <COSMO[S]COPE-셋별천문대>의 우주 영상을 만들어 상영하였다. 박봉기 작가는 노원구민과 함께 관내에서 폐자재를 수집하여 비버가 집을 짓는 것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 ‘호흡(Breath)’을 당현천에 설치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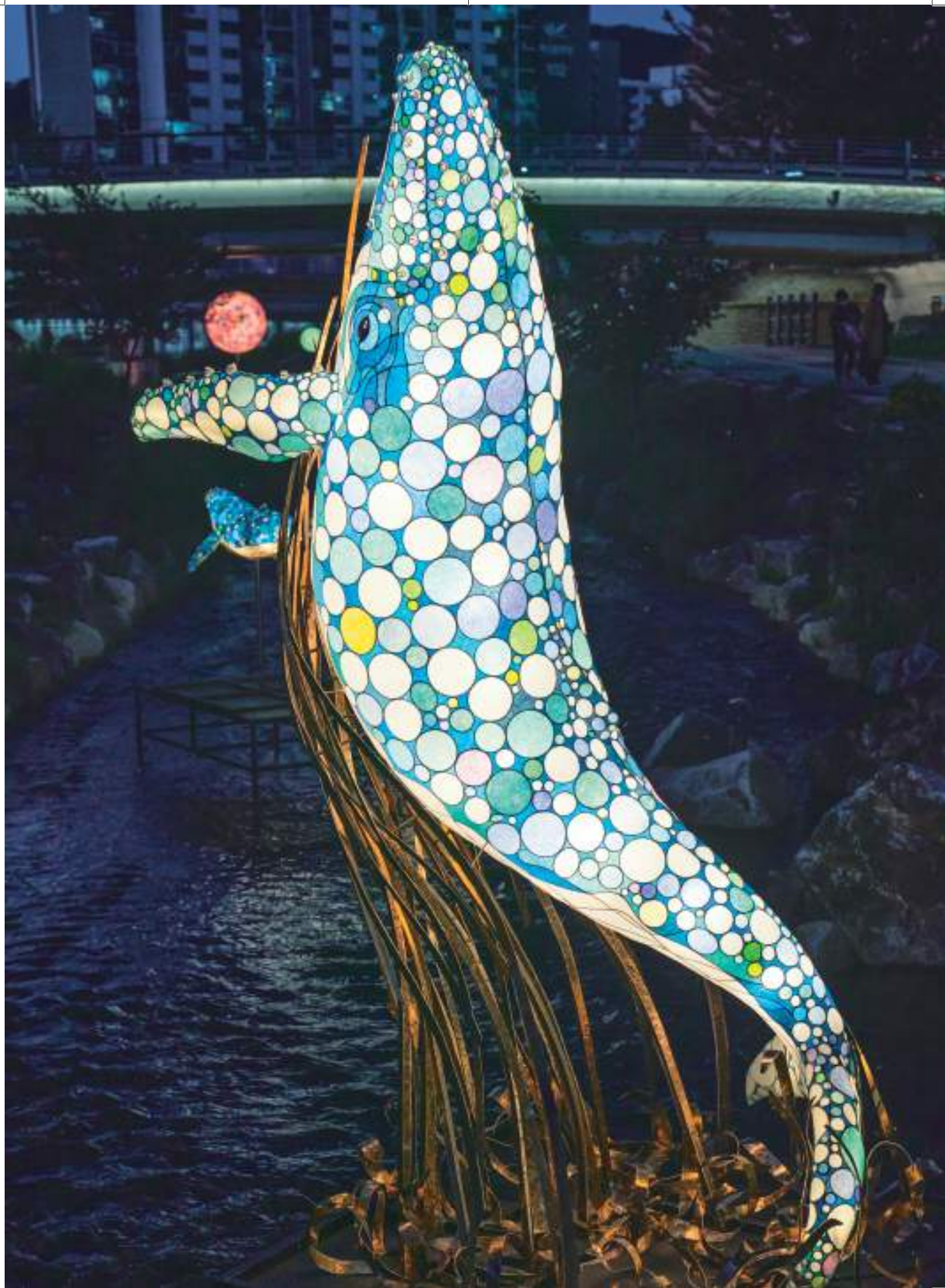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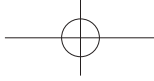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참여형 미술작품으로 시민들과 함께하였다. 전승일 작가의 〈해신 달신〉은 손잡이를 돌리면 해신과 달신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거대 오토마타 작품이다. 전영일 작가의 〈빛의 미로〉, 〈불명여자〉,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 〈환희의 빛〉처럼 가까이서 경험하며 작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인터랙티브 아트 뿐 아니라, 노원정원지원센터가 식물을 협찬한 김이박 작가의 〈식물 정거장〉, 가제트 공방, 유대영 작가, 전영일 작가가 협업하여 만든 미디어 체험 작품 〈COSMO[S] COPE-셋별천문대〉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올해도 행사 중 저녁 7시에는 〈노원달빛산책〉의 대표 프로그램인 ‘달빛 해설사’의 도슨트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관람자들은 도슨트 교육을 거쳐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관람하며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한 작품설명판과 장애인 안내원 배치 등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안내시스템도 강화하였다.

10월 22일에는 〈노원달빛산책의 공공성 확대방안〉을 주제로 공공을 위해 예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노원구민 및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위해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원구의 문화활동가인 김수정 비평가의 진행으로, 노원달빛산책의 기획감독 손이상, 예술과도시 사회연구소장 안태호, 문화연구자 정윤희,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의 김상철 위원 등이 발제를 맡아 노원구만의 환경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공공예술과 시민참여 주제와 형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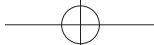
〈2022 노원달빛산책〉은 참여 작가들뿐 아니라 노원구민, 관람객, 학생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였다. ‘은하수를 건너서’라는 주제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짓는다는 희망적인 의미로, 올해는 코로나 방역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을의 정취를 호흡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2022 노원달빛산책〉으로 은하수가 된 당현천에서 더 넓은 세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날 수 있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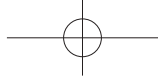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은 하 수 를 건 너 서



작품 소개



고목의 울림-소리나무

The Echo of the old tree-Soun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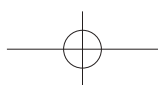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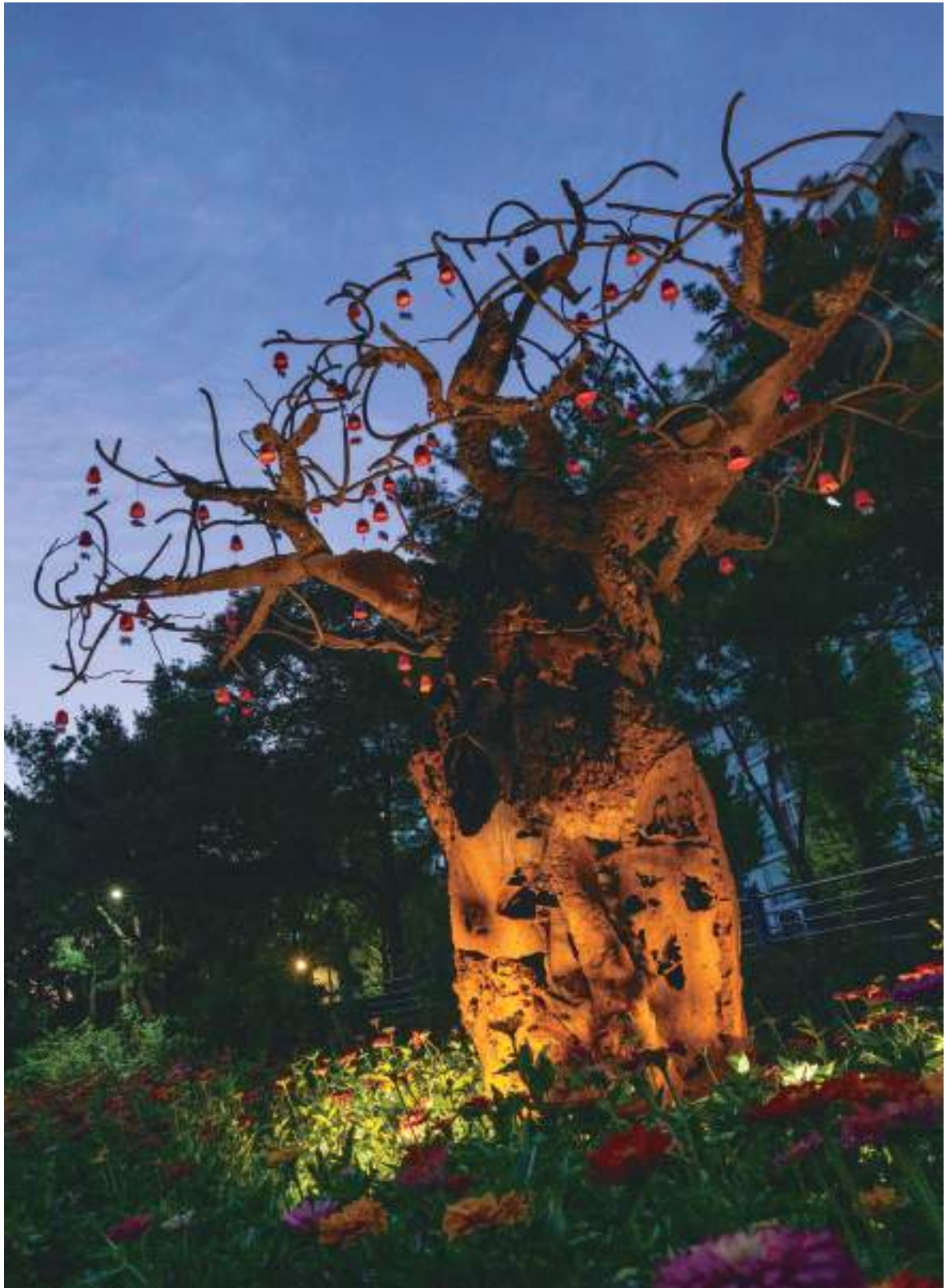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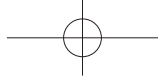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자연의 요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
작가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꿈을
열리게 하는 나무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수백 년 이상을 지탱하여 그 역사와 흔적을
남겨주는 기념적인 자연의 상징이기도
하며, 예로부터 나무는 마을을 대표 할 수
있는 기념목이 되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다. “나무”는
수직적인 형상으로 마을의 중심을 이루며
자연의 요소와 함께 조형적으로 완벽한
형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작품의
모티브인 나무는 뿌리, 줄기, 잎과 열매를
이루는 자연의 순환을 포괄적으로
내포한다. 순환의 요소는 자연과 사람의
상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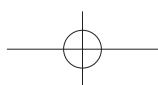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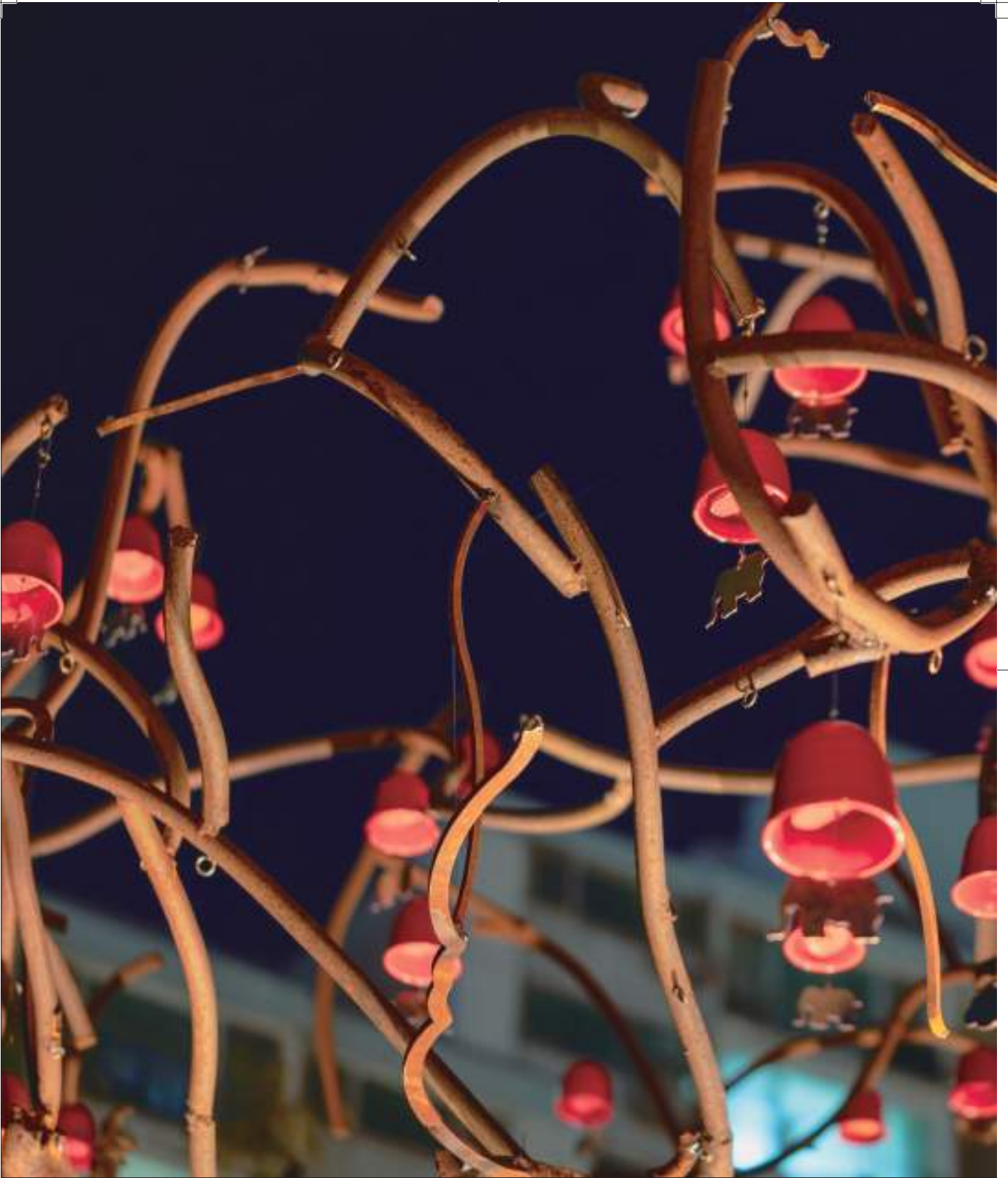
자연의 요소-바람을 이용한 인터랙티브적
요소가 가미된 움직이는 조각으로 홀로
서있는(Stand Alone)형태의 나무 형상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기본 영감으로
출발한 작품이며, 오브제 중 풍경이
매달리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 흔들리면서
잔잔한 종의 울림 소리가 퍼지게 된다.
야간에는 작품 내부조명으로 은은한 불빛
이 발산하여 작품 표면에 표현된 별전들의
구멍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은 환상적인
빛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반사하게 되면서 나무작품과 상단에
매달린 오브제들의 조화로운 빛깔과
소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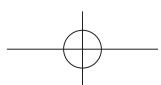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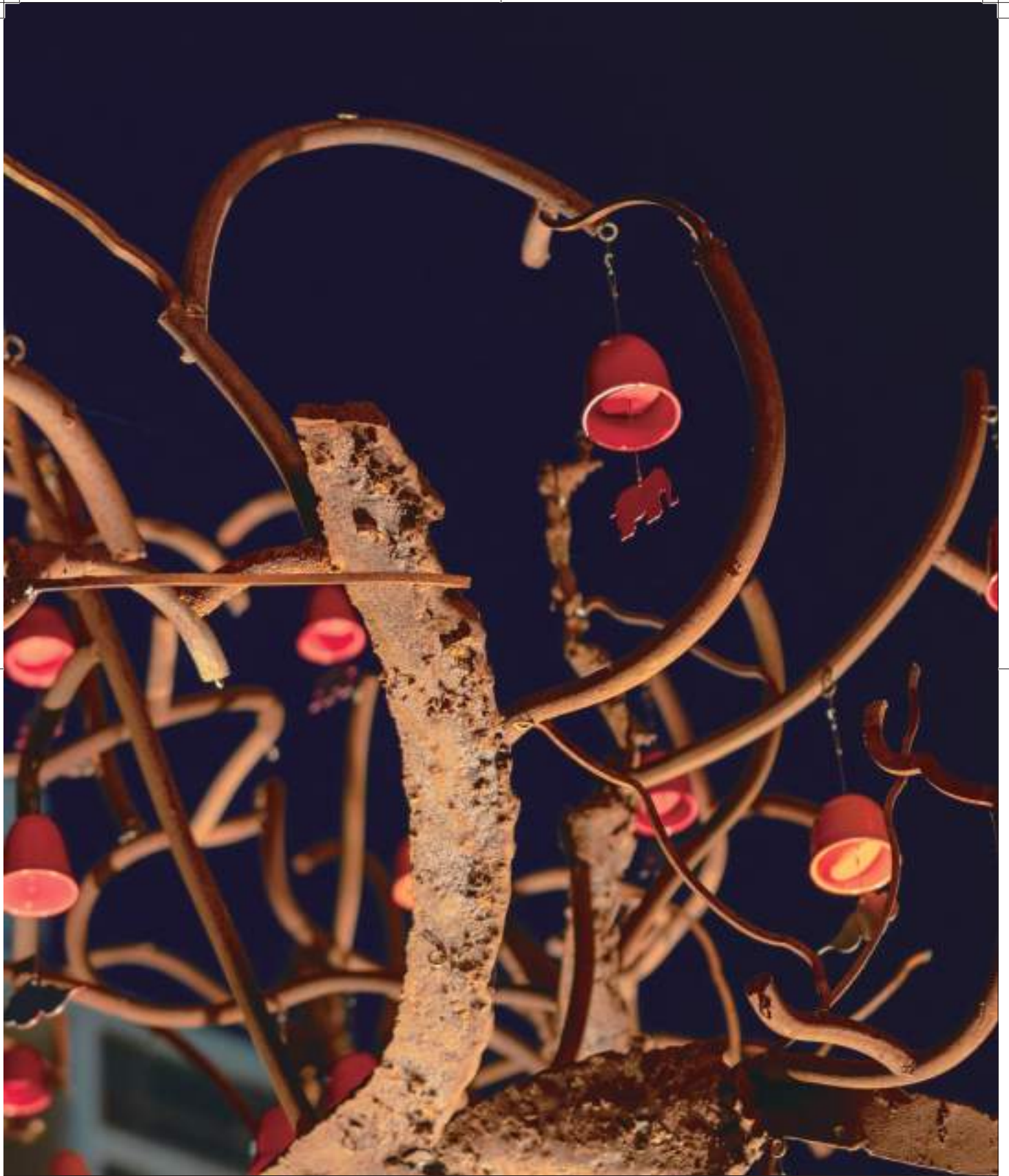
Elements of Nature – Trees that
connect the sky and the Earth.
Artist Sung Dong-Hun chose the
tree that opens up the dream of
nature and humans coming
together as the theme of his work. A
commemorative symbol of nature
that has lived for hundreds of years
and with traces of history, a tree
was often the representative
landmark of a village and its spot
for people to gather. A “Tree”
vertically forms the center of the
village, and has elements of the
perfect shape and nature. The motif
of the work, the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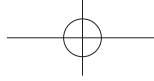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comprehensively implies the cycle
of nature by its roots, stems, leaves,
and fruit. The element of circulation
continues to maintai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people. The wooden figure in the
“standing alone” form with an
interactive element which is the
wind, was inspired by the leaves
moving with the wind, and a charm
hung on it spreads the calm sound
of a bell At night, the interior
lighting emits a subtle light through
the holes on the surface that
magnificently reflect against the
stainless steel, and comes into
harmony with well-meshing colors
of the hanging objects.

성동훈 | Sung Donghun
Material: Blast furnace metal, ceramic chimes
Size: 3500×2800×4200mm









달숲

Moon Forest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24년 윤극영 선생이 작사, 작곡한 동요 ‘반달’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고난의 시절에 민족적 염원과 가야 할 길을 노래로 승화하여 소원한 예술가와 군중들처럼, 현대의 우리들도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팬데믹과 같은 힘겨운 시절을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작가의 뜻이 담겨있다. 작품은 120여개의 작은 달들과 하나의 나무형상의 달로 이루어져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작품 속의 달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반짝인다. 지구의 달은 혼자이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나무는 달과 계수나무가 합쳐진 형상으로 서 있고, 그 주위에 군집을 이루듯 작은 달들이 모여 장관을 이룬다. 작가는 홀로는 빛을 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꿈을 갖고 행복할 때 빛나게 되고 그 꿈들이 여럿 모일 때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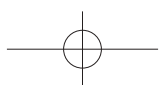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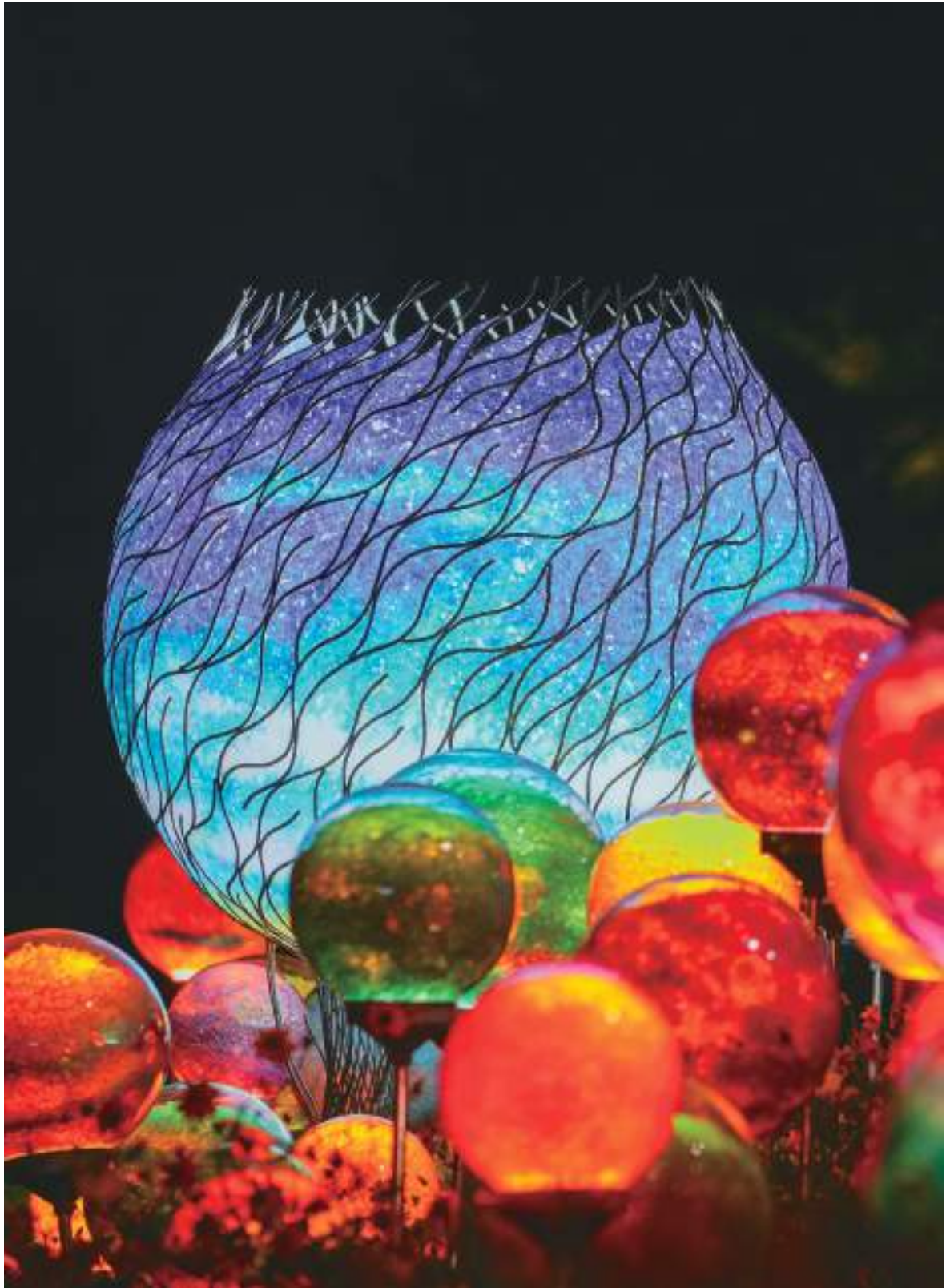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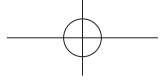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This artwork is inspired by the children's song "Half Moon," written and composed by Yoon Geuk-young in 1924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Like the artists and the people who have sublimated their national aspirations into music in times of hardship, Artist Lee Gibeom expresses that we can overcome the pandemic through art and culture and move toward a hopeful future. The work consists of about 120 small moons and one that is tree-shaped. A moon cannot shine on its own, but the ones in the work shimmer and sparkle on their own. The tree is a combined form of the moon and a laurel tree, and the herd of small moons around it create a magnificent view. The artist's message is that an ordinary person who feels as if unable to give off light on his or her own can come to shine when harb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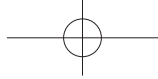
a dream and brings happiness, and by the gathering of those dr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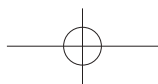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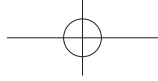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이기범 | Lee Gibe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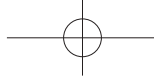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Material: Forged welding on wires, hanji, lighting, object

Size: Moon forest 1200×1200×2000mm / height 300~1100mm with 120 pc gloves









은하수 by 윌리엄 허셸

Milky Way By William Hersch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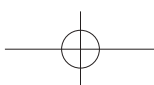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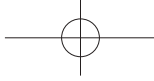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1785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셸이 발표한 은하수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빛 덩어리를 조각적인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허셸은 인류 최초로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돌며 항성이 내뿜는 빛을 반사한다. 허셸은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를 관측했고, 성운이 별들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냈다. 작가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존재를 드러내는 행성의 특성과 별이 모여 만들어진 성운의 특성을 한 작품에 담았다. 작품의 독특한 색상과 형태는 외계의 것처럼 낯설고 기이해서 상상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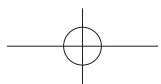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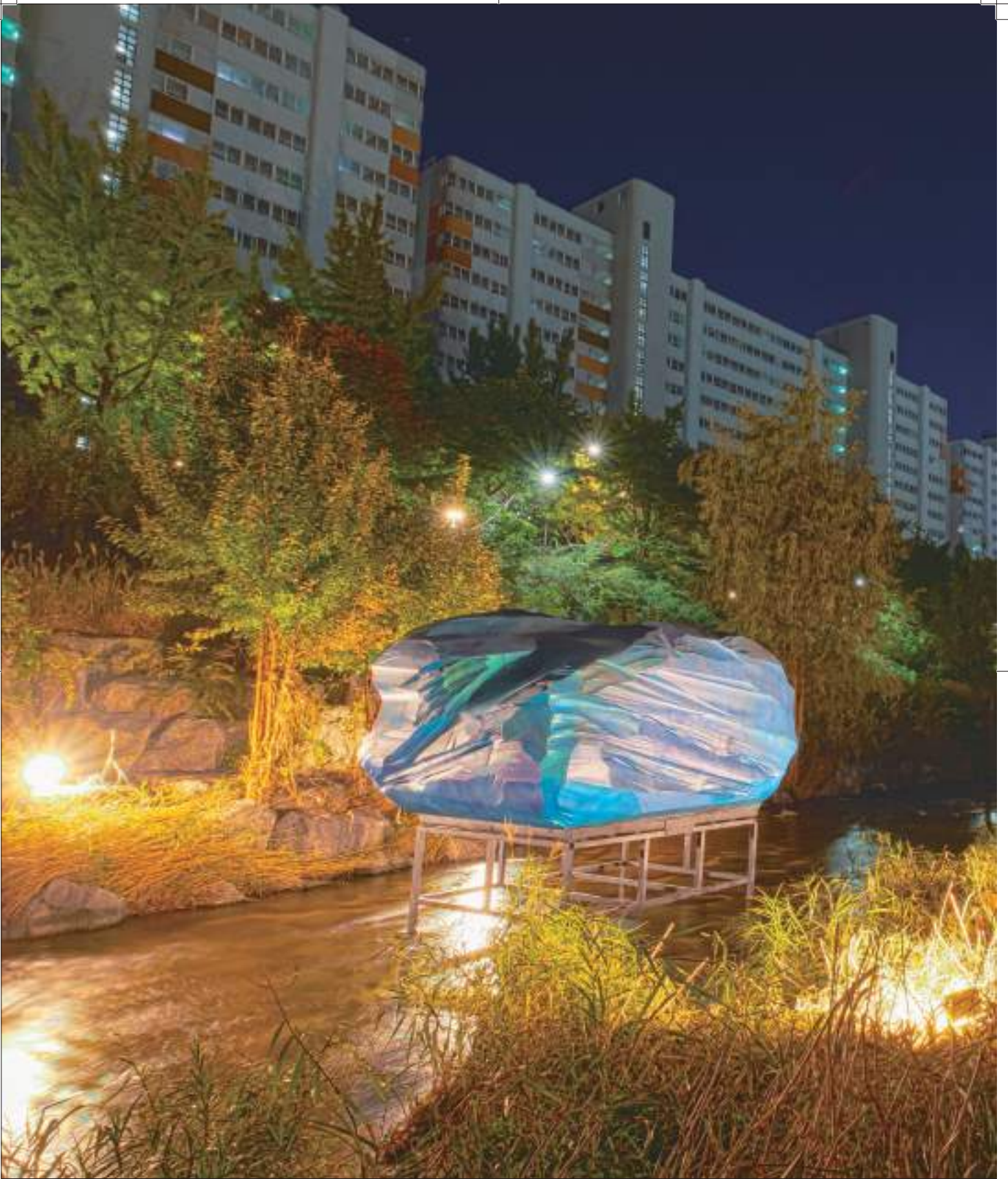
Inspired by the astronomer William Herschel's reported image of the Milky Way in 1785, a lump of light was produced in a sculptural form. A planet cannot emit light on its own but reflects light of a star by orbiting around one. Herschel was the first astronomer to discover a planet, and built his own telescope to observe celestial bodies, which led to another discovery that a nebula is formed by the gathering of st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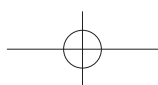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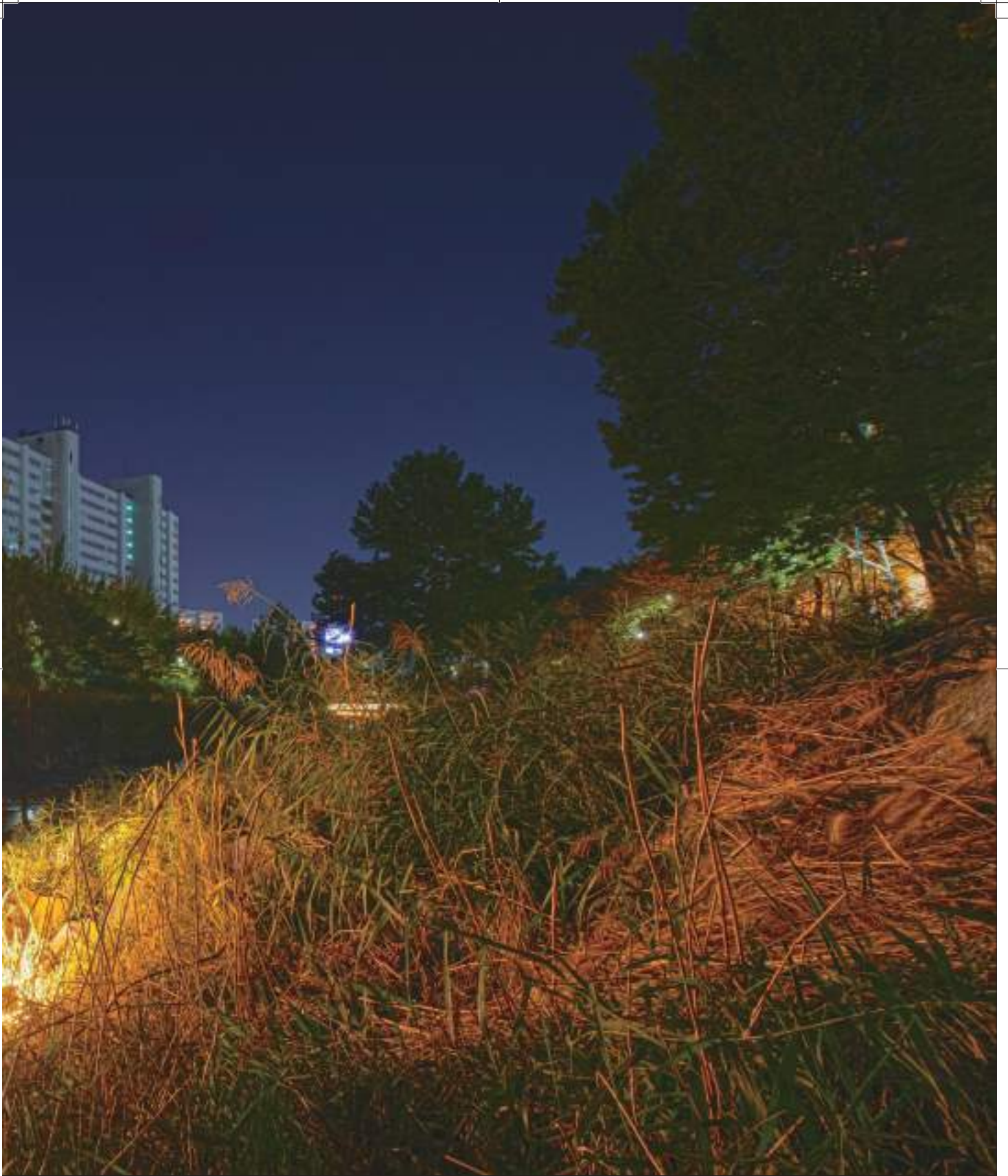
Joung Young Doo instilled in his artwork both characteristic of a planet that reveals itself through reflecting sunlight,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a nebula. Its unique colors and shapes that is even extra-terrestrial shall stimulate the minds of vie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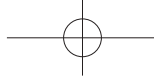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정영두 | Joung Youngdoo
Material: Wood, LED, candy seal
Size: 2400x3600x1900mm









Signal of Earth Live

Signal of Earth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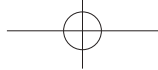
작가는 힘든 시기에 대자연의 장엄함이
느껴지는 은하수를 보며 위로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의
하늘을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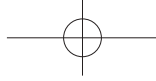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빛의 축제인
은하수의 벅찬 감동을 당현천에 옮겨
별빛의 흐름, 대자연에서 느끼는 감동을
관람객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With hopes that the viewers may be
comforted by seeing the
magnificent nature in such difficult
times, artist Joung Young Doo
depicted the night sky filled with
the lights of Milky Way.

The artist invites you to join him in
experiencing the emotions felt from
star lights and Mother Nature by
moving the festive Milky Way to
Danghyun River.

인송자 | Yin Songja
Material: Synthetic resins, LED, candy seal
Size: 1700x1700x1700mm per piece (total 3)





다함께 춤을

Dance Together

화려한 빛을 내는 고깔 형상의 이 작품은 회전목마, 뽕뽕이, 고깔모자, 팽이 등 즐거운 놀이와 행복한 기억을 소환해 보며 형상화했다. 고깔 끝단의 빛이 원을 따라 빛나며 춤추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며 어린 시절 풍부했던 상상력과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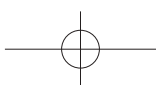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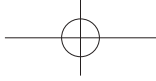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의 빛이 도넛 형태의 튜브를 돌아가며 진해졌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하고 물속에 반사되어 빛이 두 배가 된다. 그리고 두 배가 된 빛은 눈과 마음속에서 네 배가 된다. 작품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행복해할 때 그 행복은 또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This colorful, bright, cone-shaped work recalls and embodies the activities of our youthful days, such as merry-go-rounds, playground spinners, cone hats, and tops. The light at the tip of the cone shines along the circle and creates a dance-like movement, recalling the imagination and emotions of childhood.

Red, blue, and green lights spin around the doughnut-shaped tube, repeatedly becoming dark then faint, and the reflection is twice the size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the light that has doubled quadruples in our eyes and hearts. The work reminds us that when we are innocently happy like children, that happiness doubles by transcending to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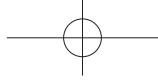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인송자 | Yin Songja
Material: Stainless steel, powder coating, LED
Size: 2000×2800ømm per piece (tota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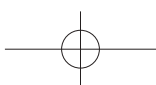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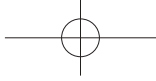
환희의 불꽃 ver.1

Flame of Joy ver.1

작은 촛불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모여 있는 촛불은 소망과 염원을 담을 뿐 아니라 환희와 기쁨도 담고 있다. 화려한 촛불이 꽃 핀 산책로를 걸으며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Small candles come together to become a big light that brightens the world. The small gathered candles evoke hope and desire as well as joy and happiness. It is Artist Jeon Young-ill's wish that people shall come to dream together while walking along the trail of colorful, blooming candles.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11 pieces vary per installation





환희의 불꽃 ver.2

Flame of Joy ver.2

작은 촛불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모여 있는 촛불은 소망과 염원을 담을 뿐 아니라 환희와 기쁨도 담고 있다. 화려한 촛불이 꽃 핀 산책로를 걸으며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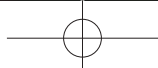
Small candles come together to become a big light that brightens the world. The small gathered candles evoke hope and desire as well as joy and happiness. It is Artist Jeon Young-ill's wish that people shall come to dream together while walking along the trail of colorful, blooming cand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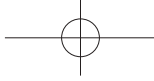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5 pieces vary per installation



Across the Milky Way

• 45





Starlight Festival

Starlight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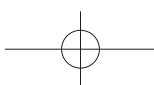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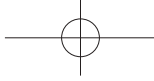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작가는 힘든 시기에 대자연의 장엄함이
느껴지는 은하수를 보며 위로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의
하늘을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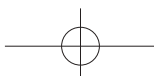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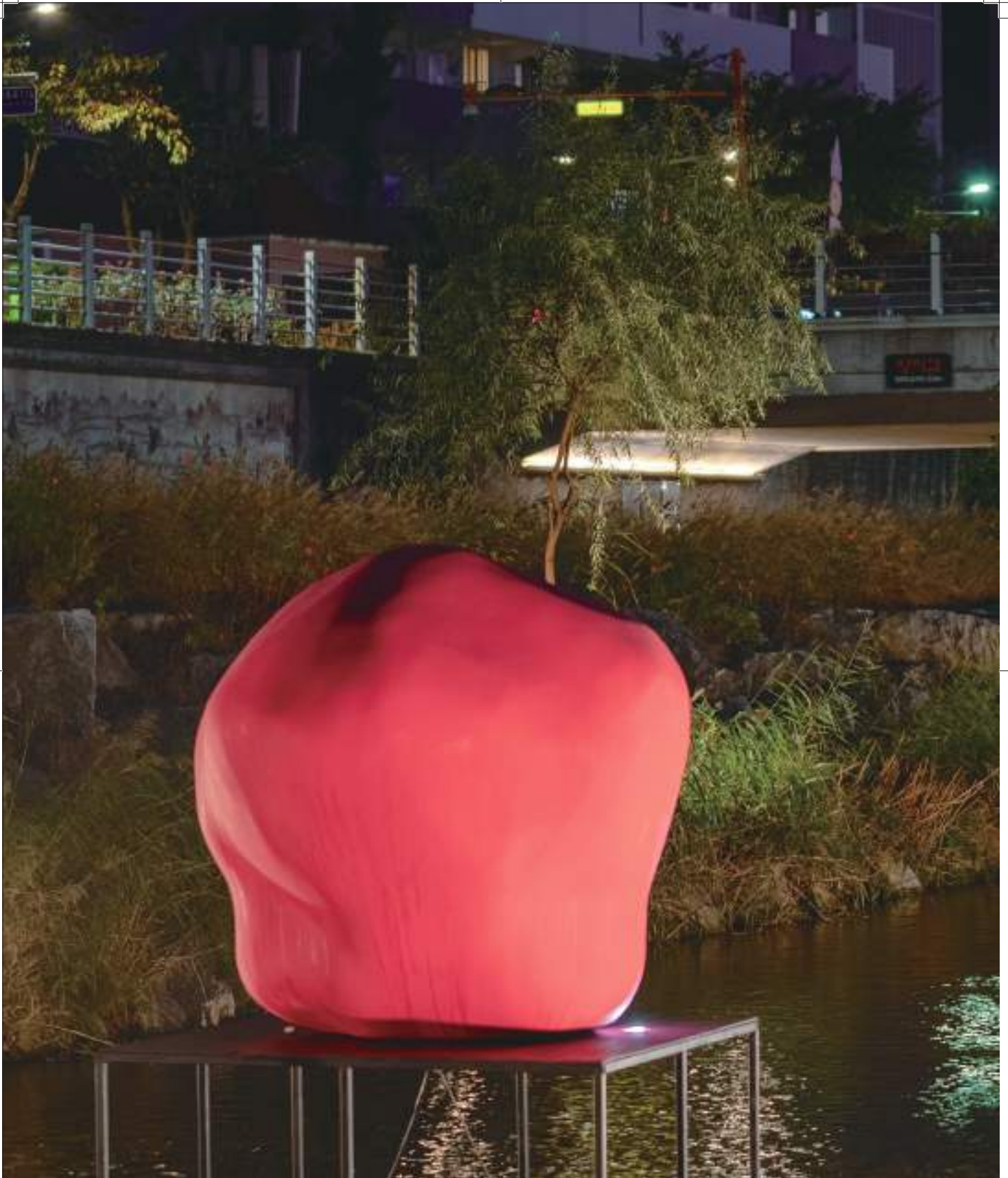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빛의 축제인
은하수의 벅찬 감동을 당현천에 옮겨
별빛의 흐름, 대자연에서 느끼는 감동을
관람객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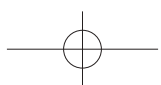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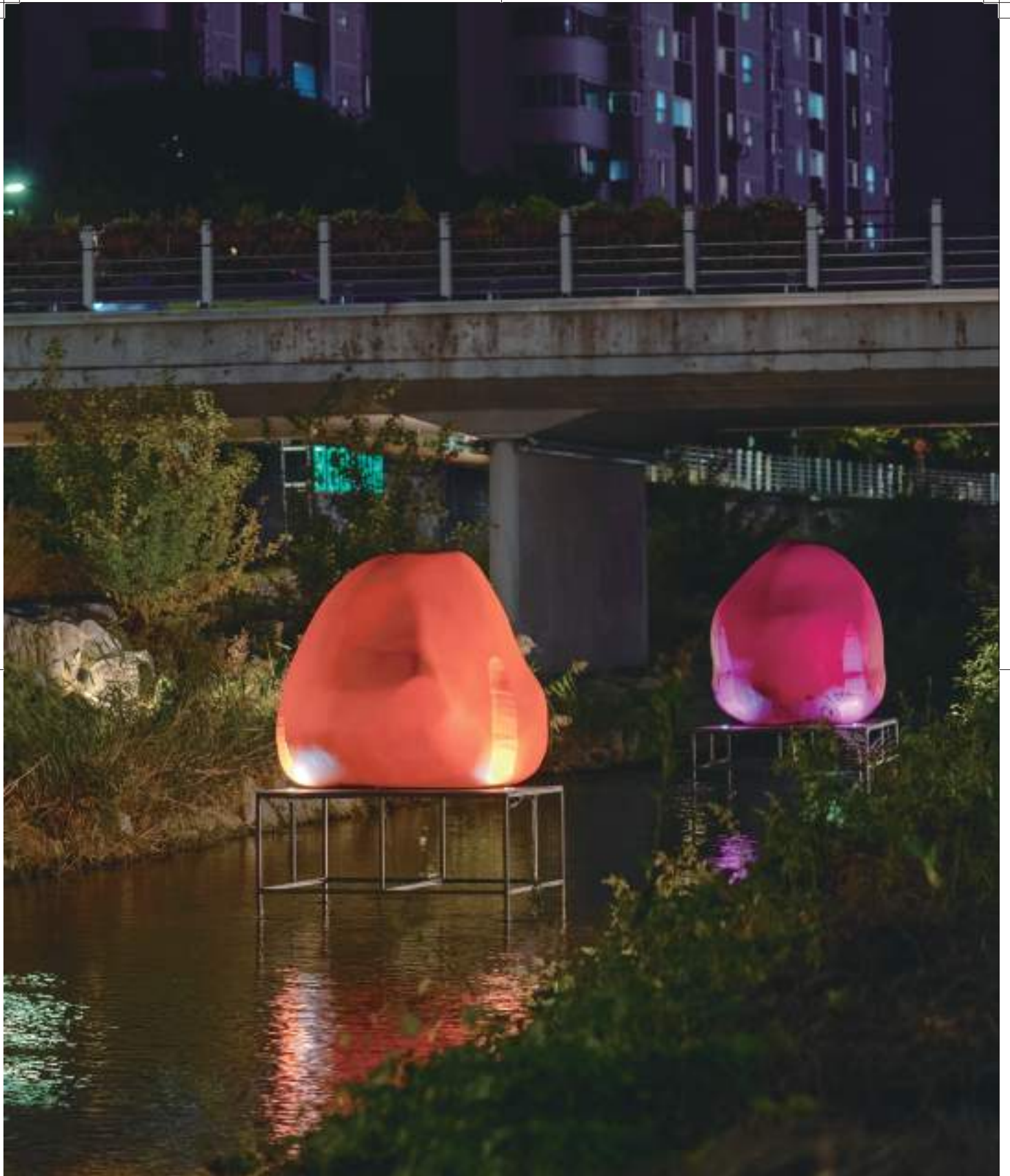
With hopes that the viewers may be
comforted by seeing the
magnificent nature in such difficult
times, artist Joung Young Doo
depicted the night sky filled with
the lights of Milky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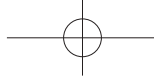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The artist invites you to join him in
experiencing the emotions felt from
star lights and Mother Nature by
moving the festive Milky Way to
Danghyun River.

정영두 | Joung Youngdoo
Material: Synthetic resins, LED, candy seal
Size: 1700×1700×1700mm per piece (tota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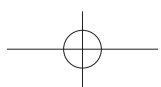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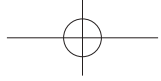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음.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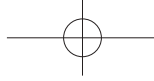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Um. Uh. Ah

작가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 기호로 표현하였다. 감탄기호는 전시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지점을 알린다. 모든 시작에 끝이 있듯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감정의 울림을 전달하는 ‘!’ 기호는 작가에게는 세상에 반응하고 답하는 시작점이자 종착지를 상징한다. ‘와! 앗! 저건! 으악! 안돼! 그래도! ...’무엇을 더하고 상상할 것인가. 작가는 다양한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짧은 ‘!’로 마감하고 싶은 마음을 작품에 담아 전달한다. 작품의 상단은 굵은 철사를 구부리고 잘라 원을 만들어 하나하나 용접하였고, 아랫부분의 구는 둥근 철판들을 하나하나 용접하여 만든 것이다. 작품 표면의 디테일은 시간과 노동이 집약된 강렬한 표현으로 시각과 촉각을 자극한다.

Artist Yin Song-Ja expresses her reaction to the world with the symbol “!” The exclamation mark signifies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exhibition. Just as every beginning has an end, the end is also a start to another. The “!” symbol, which delivers the echo of emotions, symbolizes the starting point and the final destination that the artist responds to the world. “Wow! Ah! Ugh! No! But!...” What shall be added or imagined to these? The artist sympathizes with people experiencing various crises, and conveys her desire to end them with a short “!”. The top part of the artwork is made with thick wires that are bent and cut to create a circle and welded one by one, and the bottom part is made by welding round iron plates, also one by one. The detail of the work that is produced by such intense labor offer visual and tactile stimulation to the viewers.

인송자 | Yin Songja
Material: Stainless steel, light projector, wave lighting
Size: 1200×1200×4000mm





별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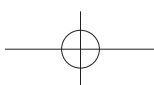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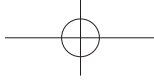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Birth of St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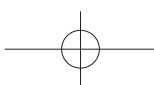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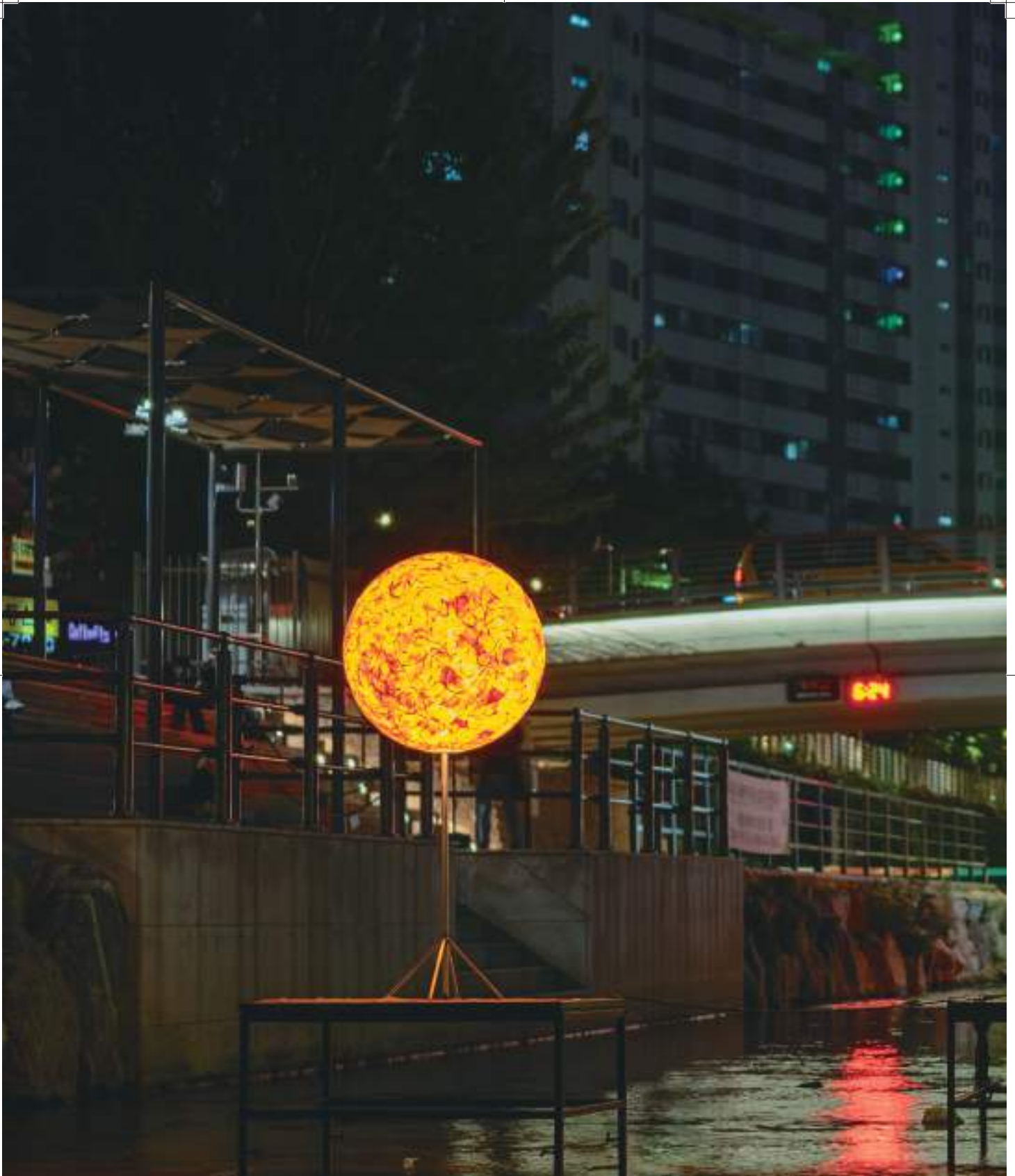
거리를 두고 네 개의 별이 떠 있다.
관람객들은 크기가 다른 각각의 별로 볼 수도 있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큰 것은 가깝게 작은 것은 멀게 느낄 수도 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을 말하는데, 우리 눈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태양보다 큰 별들도 많이 있다. 별은 온도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우리를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느끼게 하는 위대한 별들의 탄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은하수를 여행하기 전에 별들을 바라보며 상상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공간과 탄생 시간을 상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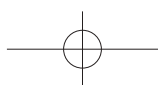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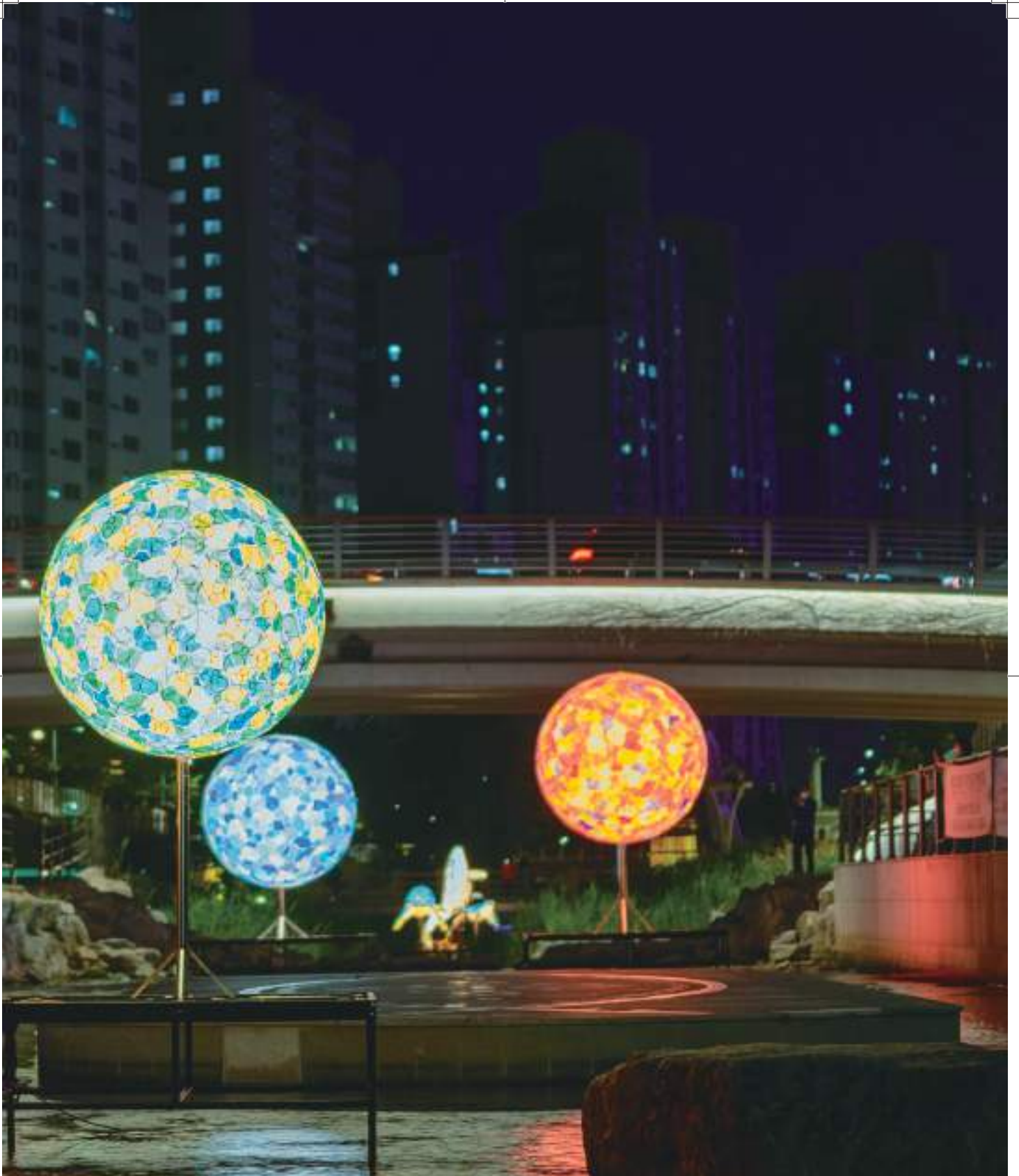
Four stars are floating at a distance. The viewers can consider them as stars of different sizes, or imagine the big ones to be closer and the small ones farther away. Stars are celestial bodies that emit light on their own and appear to be miniscule in our eyes, but many are actually bigger than the sun. As they shine various lights depending on their temperature, they tell of the unimaginable time and space. Then, what must the birth of such great stars that make us feel as mere dust in the universe have looked like? Before traveling the Milky Way, let us imagine the vastness of space and its time of birth that cannot possibly be measured even with the imagination.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ainless steel, steel, hanji, lighting
Size: 1200ø~2500ømm per piece (total 4)







코스모스 성운

Cosmos Nebula

인류에게 코로나 시대는 분명 혼란의 시기였다.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 경제, 문화 등 안정된 것으로 보이던 인류 문명 전체가 요동쳤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질서를 찾아갔고, 바이러스 역시 인간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갔다. 코스모스 발에 별을 상징하는 빛 덩어리들이 반짝인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질서, 혹은 우주를 뜻하며, 코스모스 꽃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코스모스 발에 작은 별들이 내려 군집을 이룬다. 코스모스(질서)와 반대의 의미인 카오스(혼돈)를 연상케 하는 선으로 얹히고설킨 프레임 속에 오색의 찬란한 빛들이 반짝인다. 질서는 언제나 혼돈과 대립되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혼돈이 없는 질서도 없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지러이 공존하는 속에서 균형과 질서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도 혼란과 역경을 이겨낸 후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For humankind, the Covid era was a time of chaos. The seemingly stable human civilization was stirred, including the individual health and life, social value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during the course of three years, we have rekindled an order, while the virus also has found ways to inhabit among the humankind. The lumps of light symbolizing stars sparkle on the field of cosmos flowers. "Cosmos" means order or the universe in Greek, and the flower has the same meaning as well. Small stars have fallen on the flower field and formed a herd. In a frame that is intertwined with lines that reminds the word "chaos", which is the antonym to "cosmos", bright colors of light sparkle. In contrast to "chaos", "order" always connotes a positive meaning, but there is no order without the chaos. As wha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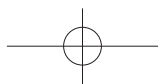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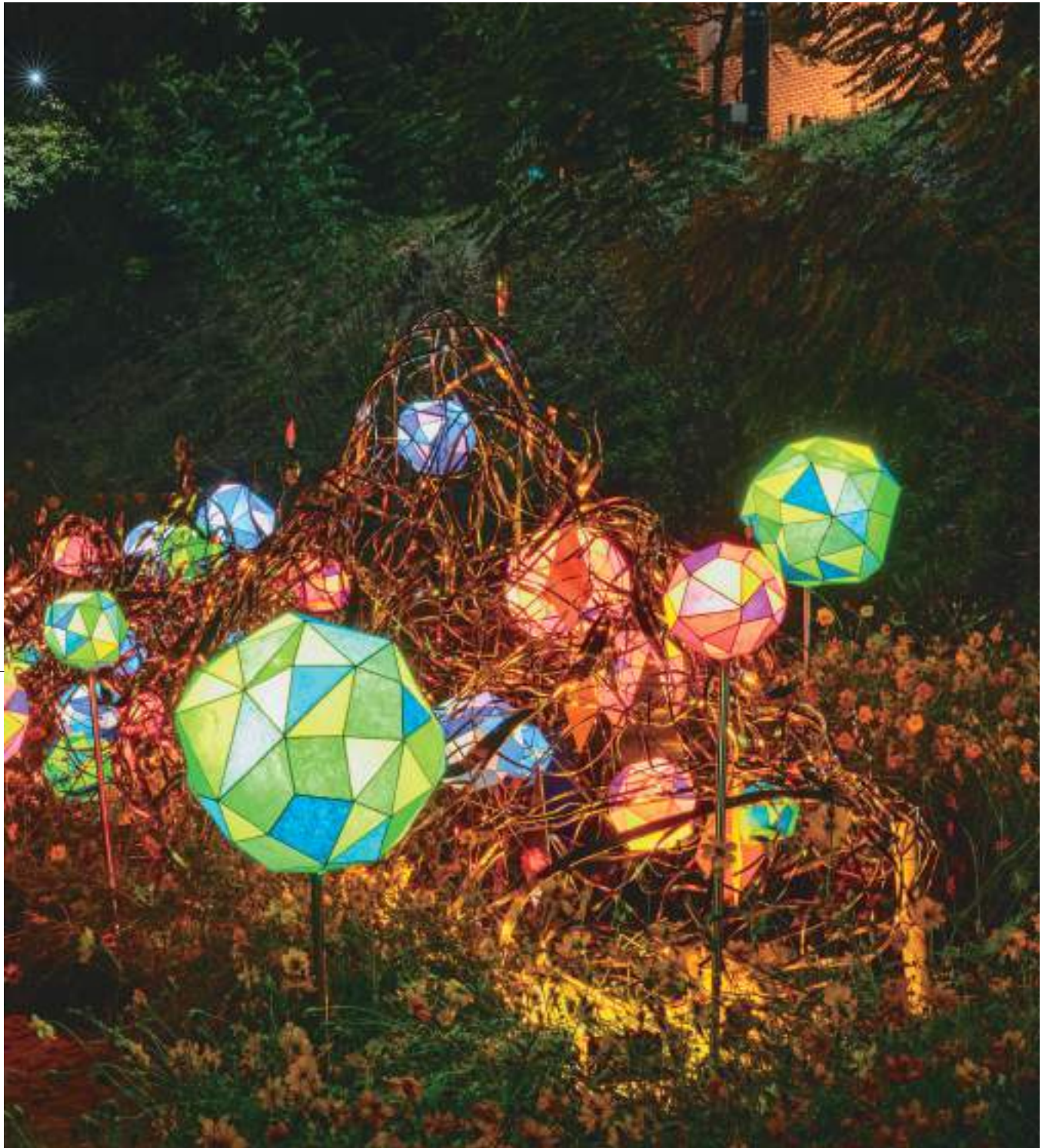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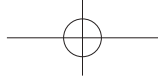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the most beautiful is when differing elements coexist in balance and order, our lives will become more strong after overcoming confusion and ad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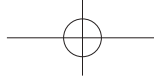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Height 50~1500mm, varies per installation in a 5m section





큰고래자리

Constellation_Humpback Wh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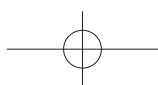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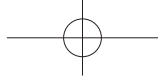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네 마리의 고래들이 은하수 여행자를
따라오며 출행길을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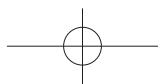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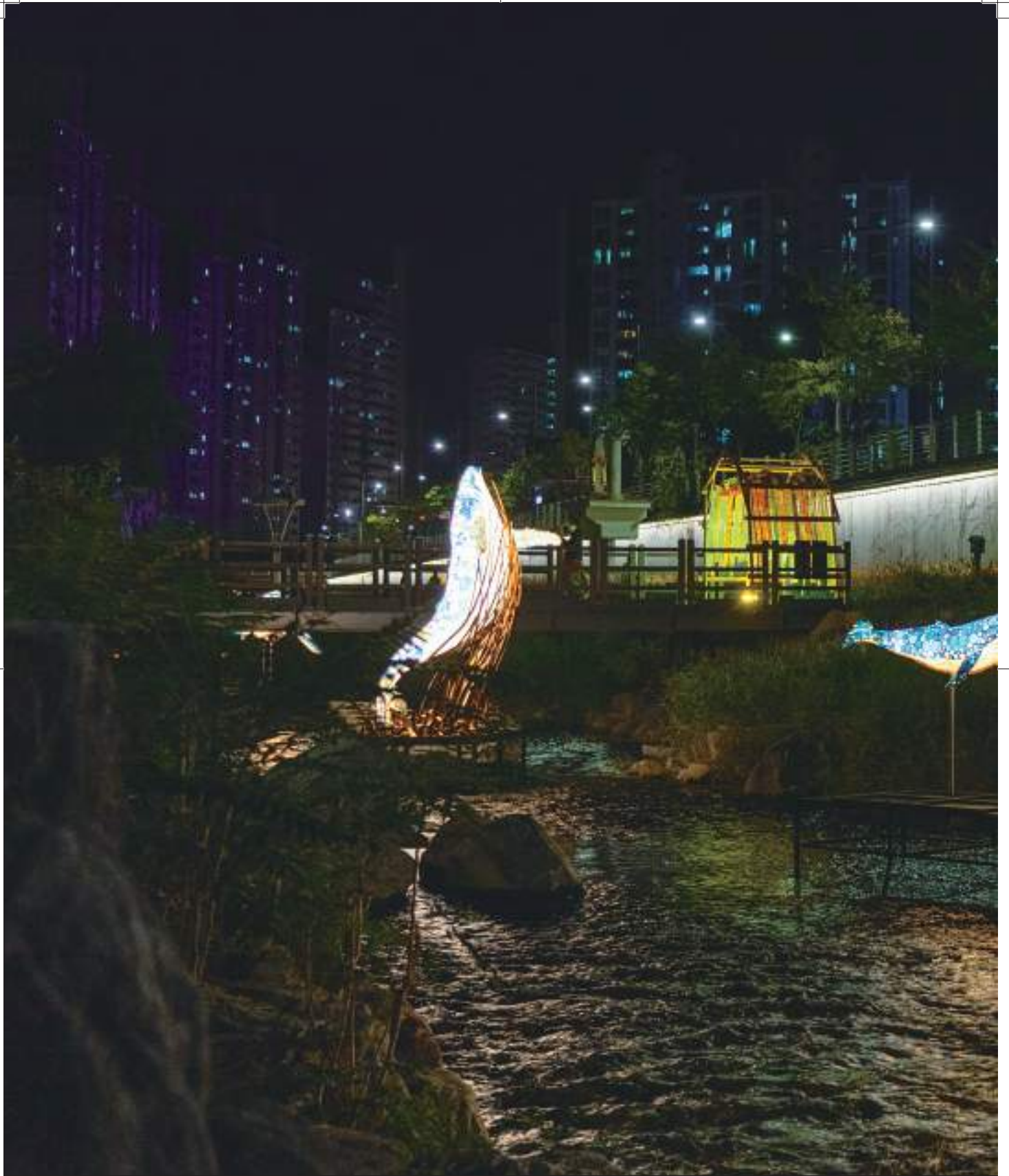
큰고래자리라는 제목은 은하수에 사는
고래들은 빛나는 별자리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당현천에 방문했던 세 마리 고래 가족에
물을 박차 오르는 고래 한 마리가 더
나타나 빛나는 별자리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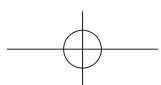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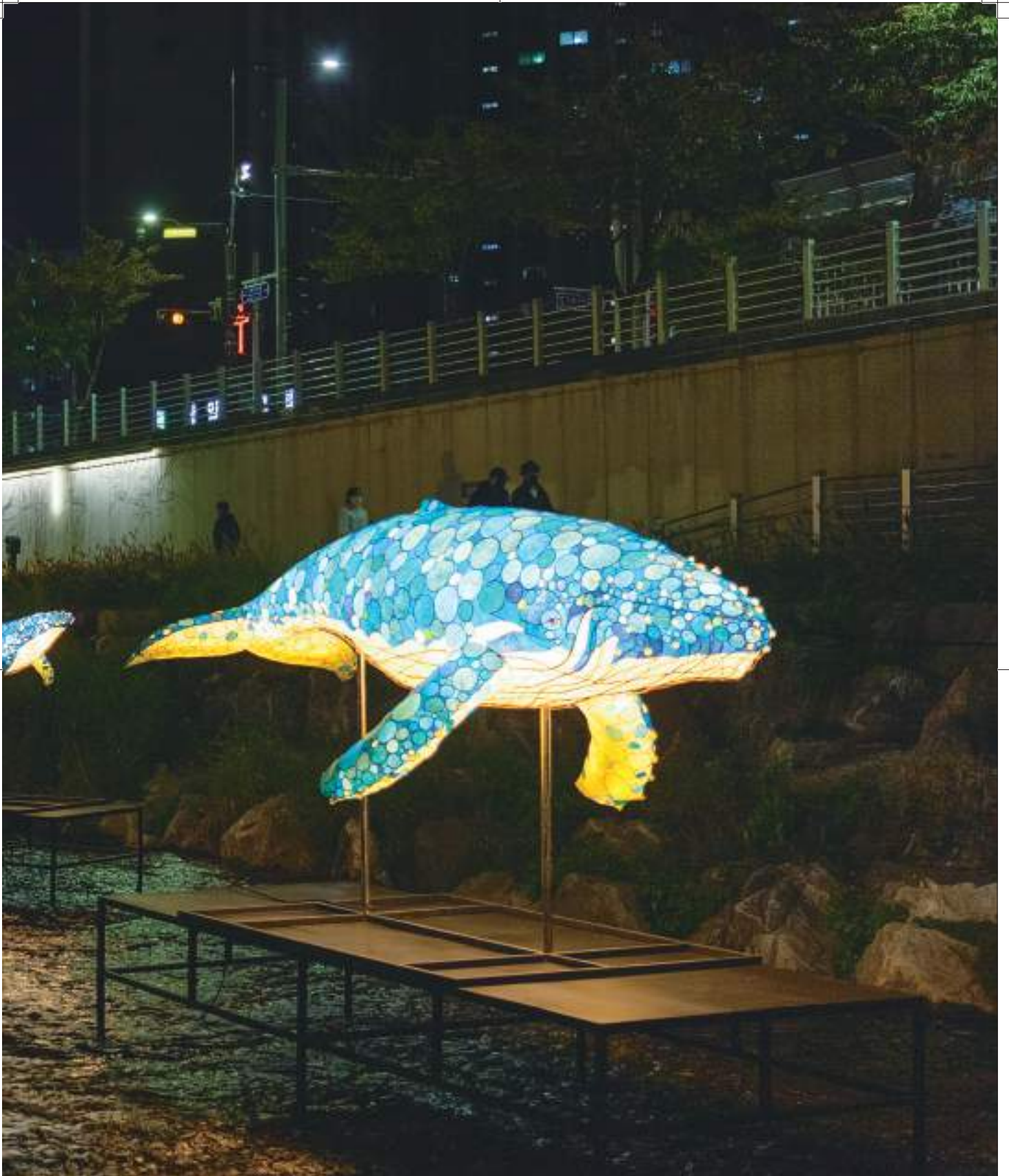
Four whales follow the Milky Way
sojourner, lighting up the path. The
title <Cetus> was born from the
imagination that whales living in
the Milky Way must exist as bright
stars. The whale family of three that
had visited Danghyeon River last
year is joined by another one
leaping above water, completing a
bright conste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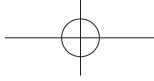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4000×1600×1400mm/3000×1500×1500/
1800×900×900mm/2000×2000×1600mm(T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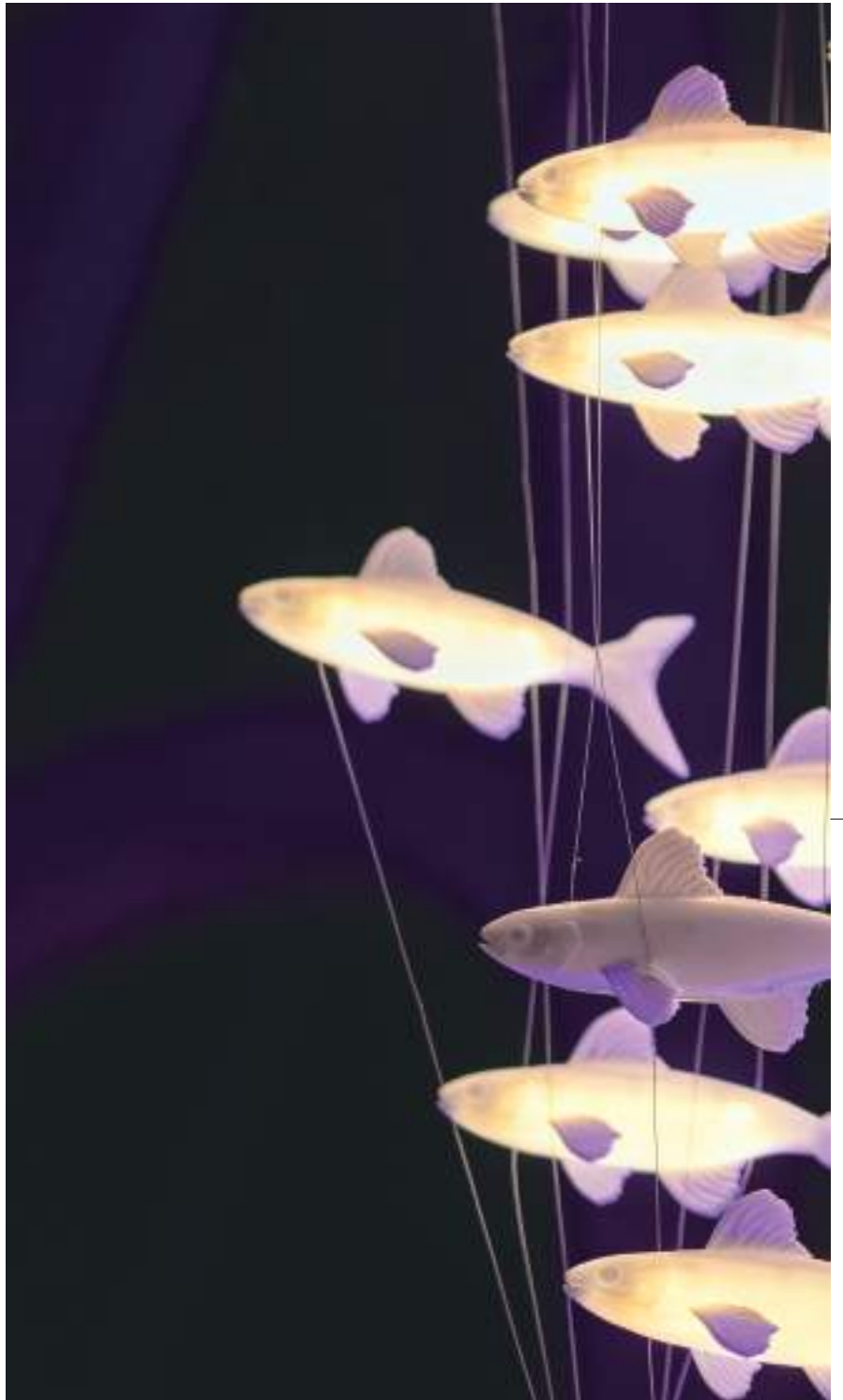


Made in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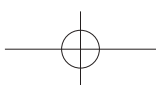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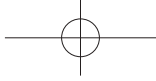
Made in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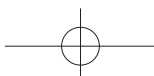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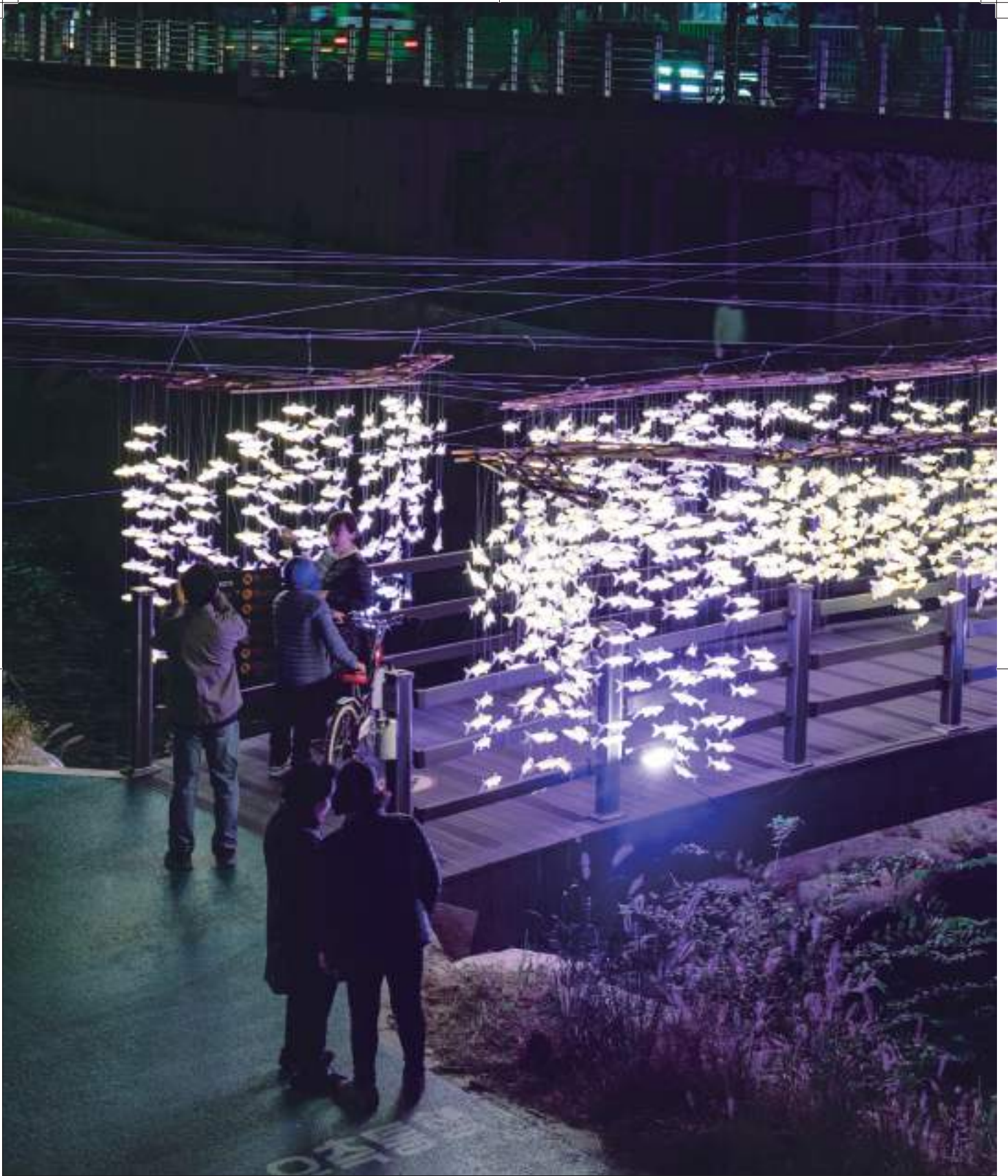
빛나는 물고기떼가 다리를 넘어 헤엄치는
광경을 연출한 작품이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들을 보며 관람자들이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물속의 물고기를 상상하며
관람자는 무중력의 우주를 상상하며
자신만의 우주를 만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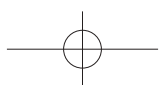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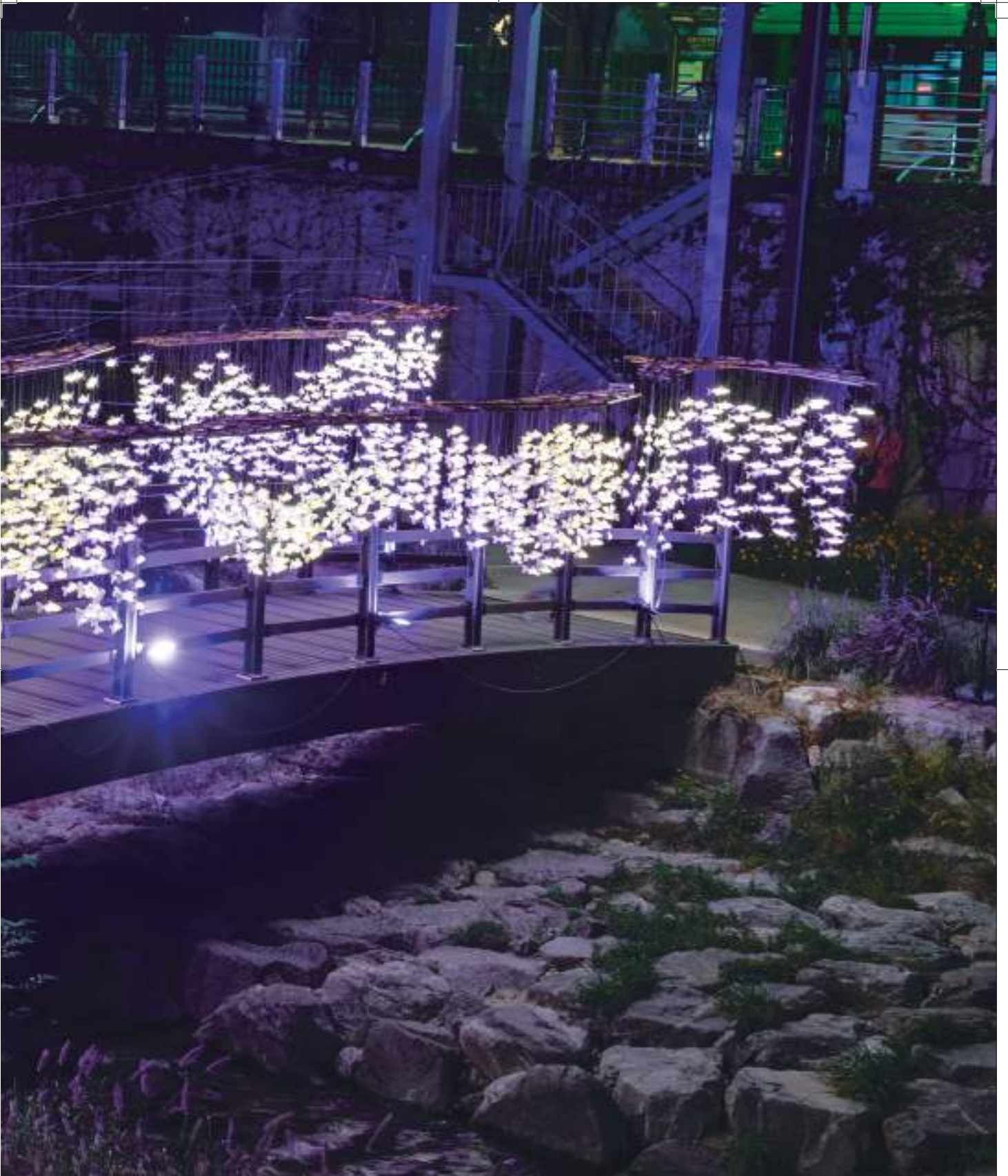
Artist Kim Jaesung's work depicts a
school of bright fish swimming over a
bridge. The viewers become to
feel like stroking in the water along
with them while watching the fish
gently move with the wind.
The artist's wish for you is that you
will meet your own universe of
non-gravity as you imagine the fish
in the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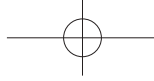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김재성 | Kim Jaesung
Material: Plastic, hanji, steel wires, motors, wires
Size: 2000×1000×3200mm









무지개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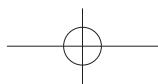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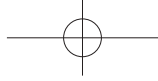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Over the Rainb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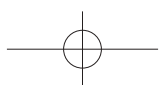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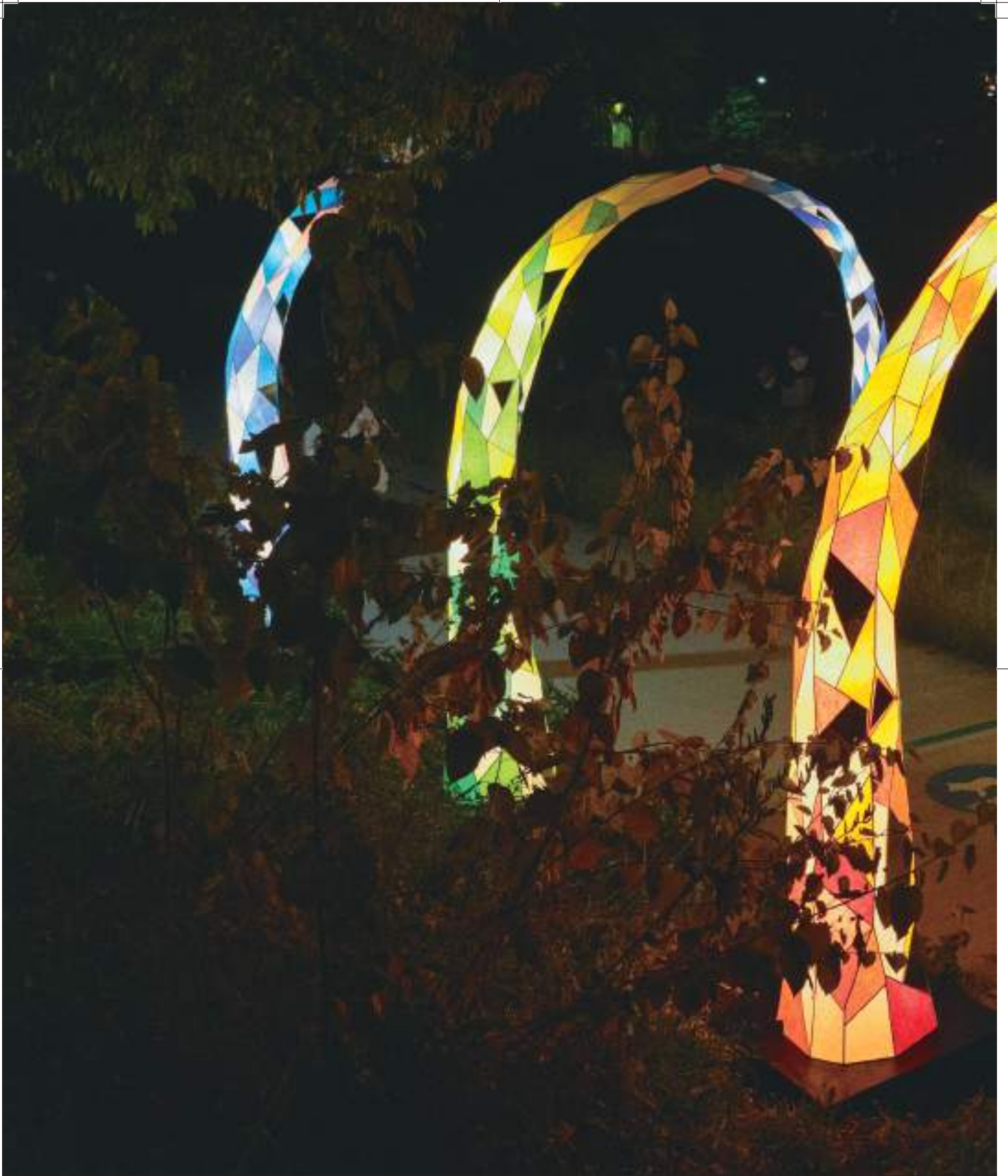
노래 ‘무지개 너머(Over The Rainbow)’를 모티브로 무지개 너머 저세상에는 아름답고 근심 없는 이상적 세상이 있을 거라는 노래 가사처럼 펜데믹 이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관객들이 좌우 세 개씩 세워진 무지갯빛 아치 기둥 아래로 통과하면서 걱정 근심을 잊고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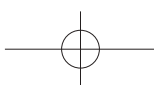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Inspired by the song “Over the Rainbow” that dreams of a beautiful and carefree ideal world over the rainbow, this work sings the desire for a happy life after the pandemic; Artist Kook Kun Yil’s number for the viewers to forget their worries and find hope as they pass through the rainbow-colored arch pillars, three on each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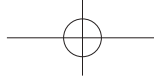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국근일 | Kook Kunyil

Material: Stainless steel, acrylic mirror, hanji, lighting
Size: 550×3000×500mm per piece (total 6)









빛의 미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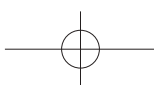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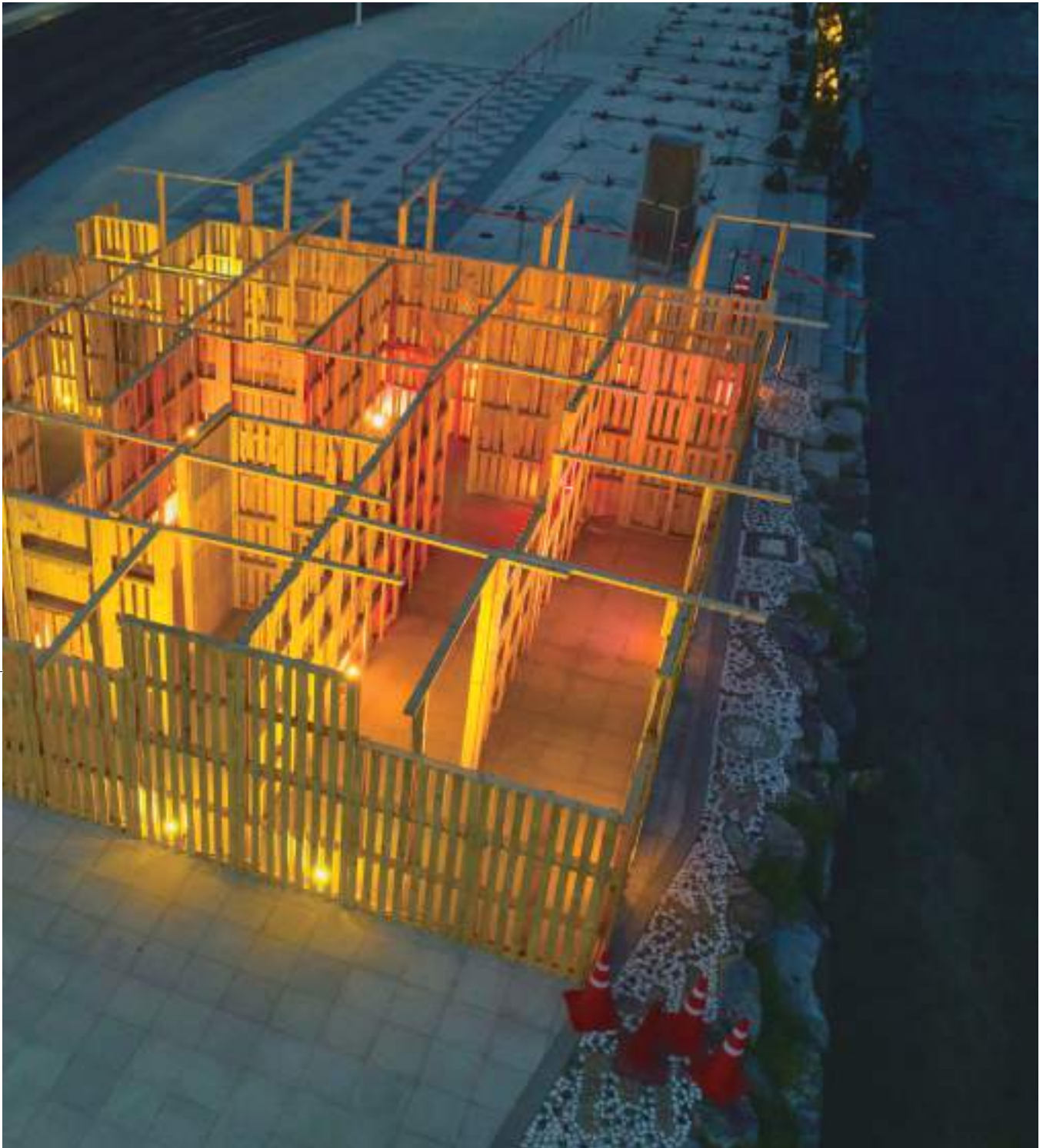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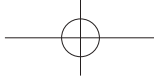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Maze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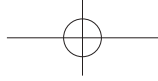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목재 구조물과 조명으로 만들어진 미로다. 나무 틈새로 바닥에 설치된 조명에서 나온 빛이 새어 나온다. 5~10명 정도로 입장이 제한된 참여자들이 미로에 들어가서 길을 찾기 위해 움직이면 지나는 자리의 빛을 막아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든다. 밖에 있는 관람자들은 참여자가 만드는 그림자로 참여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미로 속 길의 입구와 출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인생의 여정처럼 참여자가 직접 지나가며 만들어가는 길이 모두 답이다. 이 작품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참여작품이자 커다란 빛 조형물이다. 전자제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우연한 움직임으로 빛의 전열을 제어하는 아날로그 인터랙티브 아트이기도 하다.

This is a maze made of wood structures and lighting. Light from the lighting installed on the floor seeps out through the wood cracks. As a group of 5 to 10 people enter the maze and move about to find the way out, shadows are created by blocking the light of where they pass. Viewers outside the maze can guess the participants' location with the shadows that the people inside are creating. The entrance and the exit of the maze are not determined, and the paths created by the participants are all answers, just as the journey of life is. This is a participatory artwork and a massive light structure created and engaged by the citizens, and also an interactive analog art that controls the light by people's movements rather than with an electric control device.



전영일 X 가제트공방 | Jeon Youngill X Ga-z Wood Studio
Material: Wood, LED lighting
Size: Height 1800~2200m, width 9000×12000mm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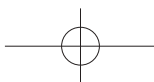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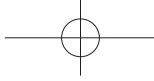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Br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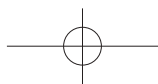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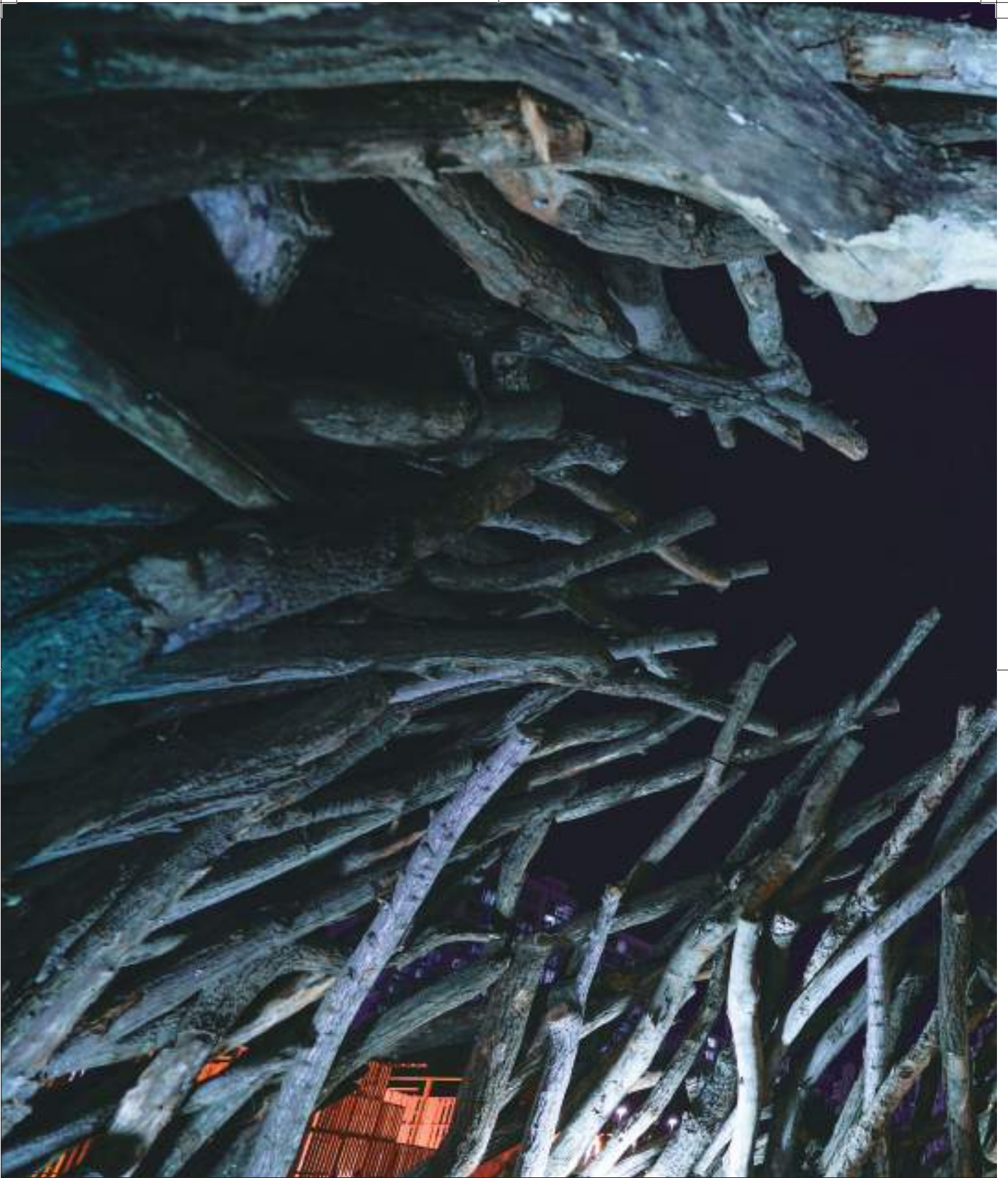
당현천 산책길을 걸으면 오랜 세월
노원구를 가로지르며 품어온 물길에
어울려 자리 잡은 꽃과 나무, 오리들, 혼자
노는 왜가리, 잉어, 피라미드를 만날 수
있다. 당현천 주변을 바라보면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와 상가들이 보인다. 작가는
비버(Beaver)가 강가의 나무를 잘라와
거주지(Lodge)를 만드는 방식에 착안해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노동집약적 과정으로 작품을 만든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 속에 잠시 머물고
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주변과
밤하늘을 보면서 '큰' 호흡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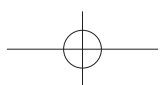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Walking along the Danghyeon River
trail that has passed through
Nowon-gu for decades, you can
meet flowers, trees, ducks, a heron
hanging out alone, carps, and
minnows. And surrounding the trail
are apartment buildings like a
folding screen. Inspired by how a
beaver cuts down trees by a river
and creates its own lodge, artist
Park Bonggi creates labor-intensive
pieces using discarded materials.
Park recommends that viewers stay
and rest for a while in his creation,
feel their breathing, and inhale
deeply while looking at the
surroundings and the night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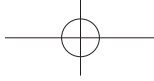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박봉기 | Park Bonggi
Material: Branches, recycled wood (square lumber, bamboo sheath)
Size: 6000×2500×1500mm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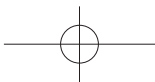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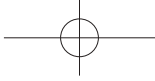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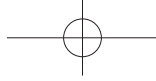
오래된 집은 현실에서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에서 도피하기 위한 어린시절의 기억을 대변한다. 오래된 집 아래 달린 잠망경을 통해 본 집의 내부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보여 기대한 모습과 괴리감 느끼게 된다. 작품은 찬란한 문명으로 빛나는 미래의 풍경을 욕망하는 동시에 안락한 어린 시절의 풍경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모순적 욕망 속에서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한다.

The old house represents the childhood memories to escape from the anxieties of reality. Looking into the periscope that peeks in the interior of the house, the scenery of busy modern people is quite conflicting. This artwork leads the viewers to face our self-contradiction of desiring a bright future gleaming with high-end civilization, yet longing for the comforting scenes of moments from childhood.



박국진 | Park Gukjin
Material: Polyurea, PVC, wood, Single Channel Video (20:25)
Size: Varies per installation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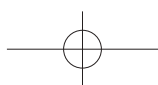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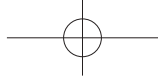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Synec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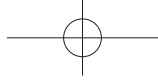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당현천 길가에 대조적이며 낯선 식물인 선인장이 서 있다. 역지스럽게 타종의 식물과 어울려 있는 모습은 불과 몇십 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던 낯선 풍경이다. 군집을 이루고 있는 선인장은 서부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 선인장인 사와로(Saguaro) 선인장이다. 그는 대부분 사막과 같은 척박하고 건조 지대의 가혹한 환경에 살고 있다. 사와로 선인장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여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는 원시적인 형태를 갖추는데, 주위 인간을 포함하여 동식물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안식처를 제공한다. 수명이 다해 쓰러지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그 지역의 생태계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중립 확산 등 환경에 관한 이슈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선인장과 같은 자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대담론이니만큼 향후 미래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유에서 한 번쯤 이러한 풍경을 마주하길 바란다.

cactus-like nature to save us forever. Artist Park Guk-Jin wishes the viewers to witness the landscape as what he had created once in a while, to be reminded of this matter that affects our future generation.

An awkward and conspicuous cactus stands on the road by Danghyeon River. Seeing the plant forcibly intermingling with other plants is an unfamiliar scenery that wasn't imaginable just a few decades or even years ago. The cactus in a cluster is called Saguaro cactus, which is often seen in Hollywood's Western movies. They're usually found in extreme conditions of barren lands in a dry climate. The Saguaro cactus provide water and food to humans and the living things around it while adapting to such environment by taking the primitive form of protecting itself with thorns, benefiting its habitation.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carbon emission are intensifying, we cannot rely on the Saguaro

박국진 | Park Gukjin
Material: Resin, steel, LED lighting
Size: Varies per installation





해신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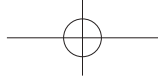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God of Sun and God of Moon

우리는 해신, 달신과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남두육성과 북두칠성, 그리고 북극 3성, 5행성, 28수 등이 기록된 고구려인들의 벽화 속에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한 각별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서대묘 고분 벽화인 사신도의 청룡·주작·백호·현무 등도 각 방위 별자리 모양에서 비롯됐다. 특히 고구려인들은 ‘우주’를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의 이원론으로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지 않았다. 인간과 초인간(신)은 단절이나 폐쇄 혹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공존과 융화의 유기체적 관계로 인식했다. 즉, 고구려인들에게 ‘인간’은 죽음으로

종말하고 무화(無化)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Cosmos)’의 운행에 평화롭게 적극 참여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신들과 자연의 이웃으로 함께 불멸하는 존재였다. 고구려인들은 이를 ‘무덤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형이상학의 지평’을 펼쳐놓았다. 본 작품은 이러한 고대 고구려인들의 우주관에 기반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인들의 세계상과 예술로 지은 웅비(雄飛) 하는 아름다운 우주 공간, 고구려 고분벽화는 현재의 우리와 고대시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시공간을 넘어서는 문화적·정신적 소통과 대화의 통로이다.

The faith in space and constellations of our ancestors from Goguryeo can be found in their murals that recorded the God of Sun, the God of Moon, Milk Dipper and Big Dipper that indicate south and north, and the north pole's 3 stars, 5 planets, and 28 constellations. Sasindo – the ancient mural of Kangso Three Tombs – has ancient drawings of Blue Dragon, Red Phoenix, Wh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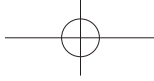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Tiger, and Black Turtle Snake, which all derive from the shapes of constellations. The Goguryeo people had not separated or placed the ‘universe’ in dualism, and without disconnecting or destroying, they acknowledged the secular and heavenly things to be in a relationship of coexistence and harmony. In other words, for Goguryeo people, “humans” were not lives that shall be deceased one day, but continuing in immortality by peacefully joining the operation

of “Cosmos” along with the sky, the land, and the gods. And, by visually expressing this concept in the tombs,” they opened up a new field of metaphysics. This artwork is based on such view of the universe from the ancient Goguryeo people. The Goguryeo tomb mural filled with such incredible worldview in beautiful artwork is Korea’s proud UNESCO World Heritage property, which connects our current time with ancient wisdom and creates a channel for cultural and spiritual

communication transcending time and space.

전승일 | Chon Seungil

Material: Birch plywood, regular plywood, various pipes, metal rod, acrylic paint
Size: 3000×3000×1500mm



하얀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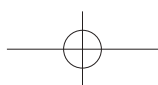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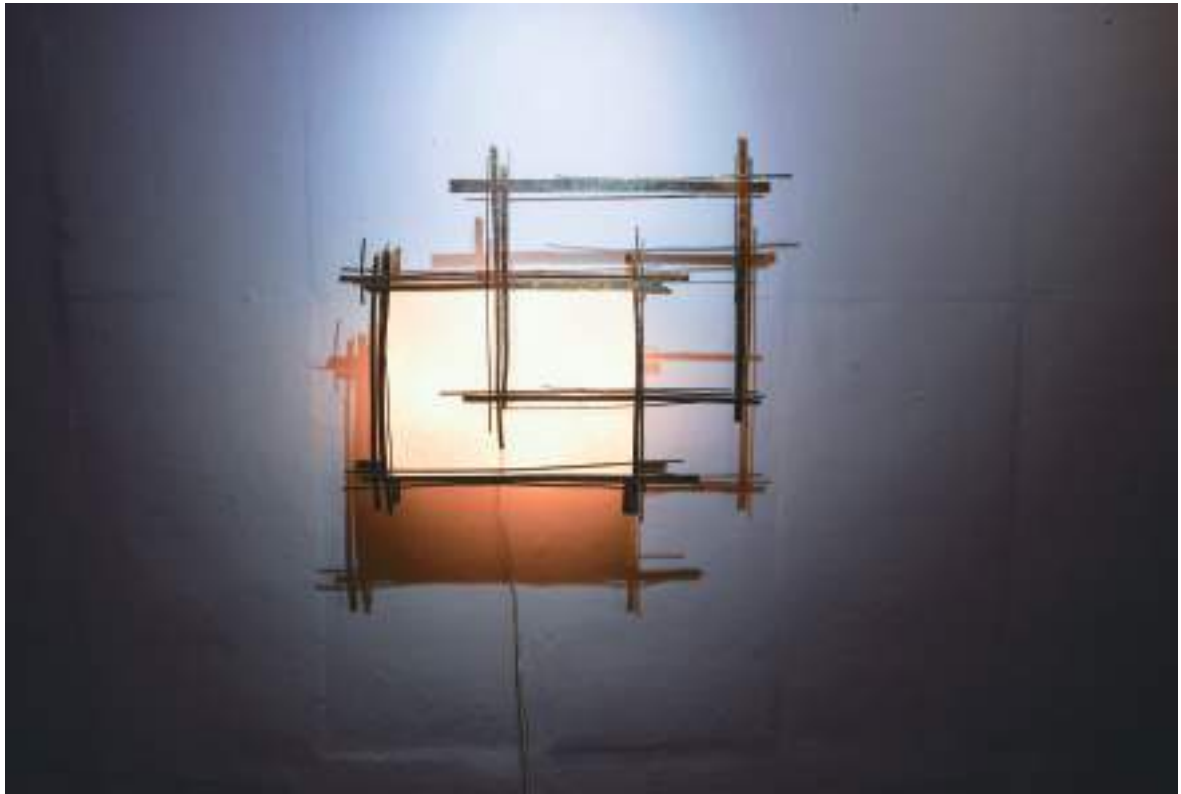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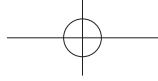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White sha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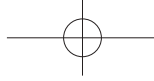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이 작품은 공허한 상태의 쓸쓸한 심경을 묘사한 윤동주의 시 ‘흰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그림자가 모든 사물을 무표정하게 동일한 색과 실루엣으로 채우는 것에 비하자면 작품의 ‘하얀 그림자’는 그조차도 사치처럼 느끼게 한다. 작품에서 빛 덩어리는 사각에 갇혀 있으며 조명에 의해 그림자로 한번 복제된다. 사각의 틀은 금속 선으로 드로잉한 것처럼 중첩되어 배경과 레이어의 부조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은 외부의 조명을 통해 빛 덩어리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드리운다. 하지만 그 ‘하얀 그림자’가 전달하고자 한 공허하고 부질없음을 흔들리는 그림자로 보여준다. 빛은 사물들의 형태와 그림자를 드러나게 만들지만 자신보다 강한 빛에 의해 그림자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This artwork was inspired by Yun Dong-Ju’s poem, “White Shadow,” which portrays the lonely feeling of emptiness. The shadow fills everything with the same color and silhouette without expression, upon which the “white shadow” feels like

an extravagance in itself. In the work, a lump of light is trapped in a square and once reproduced as a shadow by the lighting. Metal lines overlap as if drawn to form the square’s frame, which also look as if there is an incongruity between the background and the layer. The work accurately depicts the shadow of the lump of light through external lightings, but the emptiness and futility that the “white shadow” intends to convey are shown in wobbly shadows. The work metaphorically expresses that light reveals the shape and shadow of things, but it also forms a shadow by the light stronger than itself.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Size: 1100×940×175mm





환희의 빛-12별자리(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작품)

Light of Joy-Zodiacal Constellation

당현천을 감싸는 빛의 도시의 환경과 자연의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당현천에서 우주, 혹은 다른 차원을 느낄 수 있도록 빛의 벽으로 감싸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다. 땅에서 웅기한 것 같기도 하고 땅이 꺼져 생성된 절벽 같기도 한 벽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룬다.

3미터에 이르는 대나무 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 주변 공간을 새롭게 한다. 당현천 산책로 가에 2~3미터의 대나무 조형물을 50m에 이르는 구간에 반복적으로 세워 낮에는 기암절벽 사이나 나무가 빼곡한 오솔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빛으로 가득한 은하수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을 준다. 12개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은 우주, 혹은 다른 차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별빛을 가려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는 행성들처럼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불이 점멸하여 관람객의 위치를 알린다. 별자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 낮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오솔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빛으로 가득한 은하수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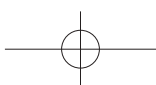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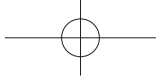
This artwork shows harmony between the city lights and nature surrounding Danghyeon River. A new space is created through a wall of light to give the feeling of the universe, or another dimension. Appearing to have been raised from the ground or a cliff created by the fall of the ground, the wall has a natural curve. The 3-meter bamboo walls are arranged rhythmically at regular intervals to bring newness to the surrounding space. Along the Danghyeon River trail, a 2-3 meters bamboo structures are repeatedly placed through the course of 50 meters. During the day, you will feel as if walking among some st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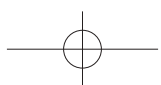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rock formations or on a path full of trees, while at night when the lights are turned on, passing through a galaxy full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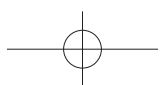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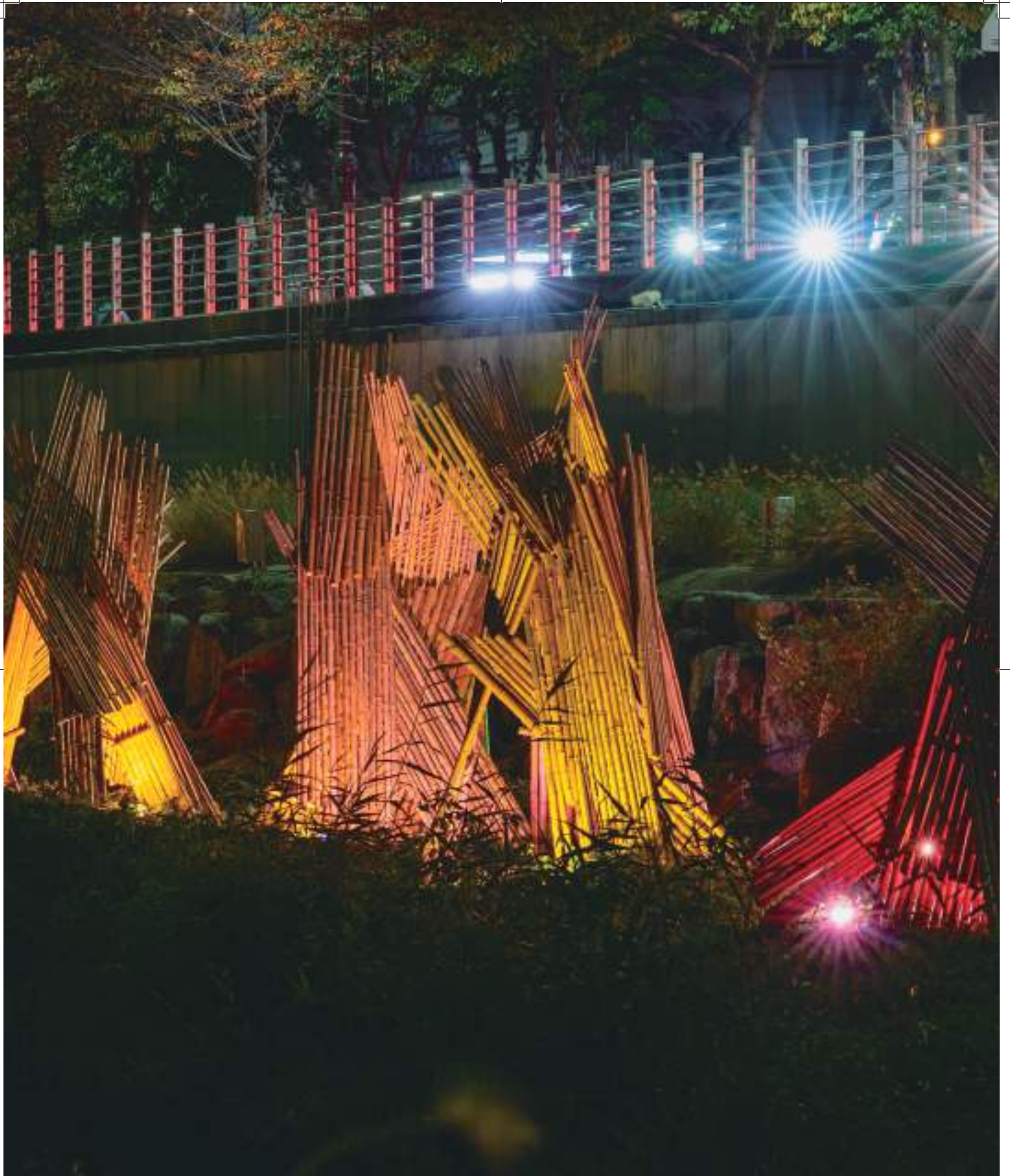
The 12 structures representing the 12 constellations are placed to send of the feeling of being in another dimension or outer space. Just as the planets that identify themselves through blocking star lights, the lights flash every time a person passes to indicate their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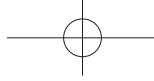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Bamboo, sensor, LED lighting
Size: Varies per installation









수락산 불암산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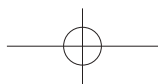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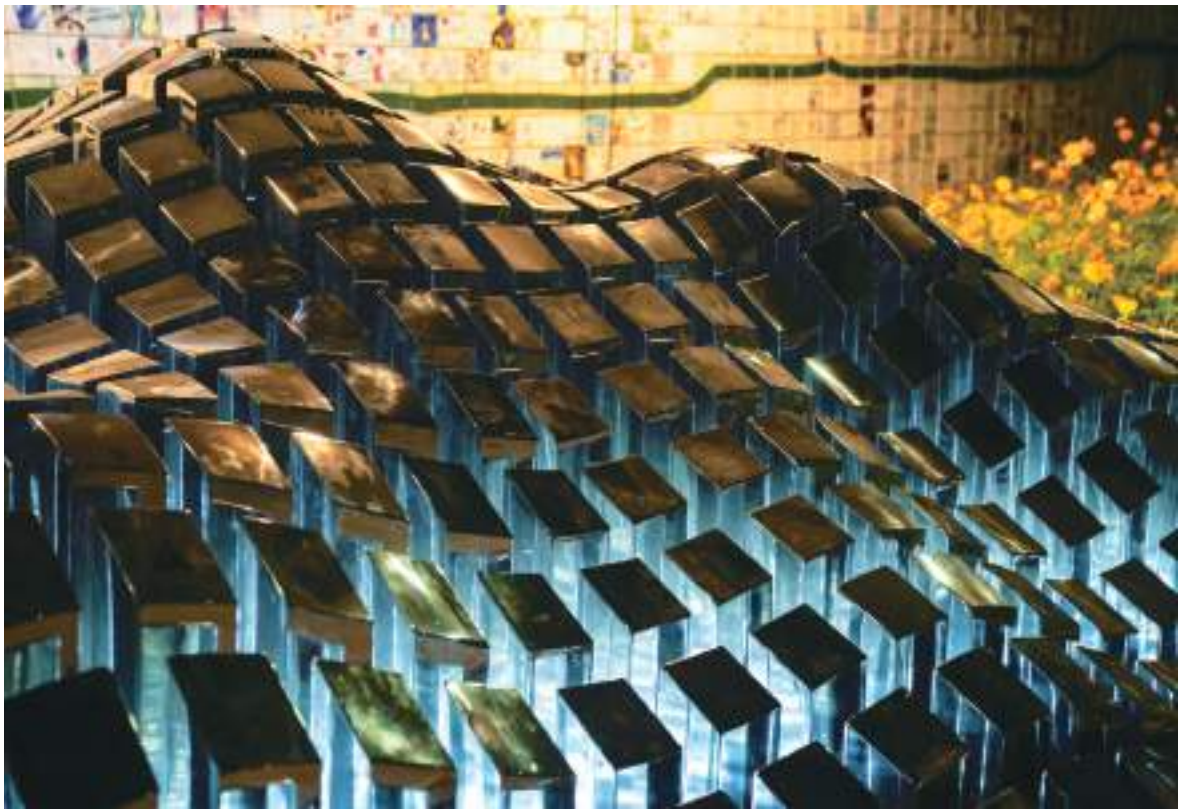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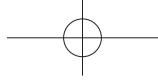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Wave_Surak and Bulam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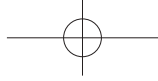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산(山)은 땅이 솟구쳐 오른 큰 힘이자 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터전이다. 또한 고요하고 거대한 명상의 공간이다. 작가는 산(山)의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의 심상을 주제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제와 맞닿은 재료로서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도시와 자연, 강함과 부드러움, 힘과 고요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왔다. 인공적이고 차가운 물성을 가진 스테인리스로 자연을 표현한 것은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늘 자연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산과 바다에서 얻은 휴식과 위안, 그 생명력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반짝거릴 때까지 스테인리스를 다듬고 연마하는 끈질긴 노동으로 전달한다. 정렬된 사각형 파이프 표면이 만드는 산세 위에 주변 환경이 비쳐, 도시와 자연이 작품 안에서 겹쳐진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흐름이 딱딱하고 각진 기둥과 어우러진 형태와 거울처럼 빛나는 표면에 비치는 주변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일어나는 다양한 힘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polishing the stainless steel until it shine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reflected on the mountains created by the aligned rectangular pipe surfaces, and the city and nature overlap in the work. Paik hopes to talk about the various forces that occur when two different worlds meet in the form of flexible and soft flow against hard and sharp-edged pillars and from the reflections of their surroundings.

A mountain is a great force of the risen land and the base for numerous living creatures. It is also a quiet and huge space for meditation. With the theme of the mountain's static yet dynamic, strong yet gentle character, Paik Jinhyeon has continuously studied stainless steel as the material suitable for the theme, and expressed various aspects of city and nature, strength and gentleness, force and silence coming together. Paik's longing for nature while living in the city is expressed through such cold and artificial material. The artist conveys the rest, comfort, and awe of its vitality gained from the mountains and the sea through the persistent labor of refining and

백진현 | Paik Jinhyeon
Material: Stainless steel, PC acrylic, LED lighting
Size: 3000×3000×1400mm





우(雨)리(里)

In the 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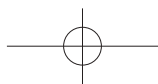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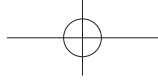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작가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 개의 우산이 날아가는 형상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우산과 동시에 연상되는 것은 비다. 비는 자연 속 생물들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피해야 하거나 불편한 것으로도 여겨지는 이중성을 갖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필연적 존재인 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 사색하게 한다. 작가는 우산, 우비, 장화 등 물품들이 가지는 상징성 중에서 보호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시각 표현의 방법에 대해 좀 더 집중하였다. 작가는 우산의 크기와 방향은 인물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했고, 비옷은 실제보다 풍성하고 포근한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장화는 크고 두툼하게 만들어 보호 장비로서 주는 시각적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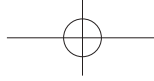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Jin Lixiong describes our journey of overcoming difficult times in the form of several flying umbrellas. Rain comes to mind when thinking about umbrellas: While the rain sustains the growth of living things in nature, it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of a hassle to humans. Rain, an inevitable natural phenomenon, makes us contemplate such unavoidable movements as that of human destiny.

Jin especially focused on how to visually express the meaning of protection through umbrellas, raincoats, and rain boots which carry such symbolism. To emphasize the visual stability that these protective gears provide, Jin designed the umbrellas' size and direction to completely cover a figure, the raincoat fuller and more cozy-looking than the actual one, and finally the rain boots larger and thicker than an actual pair.



김리웅 | Jin Lixiong
Material: Stainless, paint on synthetic resins
Size: 2500×4800×2000mm





달토끼

The Moon Rabbit

관람객의 시점을 맞춰 당현천을 떠가는 반달 위에 토끼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은하수가 된 당현천을 떠가는 반달은 쪽배가 되고, 토끼 인형은 달 토끼가 되어 쪽배에 오른다. 광활한 은하수에서 돛대도 샷대도 없이 쪽배에 몸을 맡긴 토끼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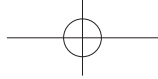
A rabbit is riding on a half-moon floating on Danghyeon River at the viewers' eye level. As it floats, the river becomes the Milky Way, the half-moon a canoe, and a doll rabbit the inhabitant of the moon that has boarded the b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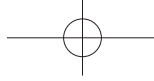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With no mast nor a pole, where shall the rabbit advance to in the wild galaxy?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rabbit doll

Size: Moon, 3500×1300×3500mm, varies per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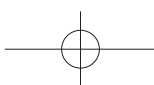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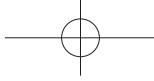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우주 깔대기 Space F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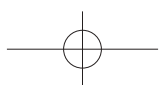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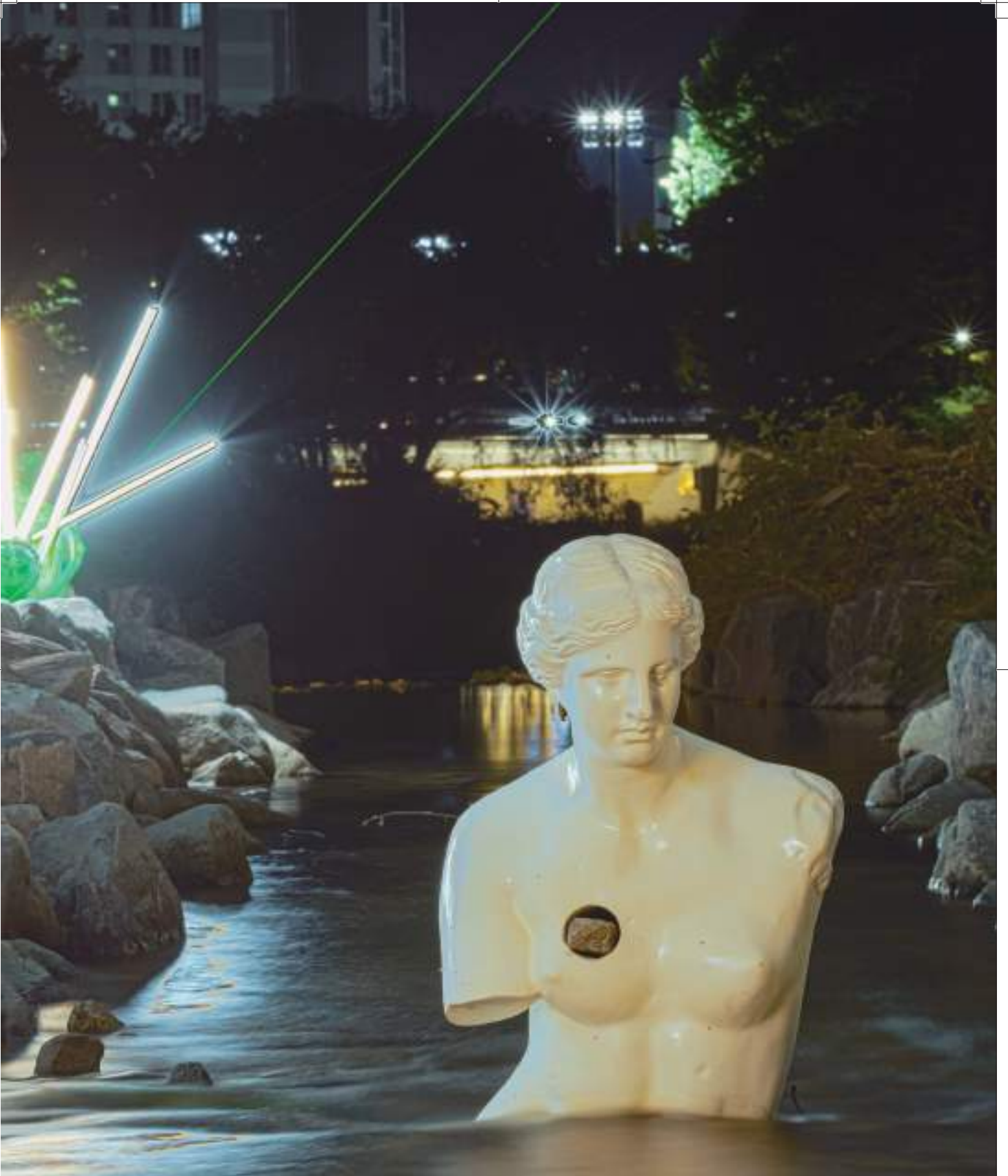
말은 현재 지구를 의미하고 구름과 외계인은 우주를, 비너스변형와상 조형물은 사이버 세계를 은유적으로 상징한다. 비너스변형와상 조형물은 상반신만으로 상하 대칭되어 한 몸처럼 보이는 ‘대칭 비너스상’과 비너스 상반신과 디즈니 곰인형 상반신이 접합되어 있는 ‘변종 비너스’가 각각 외계인 좌, 우로 뉘어져 있다. 상반신이 대칭되어 접합되어 있는 비너스 상에는 7개의 각각 색상의 T5 등이 관통돼 불안정하게 깜박이고 있다. 사람의 거리에 따라 레이저, LED 조명의 점멸과 다 순한 사운드 음향이 반복한다. 현실 가상 외계의 혼종적 환상 또는 불안 한과 판타지가 뒤섞여있는 설치로서 관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이다.

This work symbolizes the cherished hope for the future. A flower reminiscent of rose is currently divided into three pieces, just like us in isolation due to COVID-19. Each one unique with formative beauty but separated as we are now, the three lumps become one huge and graceful ‘flower’ when seen from the Future’s standpoint. Through enjoying the scattered parts becoming one flower, the viewers can imagine a future when we will soon meet again after overcoming our hurdles.

이한수 | Lee Hansu
Material: FRP sculpture, LED T5, laser module
red green, electrical sensor device, buzzer, steel pedestal
Size: 12000×2000×20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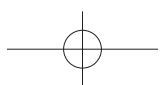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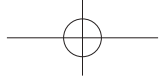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공선점(共線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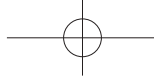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Collinear Point

본 작품의 제목은 기하학에서 ‘한 직선상의 점들’을 의미하는 콜리니어 포인트(collinear point), ‘공선점(共線點)’이다. 기억도 잊히는 것도 기하학의 공선점처럼 하나의 동일한 선상들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기억’과 ‘잊히는 것’을 ‘지금’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질문한다. 작품에서 [MEMORY / FORGOT]의 두 단어는 겹쳐져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표현된다. ‘기억’과 ‘잊히는 것’이 연속적인 시간 속에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잊는 것을 반복한다. [Forget], 즉 [잊다]가 아닌 [Forgot]인 [잊어버렸다]인 것은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 지금 [기억하는 것] 또한, 곧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The title of this work is <Collinear Point>, which means “points on a straight line” in geometry. The title was chosen to mean that the act of remember and forgetting cohabit in a single line, just as the collinear points in geometry. From the time perspective of “now”, we ask questions about ‘memory’ and ‘forgetting’ that we experience every moment in our lives. In the work, the two words [MEMORY / FORGOT] overlap and are expressed as unrecognizable symbols. Just as ‘remembering’ and ‘forgetting’ are in the continued time, we repeat remembering and forgetting as we live, so it is not [Forget] but [Forgot], for what is in our “memory” now will soon be of the past.

두따꿍(권재현, 서정배) | Tout à Coup
Material: Pipe scaffolding, NeoPixel LED Arduino coating, birch wood, urethane sea
Size: Total length of about 6000×2000mm (900×700×90mm per letter)





허블 스트리밍

Hubble Streaming

우주의 별처럼 둥근 구 안에 흐릿한 이미지가 아른거린다. 구 안의 이미지는 우주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구 안에 감춰져서 명확한 형상을 알아보는 힘들다. 구 안에서 벌어지는 우주의 일들은 공유 동영상 서비스로 들어가면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속에 어린 시절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상상하던 것들을 소환한다. 어린 시절 떠올렸던 유선형의 로켓과 문어 형상의 화성인, 우주복을 입은 귀가 뾰족한 외계인과 파충류 피부를 가진 우주괴물 등이 등장하고, 간간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우주선도 보인다. 광활한 우주 공간을 보여주는 영상 속에 문득문득 나타나는 외계인과 우주선을 찾아보자.
※ 어린 시절 떠올리던 우주 이미지 영상은 불암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대영 작가가 협업하여 제작하였다.

A blurred image wavers inside a sphere like a star in space. The image is a videoclip of space, but quite unrecognizable for it is hidden inside the sphere. The matters of the outer space that is going on inside the sphere is streamed live for the viewers to observe through a public video service. The video recalls what we had imagined as children about the outer space. It showcases a streamlined rocket, an octopus-shaped Martian, an alien in a spacesuit with pointy ears, space monsters with reptile skin, and a spaceship traveling through space. Look for the alien and the spaceship that appear from time to time in the vast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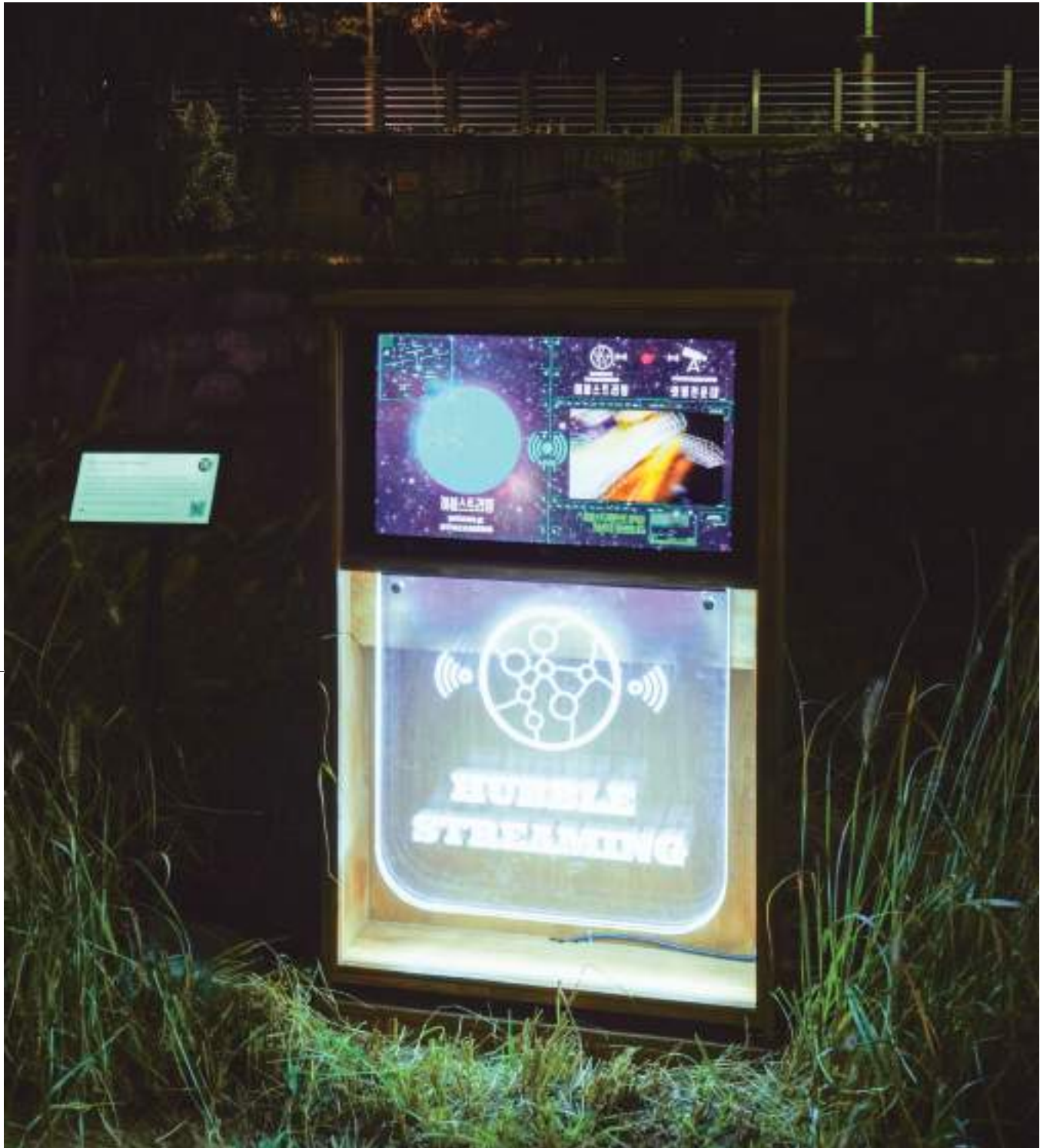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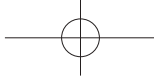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 The videoclip of outer space as imagined in childhood was produced in collaboration among Bulam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rtist Dizi R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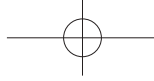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전영일X유대영 | Jeon Youngill X Dizi Riu

Materia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LED monitor

Size: External diameter 1800ømm / Internal monitor 800×800×800mm





은하수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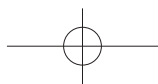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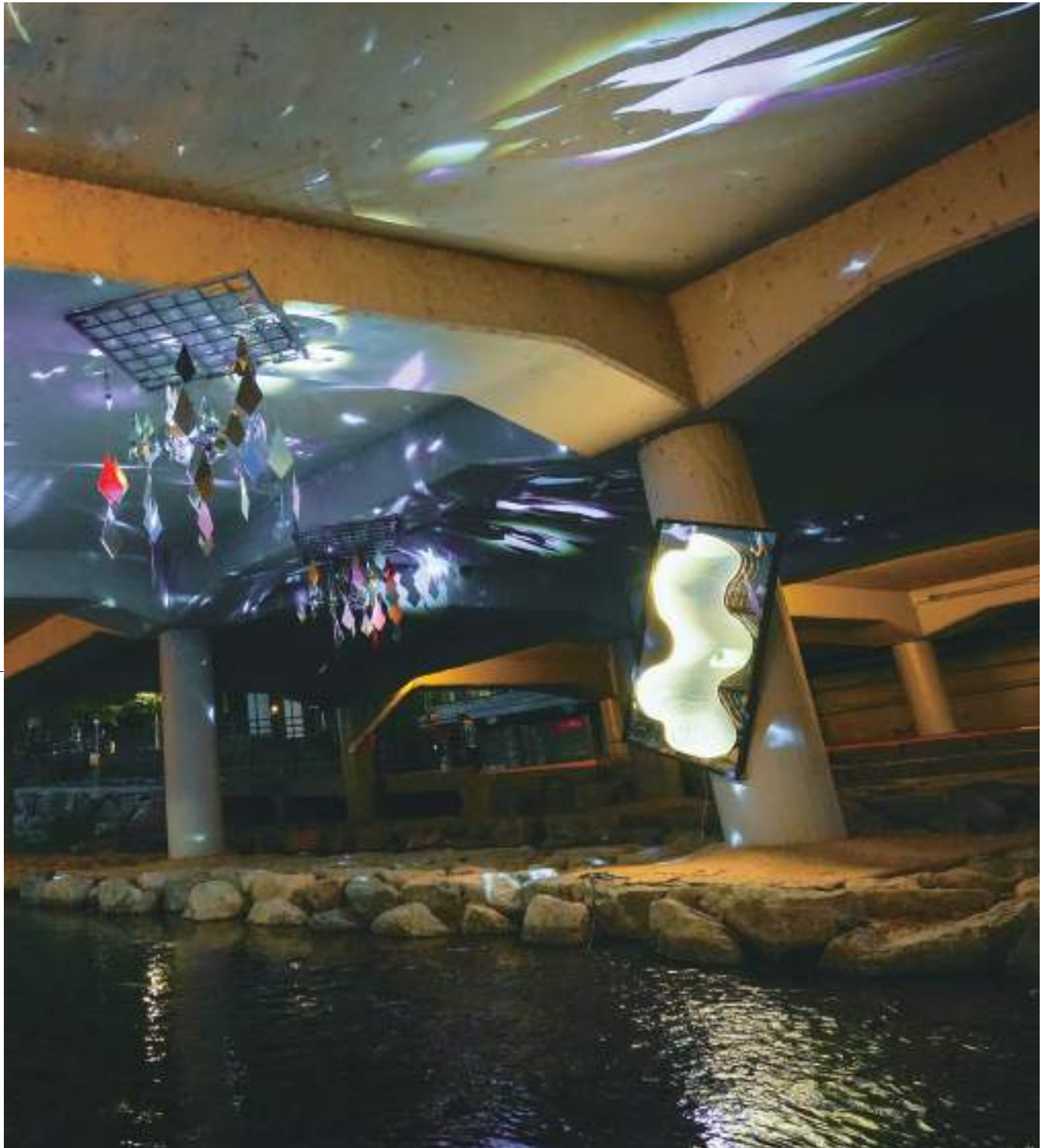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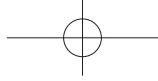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Into the Gala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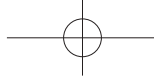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거울과 조명을 이용해서 당현2교를 빛의 공간으로 만든다. 100여 개의 슈퍼 미러 조각들이 주변의 환경과 조명을 반사하고, 이 광경을 당현천이 다시 반사하며 당현2교 아래 공간 전체가 빛의 공간으로 바뀐다. 당현2교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이 빛으로 둘러싸인 가상의 공간을 지나가며 은하수를 통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치 성간(inter- Stellar) 물질들처럼 빛을 반사하는 부유체들이 빛으로 공간을 채우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With mirrors and the lighting, Danghyeon 2 Bridge has become the spot of light. More than 100 pieces of super mirrors reflect the surrounding and the lights, and such scenery is reflected once again by Danghyeon River, lighting up the space under Danghyeon 2 Bridge. People walking under Danghyeon 2 Bridge will feel as if passing through a virtual space of the Milky Way full of light. Like interstellar substances, floating bodies of light reflection fill up the space, creating a beautiful spectacl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Wood, stainless steel, acrylic mirror, lighting, super mirror
Size: Varies per installation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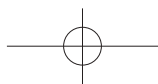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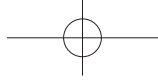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We've made it through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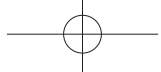
작가는 다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축하나 근조 화환에 들어가는 리본의 문구들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도 가득하다. 이 작품의 콘셉트는 재개발을 앞둔 주거지에서 찾아낸 엄마와 딸의 편지와 카드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염려하고 격려하던 문구들을 화환 리본에 적어서 전시한 작품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는 노원구 주민들이 보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화환용 리본으로 아치문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그 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 아치문이 설치된 다리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전달되길 바란다.

The artist created this work to offer warm comfort and gratitude to everyone who passes through the bridge. The ribbons on floral wreaths are filled with words of encouragement, congratulation, and consolation. This idea was born from letters and cards shared between a mother and daughter found in a residential area that was about to undergo a reconstruction. The artist wrote their correspondents on wreath ribbons. In 〈We've made it through together〉, an arch gate filled with ribbons of messages by Nowon citizens is installed for them to pass though. May it give them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김이박X가제트공방 | Kim Leepark X Ga-z Wood Studio
Material: Wood, artificial flowers, wreath ribbons, lighting
Size: 3000×1800×2800mm, two structures vary per installation

This work contains words of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everyone tired of Covid-19, like the ribbons on floral wreaths full of encouragement, congratulations, and comfort for each other. Starting with the letter from the artist's father, the work has additional messages from participants.





우리 힘껏 웃어요

너무 고마워요
항상 배려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길
항상 건강하렴

주민여러분 이사를
祝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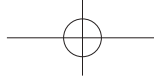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무사항해
풍어만선

이아빠가 부끄럽고
또부탁하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길
사람입니다

010-3055000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관심아♡



COSMO[S]COPE(셋별천문대)

COSMO[S]COPE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미세하고 작은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저 멀리 있는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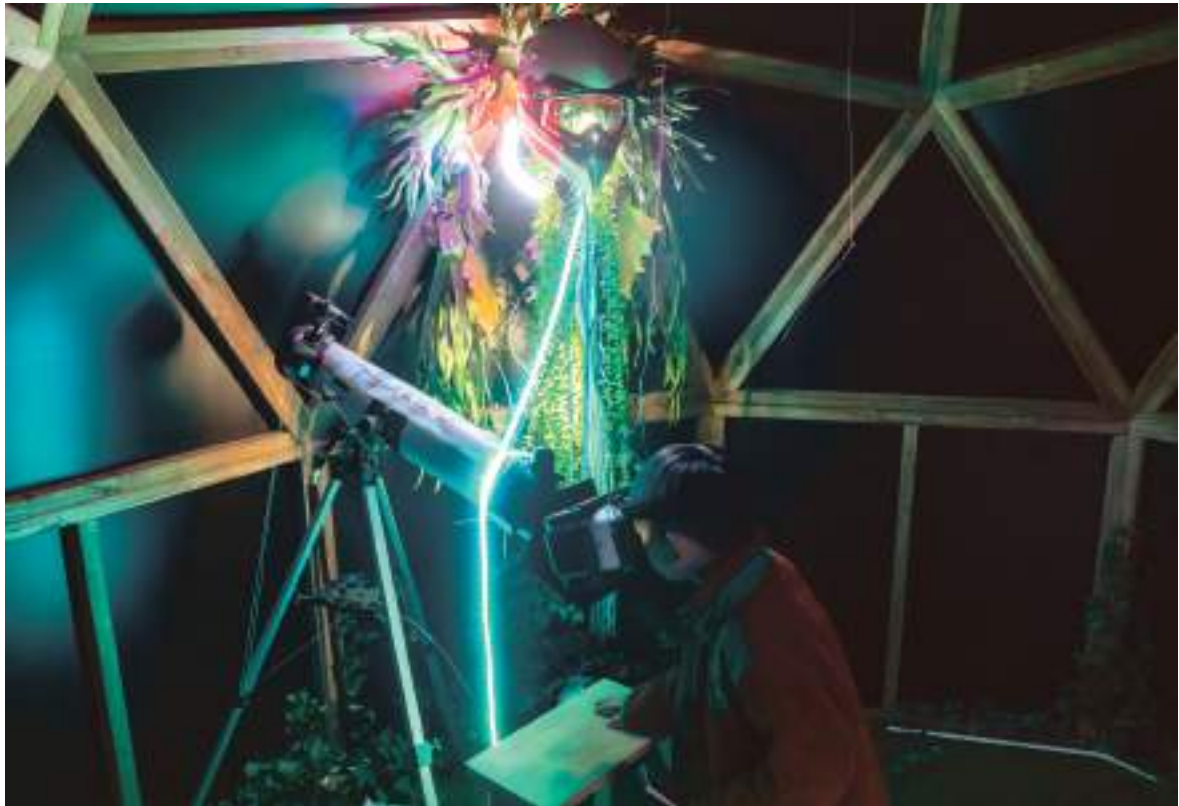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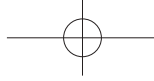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그 망원경으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늘 너머 우주의 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머나먼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 허블 망원경을 만들었고, 최근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으로 머나먼 우주를 더 자세히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이란 것은 NASA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던 것뿐이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 ‘상상한 것만 관측’되는 우주 망원경인 코스모스 코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우주]를 VR180으로 표현하였다. 작가의 관심 주제 중 하나인 우주 행성 개척 중 하나인 테라포밍과 지구를 떠날 때 가져가고 싶은 것을 우주 영상에 담았으며 코스모스의 두 가지 의미인 (꽃 이름과 우주) + 망원경의

합성인 코스모스 + 스코프로 이름 지었는데 10월 한 달 코스모스가 피고 질 때만 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도 하다. 노원 불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려준 아이디어 중 이번 주제에 가장 부합되는 몇몇 작품을 적용하여 제작한 [코스모스코프 VR]을 통해 우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길 바란다.

There are various tools that can observe what is invisible to the human eye, such as a “microscope” which can observe the miniscule world, and a “telescope” that can observe the world far away. Telescope enabled us to see the stars in the outer space that ar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Hubble telescope was created to observe even farther space. Recently, the space telescope named James Webb was invented

to allow us to get a closer look at the distant space. However, at the current state, what we can know of the space is only through NASA and the news on TV.

But, could that be all there is? Through COSMO[S]COPE, a space telescope that “only shows what you imagine,” [the space of our imagination] that can be indirectly experienced is displayed in VR180. One theme of the artist’s interests, terraforming – a pioneer of the space planets – and what they want to take when and if leaving the Earth are contained in a videoclip of the space. The name “COSMO[S]COPE” is a combination of “cosmos”, which has the dual meaning of a flower and space, and “scope” from “telescope.” This is also a telescope that only ope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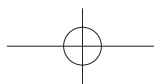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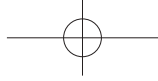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in the month of October – the month that the flower cosmos are in bloom. Created with some ideas from the students of Nowon Bulam Elementary School, may COSMO[S]COPE VR help you break away from your previous thoughts of space.



전영일X유대영X가제트공방 | Lee Hansu
Material: Wood, polycarbonate, object
Size: 4000×4000×3000mm

• 109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시민참여작품)

Farewell to the Mask

이 작품은 코로나 극복을 자축하고 지난 고통을 씻어 버리기 위해 긴 여정의 마지막 구간 입구에 세운다. 마스크에 다다른 관람자들은 은하수 여행의 긴 여정이 힘들었지만 이겨냈기에 빛날 수 있는 지난 팬데믹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도와준 마스크에 마음의 소리를 써 붙여 완성하는 시민참여작품.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나지 못해 전하지 못한 마음, 하지 못한 일들, 억눌린 감정뿐 아니라 되찾은 희망에 대한 문구를 마스크에 실어 보낸다. 거대한 마스크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희망보다 환희를, 힐링보다는 활력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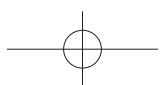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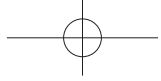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 중원중학교 학생이 참여하여 문구를 작성하고 마스크에 적어 완성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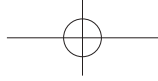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This work is placed at the last section's entrance of the long journey to celebrate our overcoming

of Covid-19 and to wash away our pain of the past. Once you reach the "mask", you come to realize that although the long journey on the Milky Way was difficult, it shines for having endured the Pandemic times. This is a participatory work completed by the citizens of Nowon-gu writing messages from their hearts on the mask, which has helped us overcome the Covid-19. On the mask are the messages that has never been delivered due to social distancing, things that are not yet done, the repressed feelings and about hope. May the visitors become able to talk about joy over hope, and vitality over healing.

※ The work has been completed by Joongwon Middle School students who wrote messages on the mask.

전영일X시민참여 | Jeon Youngill and Citizens
Materia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Size: 3000×3000×3000mm





식물정거장

Plant Station

작가는 식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의 건강하거나 좋은 면만을 보는 것보다 아프거나 병든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식물 정거장〉을 제작하였다. 온실에는 ‘아픈’ 식물들과 함께 다양한 조명과 병충해를 입은 식물을 그린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작가는 ‘노원 정원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병들거나 시들어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 식물들을 온실 안에 모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전시 기간 동안에 보호와 관심 속에서 병들거나 아픈 식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조명이 만드는 식물의 그림자, 병충해 드로잉들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지나치고 지나온 풍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식물협찬: 〈노원정원지원센터〉

With hopes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ick and unwell aspects of everything as well as its good and healthy sides, artist Kim Lee Park created 〈Plant Station〉. In the greenhouse, “sick” plants with various lighting along with pest-infected plants are displayed together. In collaboration with Nowon Garden Support Center, the artist displays the collected plants with no value due to their withering conditions and shows them to the visitors in a greenhouse. During the exhibition, you can witness the withered plants recover through protection and care. Kim wishes to bring an opportunity for the viewers to contemplate on the sceneries that they have passed by, while looking at the shadows of plants or drawings of the diseased pl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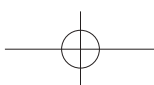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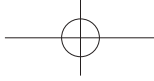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 Plant sponsorship: 〈Nowon Garden Suppo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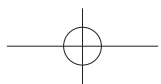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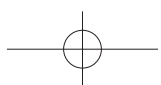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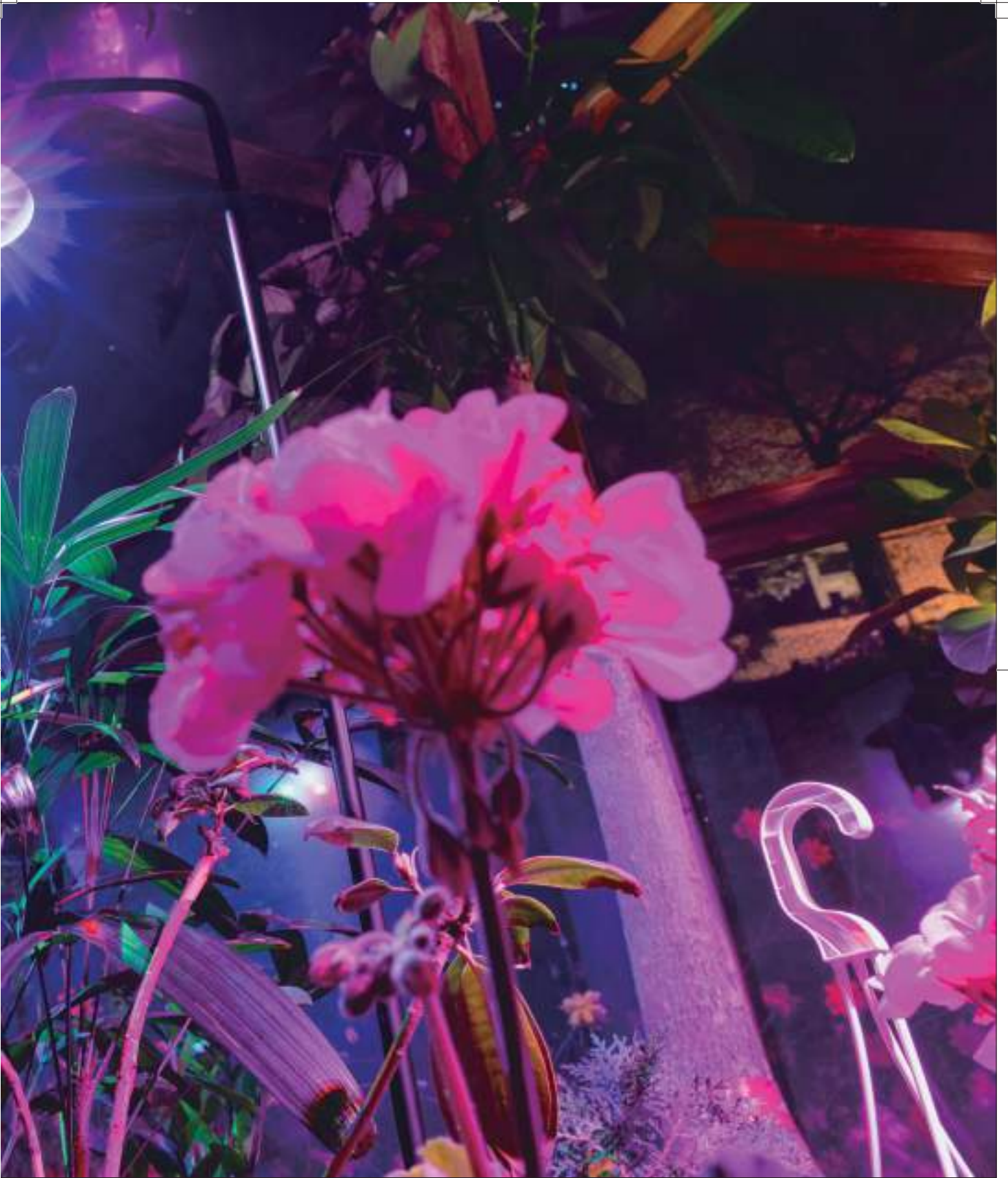
김이박 | Kim Lee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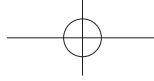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Material: Wood, vinyl, sheet paper, plants, LED lighting

Size: 3800×6000×30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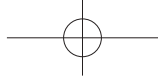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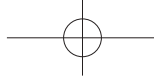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Galaxy Traveler's Shelter

시민참여로 만든 오두막집은 은하수 여행자들의 쉼터가 된다. 이 오두막 안에는 5명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도 좋다.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밝은 실내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특히 우연한 만남이나 목적 없는 만남이 제한되었다. 은하수 여행자들의 쉼터는 여행자나 이방인, 외계인이나 변종 모두에게 열려있다.

The house created by the citizen's participation is the Milky Way traveler's shelter. Five people can fit into this house, and they do not have to be acquaintances. Every time a person goes in, a light turns on, so that when more people are gathered, the brighter the inside becomes for people to see each other's faces more clearly and have a good chat. During the Covid era, we had avoided the contact among one another, so accidental running-into's or aimless gatherings were rare. But here in the shelter for the travelers, everyone including strangers, aliens, and mutants are all welcome.

전영일X시민참여 | Jeon Youngill and Citizens
Material: Wood, hanji, sensor, LED lighting
Size: 3000×3000×30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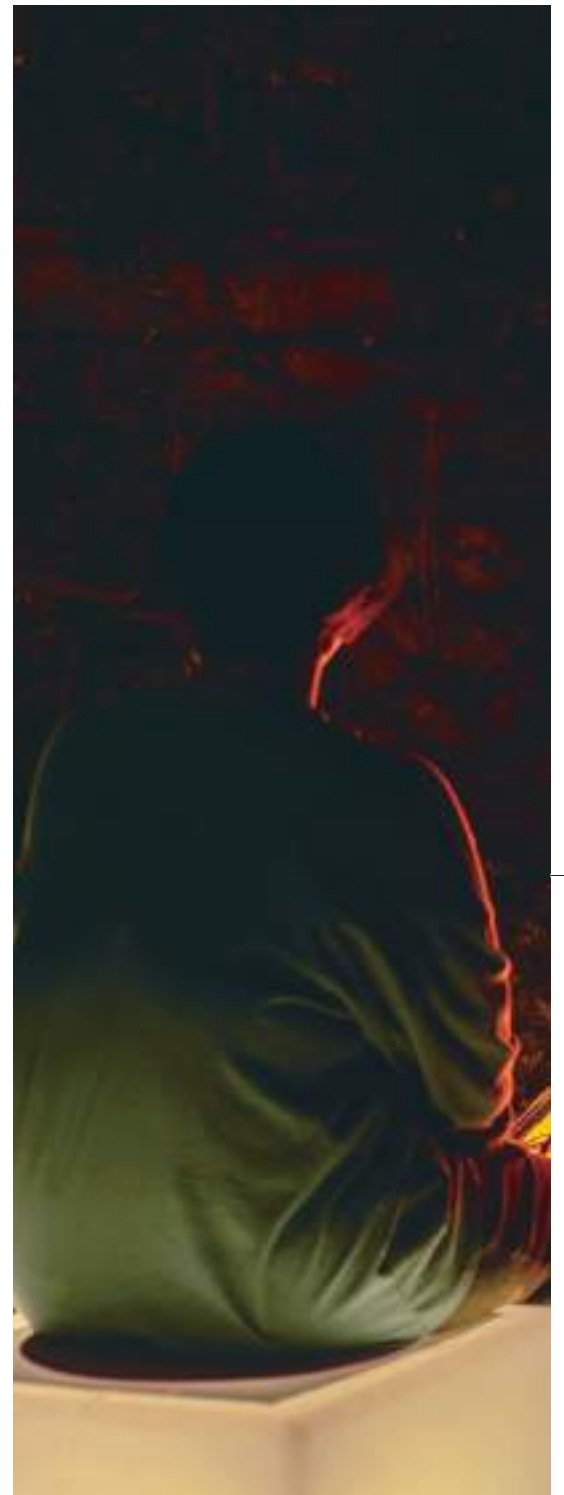
불명의자

Fire-looking Chair

우주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이 하나, 둘 모인다. 꺼져가는 불을 찌러 모인 여행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다. 자리가 가득 찼는데도 이들과 함께하려는 여행자가 다가오자 불이 활활 타오르며 모든 여행자들의 얼굴을 비춘다. 센서를 설치한 네 개의 의자가 하나의 불꽃을 둘러싸고 배치된다. 하나의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랜덤으로 다른 하나의 의자에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 사람이 불이 들어온 의자에 앉으면 남은 둘 중 하나의 의자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사람들은 의자의 빛이 만드는 우연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네 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모두 앉으면, 다섯 번째 사람이 다가오면 중앙의 모닥불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환하게 타오른다.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불명’을 엔데믹 시대 버전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혼자 불을 보며 휴식하는 ‘불명’이 아닌, 둘러앉아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닥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닥불에 앉은 사람들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모닥불 빛을 바라보며 시선과 뜻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다.

Travelers who are lost in space gather one by one. They are gathered to warm up by the dying fire, but cannot communicate and remain awkward. Although the seats are full, when another traveler approaches, the fire starts to burn brightly and shines on all their faces. Four chairs with sensors are arranged around one flame. When a person sits on one chair, a random another lights up, and when the second person sits on the lit chair, one of the remaining two lights up, putting the people in an accidental relationship created by the light of the chair. When all four people are seated, the fire in the center burns brightly enough for all their faces to be recognizable as the fifth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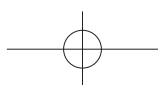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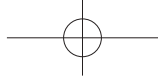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approaches. This work is a new endemic-era's interpretation of "blank-staring the burning flame" that had been popular during the COVID-19 period. Instead of resting alone staring at a flame, a bonfire is presented for people to sit around together, sing, and chat the night away. Strangers gathered around the bonfire can look at each other's face and strike up a conversation, or gaze together upon the light that burns endearing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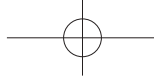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전영일 | Jeon Youngill

Materia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sensor

Size: Chair 500×500×500mm (total 4), Fireplace 1000×700mm varies per installation





동심

Homocentricity

일곱 개의 동심원 징검다리 형상의 작품은 작은 멀리서 본 일곱 개의 은하계이다. 은하계와 은하계가 징검다리처럼 연결되어 별자리를 이루고, 우주가 된다. 각각의 작품은 중심 궤도를 가진 원자, 태양계, 은하계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의미한다. 일곱 개의 작은 우주는 “은하수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동심의 은하계들을 징검다리처럼 연결하였다. 은하수를 건너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작품으로 앞의 정어리 떼 은하수와 이후에 올 우주 행성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된다.

The seven concentric steppingstones are the seven small galactic systems seen from a distance. They connect to one another and form constellations, then into a universe. Each artwork represents the basic physical law with a central orbit such as atom, the solar system, the galactic system, etc. The seven small universes are connected like a steppingstone to enable “crossing over to the Milky Way (like the lyrics of a traditional children’s song),” while serving as a link between the galaxy of sardines and the planet yet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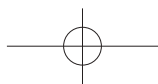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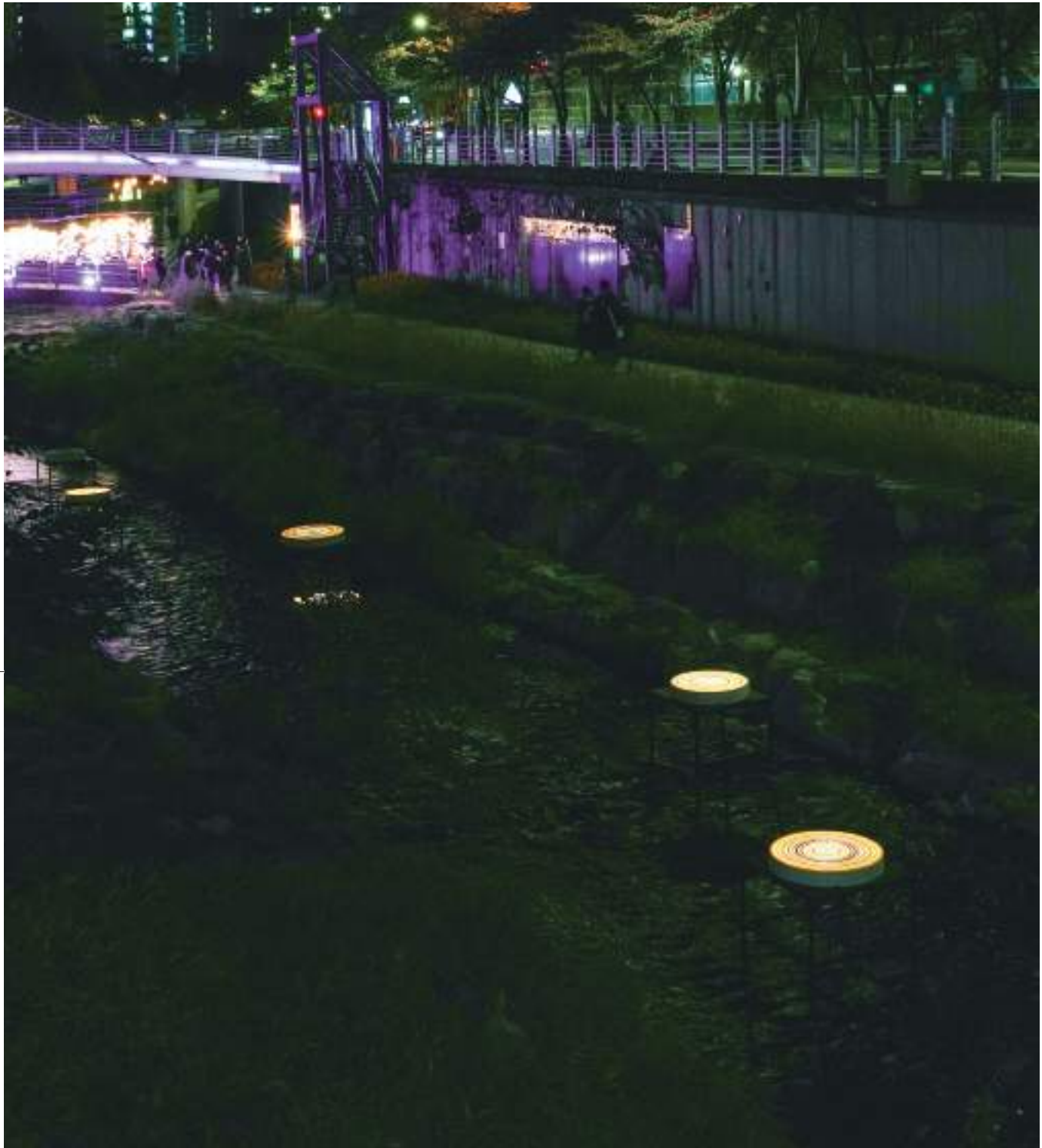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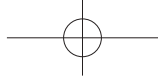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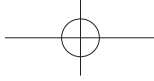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인송자 | Yin Songja

Material: Stainless steel, rootlet, fishing wir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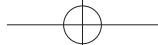
Size: 1200ø, 1100ø, 1000ø, 900ø, 700ømm per piece (total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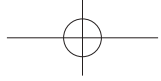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은 하 수 를 건 너 서



달빛산책



‘노원달빛산책’을 보며 생각한 지극히 사적인, 그러나 어찌 보면 다분히 사회적인 비평의 단상들

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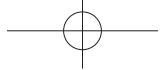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미학자, 비평가

미술관이나 박물관만 가더라도 요즘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어디 미술관이나 박물관뿐일까.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아직도 뜸한 서울의 고궁.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성의와 열정이, 무리 지어 다니던 외국인 관람객들의 수가 줄어드니, 비로소 눈에 띈다.

나의 어린 시절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경복궁 마당에서 대여한 반짝이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유년기의 아이는 커서 위트와 유머를 기막히게 섞으며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재미난 역사 해설가가 될까? 박물관에서 깨진 항아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아이는 먼 훗날, 오랜 유물을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게 보여줄지 고심하는 사려 깊은 큐레이터가 될까? 주말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재밌고 신나는 영화를, 어떤 때는 지루해서 몸을 비틀 수밖에 없는 영화를 관람한 아이는 훗날 봉준호나 박찬욱을 뛰어 넘는, 예상치 못한 스토리텔링의 전개와 장면의 세부까지 고심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이 될까? 아니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영화관은 뭔가 정지해 있는 것을 정지한 채로(몸과 시선 모두) 들여다보는 진저리 나는 곳이었다고,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고백하게 될까?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투사하며 아이들에게 열심히, 끈기 있게, 툴툴에 예술 체험을 경험하도록 시간을 내주고 장소를 알아본다. 그렇지만 내가 어릴 적만 해도-나 때는, ‘라떼는’ 식의 어투 주의 요함. 이 글 곳곳에 산재해 있음. 이런 관용구를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은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이 글을 그만 읽어도 좋다- 이런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극히 드문 것이었다. 예술 체험이란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생경한 말이었다.

성장기 내내 나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예술 체험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 해주셨다. 딱히 예술적 취미나 취향이 없었던 나의 엄마는 딸자식이 무엇을 듣는지 보는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 밥상머리에서나 책상머리에서나 윙크 같은 노래를 무한 반복-팝송의 가사를 한국어로 음차 해서 뜻도 모른 채 외출 때까지 따라 부르기도-하더라도, 듣기 싫으니 그만 끄고 공부나 해라, 잠이나 자라는 식의 말씀을 일절 하지 않으셨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가르치는데 전혀 재능이 없었던 국어 선생님-선생님, 수업 시간에 대체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건가요?-의 눈을 피해 몰래 돌려 읽다 알게 된 할리퀸 로맨스의 문학적 성취-실은 밀당 고수들의 화려한 연애 놀음 이야기-에 흠뻑 빠졌다. 소설 한 권을 다 읽어내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건 그냥 저절로 집중이 되는 장르였다. 새롭게 눈 뜬 문학적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흠뻑 빠지기에는 국어 시간과 자투리 쉬는 시간들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당시의 나와 친구들은 지나치게 문학적인 소녀들이었다. 못 읽으니 집에 가져가서 읽는 일은 다반사였고 방에는 친구들과 돌려줘야 할 그런 책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그 소설책들은 엄마가 한 번이라도 들춰봤더라면 당장이라도 금서 처분을 당할 내



용들이었으나, 엄마는 문학 따윈 관심도 없었다. 엄마는 자식에게 고품격의 예술 작품이란 이런 것들이 있단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만큼의 예술적 취미도, 능력도 전무했다. 그냥 딸이 뭔가를 마구 읽어치우는 모습을 내심 흡족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자유방임적, 아니 실은 방목에 가까운 예술 교육을 실천하셨던 엄마에 비해 아빠는 친구들의 아빠들과는 사뭇 달랐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덕(?)에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델을 전혀 학습할 기회가 없이 성장한 나의 아빠는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게 전혀 없는 분이였다. 아빠는 어머니마저 이십 대 시절 속절없이 병으로 여의게 되었지만, 자유당 시절 야당 선거 운동을 했던 급진 여성이었던 당신의 어머니는 아빠의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20대에 울진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한 아빠는 그나마 갖고 있던 유일한 재주였던 언어 능력을 십분 발휘해, 일주일 만에 경상도 사투리를 벗고(동향인 나의 엄마는 지금도 진한 경상도 억양을 간직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곱게 자란 청년처럼 서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 어캐너머로 배운 영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아빠는 호텔리어가 되었다. 아빠가 도어맨을 시작으로 객실 책임자가 되는 세월 동안, 아빠의 어린 딸이던 나는 동네 친구들이 좀처럼 가보지 못하는 공간들을 잠깐씩이나마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운 어머니의 머릿박(경상도 표현)을 꼭 닮은 어린 딸을 아빠는 어디든 데리고 다녔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외국인들이 오가는 호텔 로비, 로비에서 흘러나오던 연주 음악들, 호텔 한켠에 자리 잡은 갤러리의 그림들, 눈이 부실 만큼 영롱한 광채가 왕창 뿜어져 나오던 보석 가게들과 그 안에서 털 달린 옷을 입고 한담을 즐기던 여자들의 대화, 호텔의 단골이었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구경시켜 준 발레단의 연습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던 발레리나들의 동작들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국적이고도 인상적인 순간들이다.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곤 소비 물자가 부족했던 그 시절, 실제 생활은 남루했지만 호텔이라는 직장의 특수성 덕에 아빠는 소공동 인근의 고급 소비(또는 예술) 문화를 어린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림을 구경하는 일에는 돈 한 푼 들지 않는다는 것도 친구들은 모르는 나만의 지식이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화랑에 걸린 그림들을 한참씩 들여다본 후, 소공동 일식집에서 먹어본 냉메밀의 달짝지근한 장국 맛은 나에게 확고한 고정관념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좋은 예술 작품에는 으레 훌륭한 미식이 바짝 뒤따라야 한다는 것.

이제 막 새로 사 온 앨범의 비닐을 뜯어 전축 위에 올려놓을 때의 짜릿함, 앨범 첫 곡의 첫 소절을 들을 때의 흥분, 특히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의 첫 곡 〈Wanna be startin' something〉의 도입 음들을 들을 때마다(지금도, 여전히, 매번) 느끼는 전율, 가수 이름도 모르고 듣던 재즈의 쓸쓸한 정조와 그 많은 클래식 음악들이 주었던 충만한 정서들, 비 오는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빠가 자주 듣던 최현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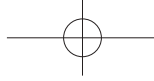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비 우산 속에》가 주는 답답한 비애, 지금 들어도 너무나 모던한 조용필의 〈단발머리〉의 세련된 감성 등은 나의 초등학교 시절 아빠 덕분에 알게 된 예술 경험의 반짝이는 순간들이었다. 나의 성장기는 드물지만 간헐적으로나마 지속했던 미술관 나들이와 하루 종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 일상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성장기에 향유했던 예술의 내용들은 클래식과 대중문화, 키치, 얼터너티브, 아방가르드, 진부함 등의 온갖 잡다한 것이 마구 뒤섞인 카오스 그 자체였다.

20대가 되자 드디어 소설로만 읽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번번이, 무참히, 실낱같은 희망과 바위만큼 단단한 실패를 반복했다. 당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였던 종로에서 바로 길만 건너면 인사동이 있었고 삼청동과 북촌도 멀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있었다. 데이트 초반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허세 때문에 인사동의 화랑들을 함께 가보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동의 갤러리들이 약발을 제대로 발휘한 때는, 참담하게 실패한 연애의 기억을 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방향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청춘이란 주머니는 가볍지만 시간은 항상 남아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기이다. 아침 수업과 늦은 오후 수업이 있는, 공강 시간이 제법 있는 날에는 인사동엘 갔다. 어릴 적 음악에는 열광했지만 미술에는 미지근한 관심, 아니 정확히 말해 뭘지 모르겠다는 따분한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그림 보러 다니기에 서서히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낯선 이미지들,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이 정작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식의 차원에서 전혀 설명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도자기와 꽃과 과일은 왜 저렇게 많이들 그리는 걸까’라고 항상 궁금했던 다양한 분위기의 정물화들. 후에 큐레이터가 되고 나서는, 어떤 관람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벽에 전시된 정물화를 노려본 덕에 생명이 없는 정물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라는 진실을 깨달았다.

대체적으로는 미술 전시장에서 별다른 감흥 없이 뜻 모를 이미지들을 눈과 머리에 주워 담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을 보자마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커다란 충격에 사로잡힌 날도 있었고, 대형 교통사고 때문에 쓰레기장 같은 도로를 재현한 매튜 바니의 설치 풍경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살 것 같은 위로’를 받은 날도 있었고, 미디어아트 계보를 보여주는 특별전에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의 진가를 알게 된 날, 그리고 일 년에 한두 번만 전시가 열리는 간송미술관에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당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과 확연히 다르고 ‘너무나도 모던한’ 작품이라는 감상을 얻게 된 날 등이 아주 가끔 있었다.

미술은 진부함의 범벅인 일상과 확연히 다르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미술은 진부함을 깨고 낯설고 불편한 것들이 혼재된 상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매체의 특성상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영



화에 비해 미술은 관심을 두고 말하는 이가 현저히 적은 예술 장르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은 관객을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전위’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미술의 지향이 나의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었는지 모르겠다.

10월 가을 저녁이면 당현천에 설치된 작품들에 불이 들어오는 노원달빛산책. 미술관과 갤러리들은 전시를 보여주기 전과 후, 작품들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을 공공 싸매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공 예술, 모든 사람들이 산책 삼아 걷는 당현천 같은 곳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작가들과 전시 기획팀의 고생을 민낯 그대로 내보일 수밖에 없다. 아마 예술가를 꿈꾸는 한 아이가 당현천의 설치 과정을 지나가다 본다면, 허리 위까지 오는 방수 작업복에 고무장화를 신고 무거운 쇠덩이-작가님들, 작품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를 짊어지며 오가는 이미지로 예술가라는 인상을 굳힐 수도 있겠다. 포크레인과 트럭이 드나들고 개(!) 고생의 삽질이 목격되는 당현천의 달빛산책 설치 현장은 공사판과 구별이 안 되고 그 안을 누비는 작가들의 모습 역시 공사장 인부들의 행색과 똑같다는 것. 전시명이 알려주는 ‘달빛’이란 또 어떤가. 물가에 설치한 작품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과 전기가 만나야 하는 이 전시 현장은 작가와 전시팀이 감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의 예술 환경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열의가 보이는 장소이다.

공공 미술은 지나는 아무나 볼 수 있고 넘어 들어가야 할 문턱조차 없는, 즉 전시장이 없는 예술 전시 현장이다. 심지어 함께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이 볼 수 있고 (가끔은) 작품 주변에서 강아지 오줌 냄새가 풍기기도 하는 곳. 실제로 이번 전시의 어떤 작품에는 동네 강아지들이 유독 경쟁적으로 영역 표시를 했다-이다. 전시를 보러 가기 위해 미술관 입장이 불허인 반려견을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두고 가지 않아도 되는 전시이다. 노원구가 반려견 돌봄에도 공공 정책 차원에서 지원과 격려-대표적인 예로, 명절 때 집에 홀로 남겨질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노원구청 서비스와 유기견 보호와 입양 및 반려견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노원 댕댕하우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반려견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을 이토록 든든하게 지지할 줄이야. 반려견을 사랑하는 노원구 만세!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약 보름간 저녁 6시마다 당현천의 작품들에 불이 켜진다. 어떤 작품들은 점등 전 낮에 보는 게 더 좋고, 어떤 작품들은 조명이 켜지는 밤에 관람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러한 평가 역시 나처럼 미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평도 있지만, 공공 미술 작품을 두고서 일반 관람자들이 쏟아내는 제각각의 논평은 무궁무진하다. <노원달빛산책>을 보러 오는 주민과 타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와 보는 관람객들이 단발적으로 혹은 심사숙고 끝에 말하는 작품평들을 들으면 즐겁고 유익하다.



“올해 전시는 작년보다 별로인 거 같다.”

“난 아닌데, 더 나아진 거 같은데?”

“전시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예전 등축제 보다 훨씬 좋아요.”

“작품 간 거리가 멀어서 다리 아파 죽겠네. 어디가 끝이야?”

“코로나 시국인데 작품들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훨씬 낫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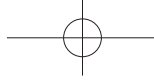
“와, 이거 봐봐, 엄마, 우리 어릴 때 그 집 생각난다.”

“이 작가는 뭘 말하려고 한 거야?”

“이번에 안내판 글씨 커서 좋네. 작년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이던데.”

대체로 사면이 하얀 벽 일색이고 관람객들의 발소리만 간간이 들을 수 있는 기존의 미술관에서는 차마 내뱉지 못하던 날 것에 가까운 감상들을 듣고 있으면 비평가로서, 기획자로서 필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공공 영역에 설치된 전시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가감 없이, 부담 없이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쏟아낸다. 어디 그것 뿐일까? 전시의 동선이라든가 안내판의 서체와 글자 크기까지도 세세하게 따지를 건다. 훌륭한 아이디어도 제공해준다. <노원달빛산책>의 전시 공간을 ‘산책’하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쳤다. 이 공공 영역에 미술 작품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모두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가(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큐레이터도 되었다가(동선과 안내판의 디자인뿐 아니라 전시의 주제까지도 거론), 비평가(공공 예술의 중요성과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에 관한 논평까지!)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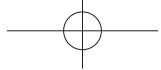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이런 뜻을 헤아리다 보니, 우리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미 예술가’라는 신념을 고수한 백남준의 후예들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 인송자 작가나 전영일 공방과 함께 작업한 노원구 내 학생들의 협업 작품들을 생각해 보라. 이 아이들은 이미 예술가이다. 학생들은 이번 전시의 여러 프로그램의 일부로 공공 미술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작품 제작 전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작품을 같이 만들 친구들과 작품의 주제와 의미, 그리고 재현 방식과 완성될 최종 이미지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이 당현천에 전시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광경



을 보름간 매일 경험했다. 작품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가 만든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구경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역시 이 예술 창작 영역에 포함된다. 이 특별한 예술 창작의 기회를 경험한 친구들 중 아마 몇몇은, 훗날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거부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 자기-표현의 창작 과정에 몰두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낼 것이다. 어릴 적 창작과 자기표현의 과정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알코올이나 자기 파괴의 방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술가가 한 번쯤은, 쉽게 되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 병리학의 차원에서든, 교육의 차원에서도 유익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유익함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공공 미술이란 말은 나 같은 기획자나 비평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맛있지만 허를 데일 것 같아 뱉어버리고 싶은 ‘뜨거운 라면발’ 혹은 ‘(용암 같은 설탕 꿀이 똑똑 떨어지는) 뜨거운 호떡’-‘뜨거운 감자’를 대체할 우리 말 표현이 뭐가 있을까 고심하다 찾아낸 초라한 표현이다. 더 좋은 우리말 표현이 생각나는 분은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같은 무엇이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전시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이다. 각 작품이 보여주는 주제 의식이나 이미지의 수위를 어디까지 보여주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잘해도 못해도 욕을 먹게 돼 있는 수순이다. 작품이 놓이는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술관의 전시장에 비해 변수가 많아 작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편의만 고집하는 작가들을 대할 때면 미운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다. 관람객들의 예상치 못한 민원 제기 등에는 아연실색하게 된다. 이런 별별 에피소드들 때문인지 큐레이터들은 공공 미술을 기피하고만 싶다. 습도 조절이 잘 돼 있고 숨을 죽이며 보는 관람객들이 오가는 전시장에서 마음껏 전위적인 작품들을 전시해서 미술 담론 내에서 선구적인 전시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듣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본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하는 일에 매해 용감하고 낙관적인 희망을 거는 <노원달빛산책>의 전시팀은 대단히 훌륭하다. 나는 비평가로서 전시팀의 회의 때마다 이들에게서 매번 감동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온다. 지난하고 까다롭고 귀찮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유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시팀의 어느 한두 사람의 성격적 덕목이 아니라 전시팀 모두가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이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만 싶은 공공 미술이라는 기획전에 대해서도 전시팀 일원 모두가 하나같이 긍정적이면서 장기적인 비전들을 각자 갖고 있다. 전시팀은 노원구의 당현천이라는 전시 장소에 대해 지정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작가들과 미리부터 공부하고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정기 간담회를 향후 계획에 넣어보기도 한다. 전시팀은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작가와의 협업 작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대안들을 모색 중이다. <노원달빛산책> 전시팀은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 공공 미술을 장애 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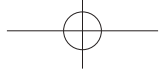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제거하자는 사회적 운동) 전시는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지금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사회의 문제들을 개인이, 혈연가족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자녀의 생활비는 은퇴를 앞둔 부모가 해결해 줘야 할 판이고 8, 90대 병든 부모의 간병 역시 그 ‘은퇴를 앞둔’ 자녀가 도맡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청년 자금과 등급별 간병 지원이 있긴 하지만, 가족의 상당한 지원 없이는 젊은이 혼자 살아가거나 노인들이 투병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사회이다. 경쟁의 질주로에서 튕겨 나온 개인을 혈연가족이 완충작용의 대부분을 맡는 사회는 위험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개인의 비극을 개인 스스로 해소해야만 하는 사회를 보게 될까?

사회적 완충작용, 즉 지원과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에만 적용하는 시기는 지났다. 식사와 의료 지원만을 생각할 때를 넘어서야 한다.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지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문화와 예술도 복지의 중요한 분야다. 문화를 즐기고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삶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센터 등에서는 아이들이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실력 있는 선생님들에게 음악 레슨을 무료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돈 있는 집 친구가 피아노 가방을 메고 학원 가는 걸 부러워하는 시절에서 멀리 오긴 했다. 그렇지만 악기의 무상 지원 같은 사업은 문화 예술 복지의 첫걸음일 뿐이다. 체육과 전시, 도서관과 강좌가 한데 모여 있는 문화복합시설의 운영도 시대의 요구와 효용에 맞게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5년간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다는 노원구의 포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지난 5년간 지향했던 ‘힐링 노원’은 성공적이었고, 이 성공으로 구청장의 재선에 구민들의 기대가 선뜻 모아진 것이란 소문이 많이 들린다. 노원구는 주민들의 걷기와 산책의 빈도와 질이 다른 여느 지자체 주민들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는 노원구 구석구석을 걸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나 유모차를 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은 노원구의 어떤 산이든 ‘무장애 숲길’ 조성 덕분에 보행의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고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굳이 산이 아니어도 집 앞 동네만 걸어 나와도 하루가 다르게 동네의 조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노원달빛산책>이라는 전시 역시 주민들의 산책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예술 기획전이다.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자연 친화적인 텃밭을 마을 한가운데서 만나기도 하고, 산책 중에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 오래되고 키 큰 가로수들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파리 뒤흔들기 공원 부럽지 않다고 감탄한 적 모두 산책 중에 맞닥뜨린 순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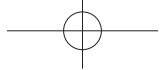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지난 5년간의 ‘힐링 노원’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낸 노원구는 앞으로의 5년을 문화와 예술에 집중하는



‘문화도시 노원’ 만들기엔 힘을 다하겠다고 한다. 사회의 소외 계층에만 집중하는 복지는 전체 주민의 20퍼센트에게만 집중하는 복지에 그치고 만다는 노원구청장의 전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원구의 복지 대상을 20퍼센트의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를 위해 문화 예술 복지를 선택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자체의 선택으로 문화 예술은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 지자체가 공공 미술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난항을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예술 관련 예산 집행 문제도 그렇거니와 전시와 축제에 따르는 수많은 민원들도 감내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먹고살기 빠듯한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예술 행사를 두고 못마땅하다 불평할 목소리들도 뻔히 예상된다.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하겠다고 밝혔다. 탈축제와 달빛산책,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유명 예술가들의 전시들과 경춘선음악회, 그리고 마을 곳곳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올가을에 이루어진 문화 예술 행사를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노원구 주민들의 주말은 바쁘고 촘촘했다. 노원구의 앞으로 행방이 기대된다. 혹시나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앞선다. 5년 뒤 ‘문화도시 노원’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낙관과 관심 어린 염려가 뒤섞이는 마음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이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 자주 걱정하게 된다. 청춘 시절 그 불안하고 위태롭고 외롭고 쓸쓸할 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연히 들른 미술관의 그림은 더없는 위로였고 구원이었다. 친구가 말로 건네는 위로와 선생님의 조언도 도움이 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해매고 망설이고 방황하는 예술 작품 속 주인공은 세상 끝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이자 또 다른 자아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빠의 직업적 환경 덕에 미술관과 그림이라는 예술 매체를 남들보다 수월하게 만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 덕에 예민함과 불안에 자주 시달리는 내가 어찌어찌해서 그나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끔 생각하곤 한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시 기획으로서 쉽지 않은 숙제인 공공 미술에 일원으로 가담하고 보니, 그 옛날 내가 받은 특별한 혜택을 젊은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배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부모의 직업적 특수성 덕분이 아니라, 그냥 이 노원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위로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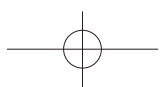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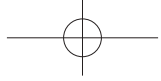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시각예술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분명함’과 그 시각적 이미지가 내포하는 ‘불분명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실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분명함이라는 말도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 자명함 속에는 언제나 착각과 과도함, 선입견과 주관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을, 즉 하나의 이미지를 마주한 우리의 다양하고 상반된 해석들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 표정에서 그 내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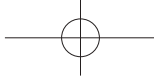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다. 연인의 표정을 읽는 우리의 시각 기관인 눈은 오늘따라 연인의 미소가 복잡하고 씩씩하다고 본다. 그렇게 읽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연인의 얼굴 근육이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을 바깥으로 투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미소를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투사되어 그렇게 읽는 것일까?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오가며 애꿎은 나뭇잎만 뜯는 연인의 복잡한 마음은 한동안 지속되다 결국 ‘선언’의 순간에 이른다. 그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혹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이는 곧 그 해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복잡다단한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마음먹었는지 결정하는 시간, 결말, 즉 선언의 순간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두고도 많은 사람의 다양한 해석(사실은 선언)이 존재하게 된다. 연인의 복잡한 미소를 대할 때나, 예술 작품의 뜻 모를 이미지를 마주할 때나, 인생의 골목 모퉁이를 돌아갈 때도 우리는 혼돈에 가까운 복잡함 속에서 각자 나름의 길을 찾아 걷는다. 마치 복잡한 정글 속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 불안한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긴장을 이기기 위해 가장 작은 결정, 가장 쉬운 결정, 결국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손쉬운 결정을 하기 쉽다. 모든 사람과의 사회적 단절을 시도하거나 방에서 영영 나오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실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 등이 그 가슴 아픈 예들이다. 나는 예술 작품 속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파괴하고 ‘다시’ ‘조금씩’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아마 이런 과정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연륜이 많고 지혜가 많지만 이 방법을 미처 모르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선뜻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자기-표현과 예술 작품이 주는 감각을 즐기는 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해체하고 복구하는 예술 경험은 어릴 때일수록,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자주 노출될수록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 경험 덕분에 우리가 어쩌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잘 걸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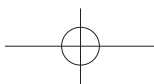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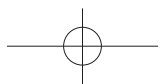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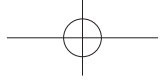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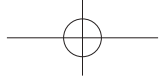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작품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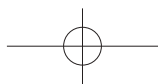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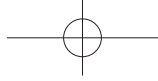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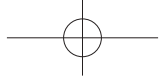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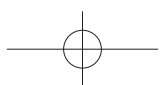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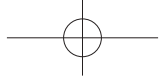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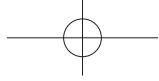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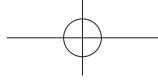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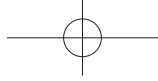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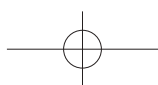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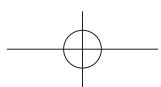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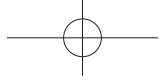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시민 도스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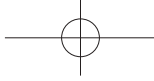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불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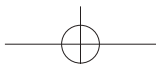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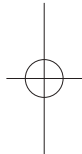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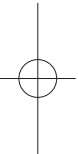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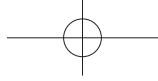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은 하 수 를 건 너 서



세 미 나





기조발제: 퍼블릭 아트에서 커뮤니티 아트로

손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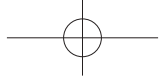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노원달빛산책
기획감독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올해 노원달빛산책을 기획하면서, 순환하는 노원구의 시간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기획단 회의를 한 날은 아직 봄 기운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예술감독님 작업을 보러 간 날은 불볕같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여러 작가분들과 당현천 현장을 점검한 날에는 뱃줄처럼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지요. 시민자문회의를 한 날도, 구청에 보고하러 간 날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전시현장 주변을 자주 오가는 동안, 우리 기획팀을 알아보신 여러 시민분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질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달빛산책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날씨가 좋을 때 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개막일에 당현천 위에 떠오른 둥근 보름달을 보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올해는 뭐가 있느냐, 어떤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당현천에 오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노원달빛산책 실무를 맡으셨던 분들이 대단했다고, 새삼 느낍니다.

올해 저와 기획팀 모두가 비중을 두었던 일은, 물론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노원구의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노력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달빛산책 작가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고, 노원구 사람의 감각으로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서 당현천 곳곳에 은은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또 노원소방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산책로 입구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푸근하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빛산책 첫 해부터 함께한 시민 해설사분들이 이번에도 예술과 관객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지역의 예술로서는 아직 작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참여를 기획했던 까닭은,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달빛산책의 전신인 등축제는 처음 등장했을 때 한국적인 멋과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행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지에 너무 많은 등축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선보였던 작품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동일한 전시를 반복하는 동안, 모든 등축제가 별다른 특징 없는 행사가 되었고, 등공예도 예술적 향상을 멈추었습니다. 이렇듯 지역시민들의 참여가 낮은 공공미술 사업은 언젠가는 모두 똑같아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노원달빛산책 같은 야간 빛조각 전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비슷한 문화사업을 실행할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사업이, 정말로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창조해내고, 그 지역사회와 함께 오래도록 이어지는 기억이 되고, 그곳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문화사업이 되려거든, 반드시 지역의 시민들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런 기획자 입장에서의 이유와는 별개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공미술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조형작품을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이 누리고자 하는 작품을, 시민과 협의하며, 시민의 감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퍼블릭 아트에서 커뮤니티 아트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발제자 여러분들도 지적하시겠지만, 국내에서 시도된 시민참여형 공공미술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았고, 변질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OECD의 주요국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터를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와 일부 문화재단들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게 고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람들간의 수평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에 할당되는 시간과 인력은 부족합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시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숙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지역사회가 공통의 감각을 가지고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다행인 점은, 노원구가 최근 커뮤니티 시설과 자원을 크게 늘린 덕분에, 공간적이나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양과 문화적 경험을 가진 다양한 시민들이 노원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예술과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참여의 기반조건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노원 달빛산책이 시민들과 더 많은 감동을 나눌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안태호 이사가 그간 공공예술과 거버넌스가 오용 또는 잘못 작동되었던 사례들을 짚고, 공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뒤이어 문화연구자이자 작가이기도 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윤희 위원장이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을 조망한 다음, 시민의 문화권리 향상을 위해 고려할 점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자가 구체적인 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사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행정적 모순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시민대표 여러분, 노원구의 여러 문화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함께 애써주신 노원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안태호, 정윤희, 김상철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실 미술평론가 김수정 선생님께도 각별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달빛산책은 물론이고, 노원구의 많은 분들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제의 제도화를 고민하기: ‘커먼즈’라는 기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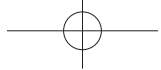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제도制度라는 말은 길과 기준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행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어떠한 행동이나 사업의 경로와 판단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행정에서의 제도는 현대 행정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를 규제하는 개념으로, 절차의 합리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이론에서 제도주의는 바람직한 정부형태 등을 주제로 하는 규범적 이론이었지만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개인의 행태 및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좀 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이해된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커먼즈 논의 역시 신제도주의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스트롬 등이 정리한 커먼즈의 공동관리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에 대한 현재적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어떤 행위 특히 공적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제도화를 고려하는 것은 (1) 그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며(규범적 지향) (2)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에 대한 사전적인 규칙을 만들어(처방적 지향) (3) 결과의 예측가능성과 참여자의 기대가 충족될 필요(실천적 지향)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술과 공공, 예술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 제도가 필요하다면, 우선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그 다음은 예술의 예술다움과 공공의 공공다움을 병립시킬 수 있는 수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문제 해결로서의 제도화

제도를 강조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모든 것이 제도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관계는 명확한 제도적 관계보다는 시간을 두고 구축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행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연구자들이 해외사례에서 느끼는 부러움이 완벽한 제도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예술에 대한 행정의 태도에 대한 것이 더욱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고민한다는 것은 (1)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계가 부재하거나 (2) 기존의 관계가 새로운 예술 일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는 의미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화에 대한 고민은 그 자체로 현재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관행적 문제가 예술사업을 일반공공사업처럼 보는 보조사업 혹은 계약사업 규칙이다. 일례로 최근 어느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용역계약을 맺은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감사부는 이를 인사계약으로 이해하여, 인사규칙에 의거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규정에 대한 오해를 넘어 ‘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대한 행정의 지독한 물이해를 보여준다. 법률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은 용역 계약에 해당되고 일반적인 채용과 연관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되므로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감사부서가 예술의 일에 이해가 부족하면, 예술 과정의 예외성은 ‘불법적인 것’ 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된다. 즉 예술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일반적 과정에서 벗어나는 ‘예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의 예외성이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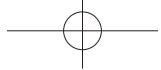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도적인 행정의 영향력에 의해 손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의 시간감각과 예술의 시간감각이 다른 문제가 있다. 이 둘 사이의 부딪힘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공공지원 예술 혹은 공공예술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정부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보자. 2020년 6월에 통과된 이 사업은 7월까지 공모를 진행, 8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까지 마치고, 2021년 2월에 정산하고 주민만족도 조사까지 하는 계획으로 사업화되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능한 사업은 이미 표준화, 구체화되어 있는 도로포장, 보도블록 교체, 놀이터의 놀이시설 설치나 공원 벤치 설치 등의 사업일 뿐, 예술사업이 아니다. 결국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이후에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했고 그 해 6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슬픈 사실은 정부계획대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을 수행한 지역에 예산을 이듬해로 이월해가며 사업을 수행한 지역에 비해 예술사업을 실행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예술 일에 투여할 수 있었다는 역설이다. 이런 사업계획을 예술뉴딜이라는 이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구상한 것도 예술 일의 예외성을 행정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예시다. 이런 사례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행정의 예산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별 방침서를 2~3월에 작성한다. 사업별 방침 확정 후 예산배정 신청을 한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4월이다. 그런데 예산 지출의 기한이 통상 12월 초니, 1년 단위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은 최대 7개월을 넘길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이 기간 동안 시행되고 완료된다. 그런데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사업기간은 더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산하기관에 예산을 할당할 때는 가급적 늦게 주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렇다. 실제로 서울시가 법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교육교부금을 늦게 지급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단기 용자를 받아야 했던 일도 있었다. 이에 조례에 아예 전출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예술사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에서 주민참여 방식의 예술사업을 구상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앞서 사례를 든 예술뉴딜은 제도설계상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하도록 하고 후에 지역주민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사전 주민참여가 보장된 비율이나 만족도 조사를 한 비율 모두 절반을 넘지 않았다. 즉, 행정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예술사업을 수행하면 대부분이 ‘줄속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제도화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3. 제도화의 딜레마: 사례들

예술의 제도화는 필연적으로 예외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 행위와 부딪힌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높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만, 이런 접근은 적절한 기준의 결과물을 기대하지 예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관공사의 품질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비교할 때 적정수준을 유지하지만 다양성에 있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제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의 수준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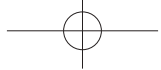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즉, 제도화의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험령한 조례를 만들자고 한다면 옳바른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규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2010년에 시작된 은평구 은평누리축제(은평구 은평누리축제추진위원회)는 주민공모로 진행되고 그렇게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축제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주민주도형 축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은평구청과 은평문화재단의 협력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구청에 대한 의존에 비례해 구청의 주도성이 커졌다. 급기야 2020년에는 은평구청이 기존의 협의과정을 무시한 채 축제취소를 발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청 입장에서야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제를 당연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축제를 자신들의 축제(은평구 은평누리축제)로 인식하는 주민들은 ‘중단하는 결정’을 함께하지 않은 것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를 오가는 행정의 직무체계로는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주민주도형 축제 자체가 행정의 관점에서는 외계어에 가깝다(책임은 공무원이 지는데 왜 결정을 다른 곳에서 하느냐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별도의 축제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제정된 ‘서울시 축제조례’는 오히려 서울시 보조금이 들어간 축제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센터 설립 등의 기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형태다. 실제로 이 조례는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주도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 축제감독의 역할 중 하나로 ‘시민참여확대방안’을 고민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축제의 평가에 있어서도 주민만족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이 전문가를 통한 평가에 머문다. 이처럼 조례를 통한 제도화는 없어도, 있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예술사업의 제도화가 최소한의 요건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예술의 예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로 포괄되지 않는 관행적 지식, 혹은 암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행위의 반복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재정사업이나 보조사업의 평가과정은 이런 특수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은 ‘시간을 두고 형성해야 하는 비제도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자원의 포메이션 바꾸기: ‘커먼즈’로서 예술제는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제도화의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입법을 통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제정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절차가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하는 것은 자칫, 표준화된 예술사업을 ‘찍어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제도화의 방법에 대해 사례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참여예산제 제도화의 사례: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우 독특한 제도화의 경로를 거쳤다. 조례 제정과정에
에서부터 제도 운영과정까지 ‘시민과 시청의 갈등’을 행정 내에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는 일반적인 규정과 원칙, 그리고 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 등을 담았지만 실제 운영과정의 세부적 절차
는 매년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담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운영계획은 제도 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논의를 해
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해연도 제도 시행의 평가를 반영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위원회, 지원협의회, 서울시행정의 3각관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민
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심의와 결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지원협의회는 사업심의와 결정권은 없지만 제도개
선 권고와 운영규칙을 제안한다. 그리고 행정은 제도 운영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일반규정으로서 조례-구
체성과 새로운 시도를 담는 매뉴얼로서 운영계획-권한을 중심으로 분권화된 다중 거버넌스 구조(지원협
의회-위원회)가 존재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하에서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2018년까지 매년 1~2차례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만큼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했다.

② 자원의 이관을 통한 커먼즈 형성: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제도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귀속된 자
원인 예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시민참여의 수준과 권한이 행정의 배려
와 재량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는 자원 자체를 외부에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모델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즉 자원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독
립시킬 수 있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별도의 예술제 재원을 행정 바깥에 적립하는 것이다. 지역신탁 등에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여
기에 지역주민이나 구청이 재원을 기여하도록 약정한다. 그리고 해당계좌의 자금 사용은 별도로 작성된
기구 내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예술제 신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3년이 지난 작품에 대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전시권한을 지역 내 민간단
체가 위임을 받아, 설치된 작품에 대한 전시료를 구청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통해 작품을 관리하는 모델
을 만들 수 있다.

공공예술은 예술로서 공익성 추구보다는 공공재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정도로도 충분히 ‘공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원인으로서 공공성이면 충분하지, 작가나 작품의 사후적인 기능이 공공성에 복무하는 형태
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공공예술이 지속적인 예술 일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
느냐는 것이다. 커먼즈 운동의 중요한 격언 중 하나는 커머닝이 없는 커먼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관계맺음이 만든 감각의 변화가 형식적인 권한의 변화보다 더 의미 있다는 뜻이다.
커먼즈의 감각은 필요성에 대한 공통감각이고, 결국 우리가 예술제의 제도화를 고민하는 맥락에는 예술인
과 지역주민이 모두 예술제에 대한 ‘공동의 필요’를 만들어가는 것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모든
제도화의 형식에 앞서 고민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예술, 관공(官公)을 넘어서

안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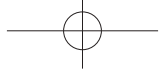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1. 올해 초 부산 영도에서 열렸던 공공미술 공론장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영도’라는 이름의 팀이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공공미술에 대한 탐색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지역에서 열린 공론테이블이었음에도 이 자리는 전국적으로 제법 눈길을 끌었다. 프로젝트 영도 팀이 세팅한 이슈가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이었는데, 영도에 실재하는 공공미술의 상황과 이 구호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반향을 일으킨 것이었다. 예술섬 영도라는 주제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며 진행된 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기획자, 주민, 작가, 행정, 중간지원조직, 관광객 등등과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남긴 것이 무엇인지, 향후 공공미술과 관련한 방향타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제법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장에서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담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장은 얼마나 허망한가 싶은 생각도 든다.

2. 공공은 모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흔히 시민은 가치중립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민의 욕망은 강렬하게 현실을 파고들어 뒤흔든다. 시민이라 일컬어지는 그룹을 한두 가지 갈래로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각자의 실존과 욕망에 따라 복잡계를 형성한다. 이들을 기획자와 예술가, 행정의 접촉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생각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욕망은 종종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공공예술은 언제나 공공영역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읽어내고 조율하고 배치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가가 관건이다.

3. 최근 십여 년 간 가장 많은 호명을 받은 어휘 중 하나가 거버넌스일 것이다. 민관협치로 번역되곤 하는 거버넌스는 그러나, 둥글둥글하고 착하고 협력적인 주체들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의 작동 위해서는 정보와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결정적인데, 이 과정이 항상 원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의 충돌을 돌파하기 위한 ‘싸우는 거버넌스’가 언제나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4. 예술이 다수결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예술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무게를 둔다. 공공미술의 역사적 전개를 복기해볼 때 지배계층의 과시적인 조형물에서부터 시작한 작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의 거리에 따라 현대적 외양을 띤다. 물론, 이 거리조절에 실패한 작품들은 예술적 조형에 문제가 있거나 시민들의 소소한 자기표현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율과 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충돌과 논쟁이야말로 민주주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도시에 대한 권리 역시 옹호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의 공공성과 미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공공예술의 담론이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굳이 미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도시 구성원들이 가진 관심과 이슈를 함께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추출해나가는 일이야말로 도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고 자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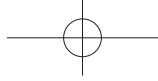


5. 지난 2년간의 노원달빛산책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술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와 주민이 행복하게 만난 케이스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노원달빛산책의 메인 작품들이 영구설치가 아닌 기간을 둔 전시였다는 점, 주민들이 자주 찾는 천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밤에 빛을 이용한 프로젝트였다는 점 등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대한 확인과 고려, 행정과의 조율을 위한 수없는 미팅과 조정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공공미술 현장을 둘러봤을 때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답시고, 작품을 죄다 아동청소년용으로 제작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획자 한 명은 ‘모여라 꿈동산 미술’이라며 혹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미적 감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특히 대중예술의 전진을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다. 오히려 시민들의 미적 감수성을 제 자리에 맴돌게 만든 것에는 공공의 외피를 뒤집어쓴 관공예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관에서 지정하고 제시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술은 정작 수요자라고 상정한 시민들에게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6. 그런 의미에서 ‘예술아 놀자’ 류의 프로그램이 주는 불편함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물론, 예술에 접근하는 아동 청소년이나 처음 예술을 익히게 되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예술은 원래 쉬운 것’이라든지 ‘예술은 그저 느끼는 것’이라는 등의 말로 영원히 이 기초를 유지하는 것은 대중의 미적 감각을 정체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술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술에 대해 대중이 갖는 이중적인 인식은 나아질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대중예술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런 논의 자체가 무색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고급’ 예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강력한 상황이다.

7. 잘 알려진 대로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사례는 공공예술의 인식 확장과 밀도를 높이는데 있어 여전히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1973년 독일 윈스터 시에서 조지 리키의 <회전하는 세 개의 사각형>을 구입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세금을 이해하기 힘든 추상조각에 사용한다는 비판이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다.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무식한 시민들이 예술을 몰라 본다’며 구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같으면 대중추수를 일삼는 공무원들이 즉각 ‘앗 뜨거’하며 작품구매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당시 윈스터 시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이들은 반대하는 시민들과 공공미술에 대해 토론하고 시립미술관에 공공미술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도시에서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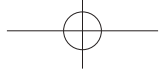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다.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공공미술과 관련한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장 성공적인 미술행사가 됐다. 매일 미술과 ‘놀고 있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시도처럼 느껴진다.

8. 멸공봉사(滅公奉私)를 입에 달고 사는 선배가 있다. 공(公)의 독재를 돌파하는 말의 힘이 상쾌하다. 그만큼 공이 개인을 억압하는 일이 많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 시대에 공공성은 가장 커다란 의무가 되었다. 물론, 공공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공공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반증이다. 전통적으로 공공은 국가와 동일시되었고, 이는 사적인 것의 반대편에 자리했던 탓에 여전히 사람들은 공공이라는 가치를 관공(官公)에 가깝게 사고한다. 공공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멸사봉공(滅私奉公)도 숨이 막히지만 멸공봉사의 세계도 막다른 골목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과 개인의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9. 행정에 인질로 잡혀있는 공공을 구해내야 한다. 공공은 행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을 행정에 위탁해버리고 말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선들도 많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공공성을 담보 받는 것으로 사고하는 순간 댓에 걸리는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공을 행정에 고스란히 위탁해 버리는 순간, 그저 맘 편히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소비자가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참여가 아니라 단순 소비만이 남는다. 소비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공공의 객체가 되어 버리는 길이다.

10. 나는 이 답의 단초를 일본의 공공철학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 김태창의 ‘공공(하는) 철학’에서 찾았다. 활사개공(活私開公)과 공사공매(公私共媒)의 정신이 그것이다. 김태창은 공공을 동사로 본다. 그가 반드시 공공 철학을 공공(하는) 철학이라 표기하는 까닭이다. 김태창은 관으로서의 공, 개인으로서의 사를 구분하고 나아가 공공을 개인과 관 사이 어디쯤에서 찾는다. 활사개공의 사는 시스템으로 꽉 짜인 공에 의해 도구화되는 개인이 아니고, 타자를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도 아니다. 여기서 사는 더 이상 나일 수 없는 나 자신, 인권과 권리의 주체이면서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나이다. 활사개공의 정신은 나를 살림과 동시에 이질적인 타자도 함께 살리고 공존하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 공공성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공사공매는 공과 사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여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 얼핏 물이나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노력처럼 허망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을 믿는다. 공공의 무게에 질식하지 않고 개인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와 타자를 있는 그대로 살려 내며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매개하고 움직이는 일이다. 나로부터, 너로부터 출발하는 이 움직임 끝에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열매가 자연스레 맺힐 것이다.

12. 노원달빛산책이 공공예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더 마련했으면 한다. 학습의 기회와 함께 예술이 공공과 만나 벌이는 활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공공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토론하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작품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의 공공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전영일 예술감독이 2021년 포럼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기도 했으니 언젠가는 교육현장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3. “시민과 미술의 괴리를 해결할 열쇠는 공공미술에 대한 심도 깊은 모색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도시의 재생과 마을단위 예술 프로젝트를 꾸릴 수 있는 작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현장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예술적 취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시민문화 전체를 향상시킴으로써 대중의 깊이 있는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끌어내는 것도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점이다.”

14. 교육을 넘어 공론장을 열고 공공예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뒤따른다면 주민들이 예술 수용자 위치에 불박혀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 산책자에서 다른 역할로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노원달빛산책이 보여왔던 과거회귀적인 이미지들의 적극적인 변주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예술은 시민들의 욕망을 추인하거나 부추기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락한 일상에 충격을 가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지역에 대한 섬세한 접근으로 리서치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노원달빛산책은 분명 공공예술 축제로서 대중성과 예술성의 긴장을 잘 살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간 미학적 성취를 기대해보면 좋겠다. 또, 축제의 성과가 지자체나 재단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통의 산물로서 재전유하는 과정이 일어났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공공은 관공과 다르다. 우리에게 공공의 재전유가 필요하다.



‘시민의 문화권리’로서의 공공미술

정윤희

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공공미술의 패러다임

공공미술에서의 시민의 문화권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의 패러다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미술은 계층간,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고안된 측면이 있다. 본디가 미술관이나 화랑 등 제도화된 공간에서만 전시, 유통되던 미술작품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물질적인 미술작품과, 특정 기간-장소-아젠다에 관련된 예술적 실천으로의 확장성을 가진 비물질적 미술작품을 모두 포괄한다.

한국에서 공공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건물, 공원, 광장, 가로, 도로, 지하철 등)에 조성한 미술작품이라는 것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뒷받침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조문도 그 지점만을 다루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부로써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예술가에게는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곳곳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거나,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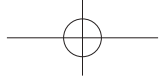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런 공공미술품들은 심각한 관리문제를 앓거나 도시의 흉물로 표류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협의주체가 건축주와 창작자일 뿐, 정작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감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술가가 건축가나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공공장소를 디자인하는 접근 또한 장식적, 실용적인 사물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고 만다. 시민의 필요와 동의로써 설계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미술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시민의 문화권리를 고려하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 즉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좌표 어느 곳에서 공공미술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방법론과 방향성, 공공성을 정의하는 개념 등의 차이가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를 중시하는지 더 나아가 시민의 적극개입과 생산을 고려하는지의 차이도 있다. 시민참여와 소통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목표와 결정권한 배분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의 공공미술 패러다임 안에는 이런 차이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다. 이는 한국이 서구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공공미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난 20여 년간 압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2. 비판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국내 공공미술의 흐름

한편으로는 집권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미술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던 것도 한몫을 했다. 참여정부시기 문체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 하에 시민참여 공공미술을 시도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인시티(Art in City)’가 그것이다.

이후 공공미술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고 공통의 기억을 복원하는 공공미술로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공공미술의 새로운 경향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적 삶의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철거반대 투쟁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시각예술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민의 참여를 목적에서 배제한 대신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하려 하였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미술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공공성 담론을 새로이 확장해가려는 시도는 전무했다. 공공미술은 도시재생 등 각종 지역 프로젝트에 수렴되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존재했었다.

시민참여형 공공미술의 재등장은 2017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부터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을 능동적 파트너이자 작가로 보고,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일상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을 추구했다. 2020년부터 문체부가 이와 비슷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관’을 추진했으나, 주로 일자리 창출을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팬데믹 시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공공성 담론이 확장되어온 것이 무색할 만큼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이 빠진 공공미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똑같이 ‘공공미술’이라고 불리지만 목적과 방향, 개념이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왔다. 대개는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문화예술을 문화마케팅, 지역재생, 도시재생 등의 전략으로 소구 하곤 했던 실정이다. 물론 이런 흐름도 공공미술의 보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공공미술 담론이 삶의 총체 속에서 지평을 확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미술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나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경영전략의 수단이 되기 쉽다. 때로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편중되는 공공미술이 또다른 문화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3. 노원달빛산책은 어디쯤에 정박했는가?

일상적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시대다. 지난 여름 집중폭우 이후, 콘크리트 소재의 건축물이 들어찬, 그레이 인프라 위주로 개발된 도시의 회복탄력성이 낮음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고밀도 도시일수록 물을 흐르게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하천과 산, 정원과 텃밭 같은 그린 인프라가 소중하다. 뽕뽕한 아파트지역 사이를 흐르는 노원구 당현천은 이제 명실공히 생태하천이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명소다. 이곳에서 3년째 치러지는 노원달빛산책은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다.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고려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노원구는 달빛산책을 철쭉제, 탈축제 등과 함께 노원만의 차별화하고 특성화한 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노원구청이 달빛산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달빛산책 같은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문화권리 보장에 무게를 뒀야 한다. 도시 마케팅이 우선시될 경우 역설적이게도 시민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있다. 지자체들이 지대를 높이기 위한 유연한 입지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미술을 도구



화하는 경우다. 특히 80년대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공공미술을 일종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or Project Financing)의 방법처럼 활용했다. 도시를 체험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강화되자, 이에 비례해 시민의 사회적 참여는 점점 사라져갔다. 임대료와 생활조건이 변하면서 기존 인구의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은 경제개발 이데올로기에 따라붙는 이미지 요소로 기능하기보다, 시민의 문화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의 역할이 현재 어느 지점에 맞을 내리고 있는지 혹은 표류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4. 노원달빛산책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자치를 위하여

노원달빛산책의 지속가능성을 시민참여에서 찾고자 한다면, 문화민주주의의 원리 하에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구성할 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준비할 내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① 계획과 절차의 민주화

시민이 스스로 도시를 작품으로 꾸밀 권리가 있을까? 행정가와 건축가, 예술가가 주도하는 공공미술은 시민의 역할을 감상자로 제한할 뿐 시민 스스로가 공공미술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드물게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제작과정 일부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를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보기는 어렵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민과 소통하고 결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일어난다. 노원달빛산책 실행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발전적인 문화자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 각자가 이웃과 기억과 경험을 공유할 작품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논의하며 의사 집행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각각의 추진 단계에 맞춰 주민-행정-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제를 집중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과 협력(협치) 조직이 필요하다. 이때 행정의 역할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집행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참고1〉 Park Fiction

공공미술 프로젝트 〈파크 픽션 Park Fiction〉은 공원조성과정을 주민공동체가 주도한 사례다. 함부르크 장크트-파울리 지역의 시민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시민모임 및 항구부두협회와 함께 예술가들을 고용했다. 시민과 예술가들은 자치적인 거리축제, 설문조사, 토론회, 공원설계도 제작, 도서관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원에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창의적 잠재성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② 철학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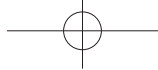
도시생활의 권리는 국가 통치로부터 직조된 강제된 수동성과 동질화에 대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존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삶의 역량을 갖게 되는 일이다. 노원달빛산책도 이 프로젝트만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 좋겠다. 한가지 제안하자면 생태적 책임이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시대에서 당현천은 노원구의 중요한 생태하천이다. 이 공간을 시민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브랜딩 할 수 있다. 당현천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와 생태복원에 관한 역사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당현천이 그린 인프라라는 점은 추후 프로젝트를 전개해나갈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만일 생태적 책임을 원칙으로 세운다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시민들과 탈탄소 방법과 환경보전 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또한 추진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 참고2> 슈투트가르트 모험 놀이터eV (Aktivspielplätze eV)의 철학과 원칙

- 지역에 근거한 사회적 문화, 교육, 지역 운동
- 아이들의 자발성과 참여
- 놀이의 다양성과 다문화
- 비상업적 개방
- 지속적인 보살핌
- 장애, 인종, 사회적 출신에 차별을 두지 않음
- 투명한 민주적 결정, 생태적 책임을 원칙으로 함

③ 시민 창의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 공동의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밤에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면 매우 즐겁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교양강좌를 통해 자신이 만나온 예술적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작품 제작과정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그런데 조명이 설치된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눈으로 감상하며 걷는 행위를 넘어, 정동적 확장까지 고려하는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새로이 탐색하고 이전과 다르게 감각을 확장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창의적 잠재성을 깨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이다. 가령 눈을 반쯤 감고 희미한 빛을 따라 걸어보거나 주변 사물과 존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의미를 만들 것이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노원만의 차별점, 특성이 발현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



④ 다양한 지식공유의 방안들

지난 3년간 노원달빛산책의 경험을 지식으로 축적하고 공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치와 프로그램, 작품등을 담은 교육키트를 개발하거나 이 프로젝트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접 가이드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5. 노원달빛산책의 미래를 위한 준비

노원달빛산책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올해를 포함한 지난 3년간의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식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술인, 시민, 기획자, 행정조직의 협력체 구성 및 노원구의 문화, 도시, 생태 등의 부서간 업무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고안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각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노원구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도하에 한계가 있을 때 필요가 요구된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에는 참고할 만한 법률과조례를 적어보았다.

※ 참고1〉법률과 조례

- 문화기본법
- 예술인권리보장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앞서 언급했던 국내 공공미술의 흐름 속에도 문화민주주의의 가치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좋은 시도들이 지속되지 못한채 파편화되고 단순한 형식이 된 이유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쉽게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행정 편의가 우선시 되는 정책환경과 시민력 제고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바탕으로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2018-20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등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강조하였다. 행정편의적 하향전달식 정책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중앙권력에서 지역분권으로, 위정자에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문화권리가 보장되도록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원달빛산책도 더 적극적으로 문화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문화권리를 주도하는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공공미술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한 일련의 모든 활동이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딩 축제를 만들 것이며, 진정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시민역량을 성장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2022 노원달빛산책 토론회-모두 토론

김수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좌장으로서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 미술사업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정윤희 선생님은 독일 파크픽션 사례를 드셨는데, 우리는 행정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행정이 짤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른 모델도 있을까요?

정윤희: 우리도 기초단체 레벨의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하면서 없어져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이고 잘 알려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어린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합창단 프로젝트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장기간 예술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건데요. 삶의 진로를 갑자기 바꾸어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인권침해적인 일이었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자체의 결정에 의견을 내고 또 지자체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게끔 서로 성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철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은평구 축제처럼, 그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문화예술사업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안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3, 4년 정도를 달빛산책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미술이 주민공동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공동체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노원의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 달빛산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만일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이 있다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노원달빛산책 안에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 재원과 거버넌스는 문화사업에서 키우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이 사업의 브랜딩도 중요하고, 또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립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런 김상철 선생님의 전문분야이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상철: 저는 해외사례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행정 조건, 또 예술가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례에 주목하는 입장이고요. 제주도의 주민자치회 사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자산 형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주민자치회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네 공간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예술제나 문화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경상비 지출에 머물지, 그것이 축적돼서 소위 잔액이 남는 방식으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없는 거죠. 축제로 할당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재원을 아끼거나 기부금을 받거나 해서 차년도까지 뭔가를 적립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거고 다음 년도에 재편성을 하죠. 그것을 모아서 큰 일에 쓸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재원 자체를 요구하기보다 아예 사업단이 자산을 취득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좀 더 낫겠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때 제주도 주민자치회 사례를 참조할 수 있겠고요.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침이 심했습니다. 반면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독협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었고 직접 폐교를 수배해서 그 폐교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공공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에 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축제사업으로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는 작을지 모르지만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피로를 만들지 않고 유지해왔던 것이 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지원이라는 건 결국 공공지원을 의미합니다. 즉 구청이나 서울시나 나아가서는 문체부의 지원인데, 많은 경우 지역에서 문화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원 구조가 변화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민간에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주도하는 준독립적인 기반이 있는 것이 공공문화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달빛산책과 관련된 쟁점은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현천이라는 공공장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크리티컬에게 걸리죠. 사실 그 공간의 사용은 구청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 자체가 불가피하게 종속되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 기업이 공공사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인데, 기업과 관청이 장기 사용계약을 맺어서 공공용



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장이 99년 동안 민간에 임대해 해서 지금 IFC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즉 공공미술사업도 당현천 사용과 관련된 것을 매년마다 인허가를 받는 단기적인 사용형태에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사용허가를 미리 득한다면 정동진 영화제처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진은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엔 지원이 없더라도 예술영화 감독들이 “괜찮아, 이번엔 돈 안 받고 갈게,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원구에서 그 사례들의 요소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짜맞출 것이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하나만을 모범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장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고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미 답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비평가이기도 하지만 전시 기획자로서 여러가지 운영의 묘나 기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문화예술이 다른 분야, 다른 부서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김상철: 임팩트 투자라는 제도방식이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펀드 방식으로, 이 문화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한 5년 동안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이만큼 높이겠다, 혹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만큼 늘리겠다, 등등의 지표를 만들어서 구청과 장기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5년 간 교육을 하면 이 대상 중에서 10%가 경계성 지능장애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성과계약을 하게 있거든요. 그게 5년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예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조직 중심으로 활용이 되는데 외국은 일반적으로 문화사업에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축제를 할 때 축제 조직위와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이후에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해서 진행하거든요. 노원달빛산책이 공공미술로서 주민참여를 늘린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윤희: 재정확보나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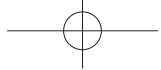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하면, 재정구조 등은 틀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게 주 내용일 수는 없을 겁니다. 조례나 사업방침을 세우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조항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노원달빛산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자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나 지표 중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민 역량의 성취나 참여도 같은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가 모든 것을 만들 어낼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상철: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분명히 쟁점이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례상의 행정위원회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행정위원회 위원도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민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엉뚱하게 위상을 줄 경우에 예술사업의 방향을 아예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 조례상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에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힘들다면 주도권과 책임을 예술인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술사업과 관련된 결정권한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상황의 변화나 정파적 이익에 비해 직업적 전문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행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책임을 지도록 구조를 만들고 대신에 시민의 참여는 결정기구가 아닌 사업평가나 실행과정에서의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저도 정윤희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 얘기는 경험칙에 의한 반론이고요, 경험칙에 의해서는 조례로 구성하는 행정위원회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윤희: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선거 때마다 문화예술사업이 바뀌고 공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김수정: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만일 공공미술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노원구가 가져가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철: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방식보다는 운영계획상의 지침화하는 방식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을 실행하려면 구청의 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년 사안이 생길 때마다 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계획을 일종의 공고로 하도록 명시를 하는 것이, 행정 안에서 지침으로든 조례로든 작용을 한다면 협력을 자동적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구청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의 노원달빛산책과 관련된 운영계획을 언제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다”는 등의 명시가 있게 되면 내년도 달빛산책을 하기 위한 회의를 전년도 하반기에 마련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 공고를 하려면 어찌됐든 논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구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업지침처럼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할 때마다 운영계획상 무엇무엇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를 생각한다면 운영계획 방식이 조례방식보다 왜 낫다고 생각하냐면, 조례의 규정들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시도 보니까 시비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가 각 자치구에 줬던 보조금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나 자치구와 협의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는 줄여서라도 받아들이기 밖에 없게 됩니다.

김수정: 지금 전영일 감독님이 손을 드셨네요.

전영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있는 공공미술을 공공적으로 접근할 때 문제는 예술가들의 의지도 중요한데 시민들과 같이 작업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예요. 예술가가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서 시민의 역량과 맞붙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감독을 하면서 현실의 냉혹함을 느꼈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재단이 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들과 작가들이 미팅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접점을 늘려나갈 것인가 고민이 산적해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술의 지향점이자 목표이고 시민들과 계속 함께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스템이나 구조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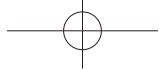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어서 그것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지향점은 작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그저 재미있게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술가들이 대화하지 않고 혼자 자기작품만 해서는 시민과 같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예술가, 작가들의 역량에 의존하다보니 공공성을 획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노원구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쉽게 결합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이죠. 학교라든지 시민모임들도 많은데 다들 예술에 관심은 있으나 함께하기 위한 방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문화재단의 협력을 받는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개입의 위험성이랄까 하는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노원구민들과 만나고 또 구민들이 더 편하게 이 전시공간에 오실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감독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손이상: 마이크를 건네받은 기획감독입니다. 노원달빛산책도 국내 어느 문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업추진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3, 4개월이면 예술가들에게 조형작품을 의뢰했을 때 작품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창작기간은 결과물로서의 작품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업기간이 빠듯하면 같은 예술가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어렵겠죠. 이상적으로는 예술가들이 작품 제작 전에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노원달빛산책을 통해 예술가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예술가들도 전시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는 당현천이라는 전시공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작품에 완벽히 맞는 조명을 찾기 위한 리허설조차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짧은 사업기간에서 비롯됩니다. 사업기간을 늘린다면 시민의 참여도 늘릴 수 있고, 예술가들에게 공간 이해와 좋은 조명을 탐색하기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의 확보가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김상철: 3, 4개월 정도면 작품을 창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작하는 거죠. 제작에 앞서 보이지 않는 시간도 보장이 되어야 창작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작밖에 못 하죠. 만일 작품이 작



년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제작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한 200명 작가들을 예비 선정을 해놓고 이 작가들에게 두 달 정도는 비용을 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나 주민 미팅 등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다시 100명, 다시 50명, 이렇게 몇 단계의 작가 선정과정을 거쳐 추출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무일푼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 참여할 때마다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결합하니까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각 과정에 참여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녹아들어갑니다. 작가를 모집할 때 처음부터 픽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상자의 풀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정: 객석에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참석자 1: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문화재단에서 문화PD 1기로 활동했고 지금은 소소하게 지역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손이상 기획감독님께서 이 지역과 오래도록 이어지는 기억이 되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문화사업이 되려거든 시민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원구에서 무엇이 지역적인 것인가? 퇴근 이후에 당현천을 걸으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역적입니다. 전시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시민들에게 그 시간에 평소와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시에 조금 더 많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당현천에서 기왕 전시를 한다면, 대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 후에 어떻게 해체가 되고 어떤 환경으로 돌아가는 지도 설명이 된다면 당현천에 나온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간이 짧더라도 그 전에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당현천을 어떻게 꾸었으면 하는지 미리 공모나 설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전작업이 있으면 작가들도 작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수정: 감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을 때에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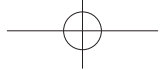
술품에서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별게 다 구원이 되잖아요. 뜻하지 않은 경험에서 삶이 좀 살 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상철: 작품이 감동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상자의 몫이지 창작자의 몫은 아닙니다. 대중문화와 달리 예술을 특징하는 이유는 향유자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술이 미술관에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공공미술은 불필요한 겁니다. 미술이 왜 미술관에만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 공공미술이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노원달빛산책이 기존 미술담론의 차원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미술담론이 아니라 달빛의 형상을 지역성에 담아내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관건일 것 같아요.

생태 환경을 강조한다면, 사실은 밤에 불빛을 켜놓는 것 자체가 반생태적입니다. 그것을 일면적으로 얼마나 친환경적인 작품을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전기 아끼기를 해서 그 중 일부를 노원달빛산책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1년 내 내 전기사용을 전략화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를 매개로 노원구의 환경정책 사업을 주민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1시간 만에 꺼버리고요, 왜 불을 안 켜냐고 하면 아껴둔 전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정: 말씀 감사합니다. 객석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까요?

참석자 2: 안녕하세요.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돈 주고 막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할할 시간과 공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토론도 지금 2시간째인데 곧 끝나요. 이렇게 빨리빨리 할 것이 아니라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노원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달빛산책 토론회지만 이걸 사실 하나의 예술사업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면 질 높은 문화예술을 서로 공유할 것인가를 오래 대화할 필요성을 느껴요.



참석자 3: 저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왔고요. 친구와 전시는 관람했는데 달빛산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랐다가, 오늘 토론회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기도 했고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전시물로서의 공공미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요구가 폭발하는 작품이어서 일 수도 있고, 아까 처음 발표에서 들은 윈스터시의 예시처럼 대중들에게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공공미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넓게 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달빛산책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예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관청이 주도하는 축제만으로도 수십 개가 열리잖아요. 주민들이 박수치고 구경하고 노는 행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려면, 주민들의 더 많은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행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매커니즘만이 아니라 노원구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전시가 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김수정: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나 프로그램이 꾸준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정윤희: 저는 예술에서 오는 감동의 포인트는 그 감동이 어느 지점에서 오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지만, 문화예술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지는 않아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교육은 있어도 작품이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감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양교육 수준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아이가 성장해나가면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거나 떠나더라도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예술교육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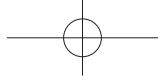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오늘 구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짧게 말씀을 남겨보면 노원에서 혁신교육을 하잖아요. 또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공공미술은 따로 가는 거죠. 지역의 생활공간 안에서 예술작품을 경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과 따로 가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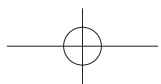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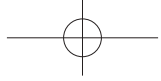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노원달빛산책 프로젝트가 단기간만 진행된다면, 여기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초등학교 교육수업에 특화교육이나 재량수업 같은 방식으로 넣거나, 또는 학교 교육에 작가의 창작과정을 알려준다면 충분히 교육과 예술과 지역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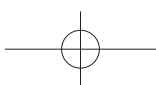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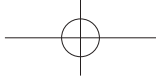
김상철: 사실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저는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예술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감상자의 권한일 테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에 수용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입니다. 그 피드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 것인가는 예술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견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또 제3자의 몫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에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다원적이고 중심이 많은 의사결정구조, 또는 중심이 많은 예술제 형태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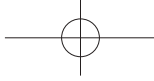
오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살지만 노원달빛산책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김수정: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토론하신 정윤희 김상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의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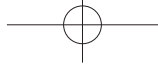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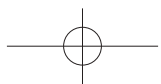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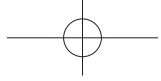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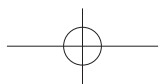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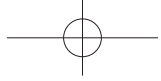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2022 Nowon Moonlight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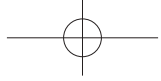
은 하 수 를 건 너 서



사람·사람들







타이틀: 달빛 해설사가 말한다

홍우일: 올해 노원달빛산책을 걸었을 때는 작년 노원달빛산책을 걸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달빛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작품에 대해 알게 되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니 작품들이 더욱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작품들에 대해 배우고, 달빛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제가 배우고 알게된 작품들의 의미를 머릿속에 되새겨보면서 달빛산책을 걷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소중한 기억이자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노원달빛산책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 작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함께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제가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의 이야기와 더불어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 해설을 들으시는 시민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시민분들께 배우고 얻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한테 소중한 배움으로 남아있고, 빛나는 추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해설을 들으셨던 분들의 마음속에 달빛산책을 밝게 빛나게 해주었던 작품들처럼 저의 해설이 작은 불빛처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황해경: 2020년부터 도슨트에 참여 했던지라 달빛산책에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지난해에 비해 작품 수는 적었지만 해설 안내 시간은 작품 수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도슨트 해설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과 자신 있는 것을 먼저 스토리텔링화할 작품을 선택하면서 고구려역사 관련 있는 <해신달신> 작품에서 고구려 이야기를 풍성하게 풀어낼 수가 있었다. 참여객에게 심도있게 다가갈수 있던 작품은 <공선점>이란 작품이다. 기억과 망각의 단어가 합쳐져 특수한 문자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알 수 있는 공선점, 삶과죽음, 선과악..등 작품을 통해 느껴지는 바를 전달하니 철학적인 의미도 내포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공감해 주시던 탐방객이 떠오른다. 바뀌는 속도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은하수를 건너서”부제가 잘 표현된 <달토끼>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윤극영님의 반달 가사만 살짝 전달해도 있는 그대로의 감동이 전해 오는 쉽고 편하게 공감 가는 작품이었다. <달숲>이란 화려한 인기몰이 작품도 멋졌다. <코스모스성운>작품을 전달할 때는 일반객의 반응이 “해설을 들어보지 않고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다. 당현천 가운데 설치된 <호흡>은 비버 동물에게서 받은 영감의 작품이라 여러

가지 예로 스토리텔링 하기 좋았다. 낙하산, 신칸센, 문어, 골프공..등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은하수 바이 월리엄 허셀” 나를 월리엄 허셀에 대한 공부하게 만든 작품이다.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풍성하니 어둡컴컴한 빛 작품 앞에서도 즐거웠다. 느낌표 작품 “음, 어, 아”를 은하수 여행 말미에 설치한 것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말엔 탐방객이 있지만 주중에 심한 노쇼를 방지하는 특단의 아이디어가 필요 하단 생각이 들었다. 달빛산책이 노원을 넘어 타지역인에게 더 크게 다가가는 걸 경험 했던지라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만 할 숙제인 듯 하다~전년도에 비해 적은 작품수라도 그것이 더 좋았고 발걸음을 당현천길에 다녀간 이들은 모두가 잠시나마 행복했을 것이라 믿어본다.

김윤란: 이번 달빛 해설사로 처음 참여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과 많은 기대를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을 하며 많은 무대를 세웠지만 이번 만큼 떨리기는 처음 하지만 많은 준비와 연습으로 또한 든든한 근형샘 믿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 더 많은 연습과 준비로 하려 했던 행사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취소되어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쉽습니다. 노래까지 준비했는데...하지만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노원문화재단 여러분들과 특히 과로로 입원까지 하신 현진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작가님과 더 많은 작품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 중에는 난해한 작품이 있어서 아쉬움도 남고요. 좀 더 작품 선정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선관: 해마다 가을이면, 노원에 사는 기쁨이고, 자부심이 되어버린 달빛산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둠 속에 색깔별로 은은하게 빛나는 여러 작품을 기대하며 궁금할 즈음 구민 해설사로 3년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달빛 산책 도슨트 참여는 한해 중 가장 즐겁고, 기대되는저의 행복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달빛 산책 시즌이 되면 주변분들도 기억해 주는 모습이 기분 좋습니다.올해는 작품 수가 적어지고, 중간중간 어두운 구간이 있어 아쉽다는 주민분들이 여러분이었지만, 작년에 도슨트 참여 후 또 신청했다고 하시는 여러 가족분들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길은 거리를 진지하게 관람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올해도 내가 노원구민의 일원이고, 뭔가 주민들을 위해 뭔가 함께하는 거 같아 의미 있었습니다.올해도 우리 노원구는 참 살기 좋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것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문희길: 안녕하세요. 노원달빛산책 해설사 문희길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회째 맞은 노원달빛산책은 ‘은하수를 건너서’라는 제목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과 희망을 뜻합니다. 노원 수하 문화관에서 당 현 3교까지 약 2km 구간에 달빛산책이 시작됩니다. 은하수가 된 당현천을 상징하는 별과 달 천문대와 함께 환경과 우주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민참여 작품도 감상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에 제가 해설을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호응과 참여가 힘이 되었고 해설 후 인터뷰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노원의 자량과 랜드마크로 노원달빛산책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 숨겨진 빛혼자서는 발할 수 없는 빛달빛산책이 그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주었다. 빛의 세상은 무한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맘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로 볼 때 2022 노원달빛산책은 우주 공간 속의 미래 여행이었다. 환희로 지루한 일상 속 공공 미술공간에서 은하수 세계로의 탈출은 신비한 빛의 문화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자신에게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 만남으로 작가의 작품들을 설명하는 시간은 우주정거장의 안내자가 되어, 우주 공간 속 무중력상태의 자유가 빛의 아름다움으로 하나의 별이 되어 지구에 내려온 기분이다. 풍성한 기획이 새로운 시도로 가슴 따뜻하게 해준 이 번 전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며, 나의 시선으로 자연의 힘으로부터 전해지는 750만 가지 색 중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200가지일 때 나는 얼마나 빛을 느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며 달빛 산책을 마무리한다. 행복한 여행이었다. 함께 탑승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맘을 전한다. 자연과 늘 동행하길 기대하며...

이영희: 노원구에서 16년간 거주하면서 노원구 주최의 다양한 행사를 많이 관람했지만, 몇 년 전부터 가을에 열리는 당현천 등불 축제가 예쁜 꽃들과 등불이 어우러져 기억에 남고 감사와 위로의 주제로 하여 더욱 감명 깊게 느껴졌었다. 2022 노원 달빛 행사는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와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는 의미로 달빛과 은하수 여행길의 동반자인 해설사로 참여하게 되어서 보람 있었다. 처음 하는 도슨트 역할이라서 2시간씩 4번의 해설사교육 와 현장학습만으로 부족하여 나름 대본을 쓰고 예행연습을 하고 다른 해설사의 실연도 참여하

였지만, 긴장과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평일 2번의 해설사 참여로 참여자가 적거나, 예약 취소가 많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작품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표현 방법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도슨트라는 업무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해설사로 작품의 설명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교감하며, 행사 주체의 메시지와 35개의 작품과 여러 작가들의 힘든 노고와 예술성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관람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도 작품의 일부 분임을 알게 되었다. 달빛 산책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의 노고와 무사히 행사를 끝낼 수 있게 안전 관리에 힘쓴 노원구청 관계자분들 등, 보이지 않게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 노원구 당현천 가을 행사에도 수준 높고, 구민 참여 부분이 많은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다.

한정자: 저는 이번으로 세 번째 달빛해설사 활동을 했습니다~올해의 주제처럼 은하수 넘어서란 주제는 그동안 힘들고 지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소통하는 것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떠올리며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구마들의 환한 미소가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축제가 끝나면 해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더 알차게 준비해서 구민들과 함께 할 행복한 시간을 꿈꾸어 봅니다. 축제를 준비하시며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주요스텝 및 운영·홍보스텝

예술감독	전영일
전시감독	이수
기획감독	손이상
설치총괄	이현범
디자이너	김영철
사진·영상	변재길
큐레이터	우영주
코디네이터	이근형
커뮤니케이터	유지연
홍보·운영	김현진, 김유현
번역	박은주

초대전 작가(가나다순)

국근일, 권재현, 김리웅, 김이박, 김재성, 박국진, 박봉기, 백진현, 서정배, 성동훈, 유대영, 이광익, 이기범, 이한수, 인송자, 전승일, 정영두

가제트공방

정근배, 이현석, 장진하, 광금성, 정영재

전영일 공방

이성열, 장지호, 이동철, 심은희, 원효정, 노정남, 이진호, 김문숙
 도움주신 분들: 이정석, 박광원, 최인수, 최영식, 한상진, 김형기, 박재식
 크레인: 김영춘(하나크레인)운송: 김군남(피닉스로지스틱)

불도깨비·불의정원 예술불꽃화랑

곽창석(대표), 고지옥, 박재현, 정혜선, 권광훈, 임재형, 이일량, 이종봉,
 김철래, 고승완

시민 자문회의

이권화, 김수정, 박수호, 박준호, 전영진, 이재열

전문가 세미나

진행: 김수정
 발제: 안태호, 정윤희, 김상철

달빛해설사(가나다순)

김윤란, 문희길, 백선관, 정혜선, 이영희, 한정자, 홍우일, 황해경

전기안전관리

(주)중앙전기공사 천수중(대표)

홍보 및 콘텐츠제작, 광고, 디자인 등

(주)에스지아이스사이어티 김영철(대표)(주)한국학술정보 채종준(대표)아
 띠디자인그래픽 이태희(대표)

성서대학교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홈페이지 구축

케이엠엔터테인먼트 함성주(대표)

콘텐츠 제작

그리는도시 이유미(대표)

운영구역

(주)포컴퍼니 김동연(대표)

운영집기렌탈

(주)미스터크리에이티브 김도영(대표)

사진 촬영 및 영상제작

제이케이미디어 변재길(대표)

포스터 제작

디자인감 백지성(대표)

홍보탑 설치

프로이경 강우원(대표)

현수막 설치

새롬애드 박종호(대표)

콘텐츠제작

(주)어반콜라보 이유미(대표)

지면 홍보

월간미술 황석권(편집장)

온라인 홍보

네오룩 최금수(대표)

전기차렌탈

(주)티케이글로벌 구경열(대표)

전기안전점검

(주)한국안전관리 박경중(대표)

시민, 어린이, 청소년 참여작가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노원소방서 김성희 서장, 전승덕 주임, 박태훈 주임 외 소방관 119명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중원중학교 교사 고윤정 외 전학년 학생일동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

청소년아지트 하쿠나마타타 이재열, 박은선, 신강산, 신강찬청소년아지

트 오락실 김슬미, 박민준, 오지민, 정다빛

‘Signal of Earth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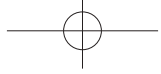
상명초등학교 교사 조승권 외 5학년 난반 학생 30명

‘COSMO[S]COPE

불암초등학교 교사 박현철 외 5학년 학생 178명

인스타 사진리뷰 이벤트 참여자

김가희, 심지현, 임경아, 강경은, 조예린, 정연주, 임다혜, 우주형, 이혜림,
 강윤정, 방윤찬, 김주성, 심상훈, 정효진, 방용신, 강세희, 이유라, 이찬영,
 이영은, 이주미, 박경섭, 윤초희, 권오태, 박영숙, 장샘, 강보현, 한윤경, 유
 찬곤, 김준우, 김민경, 이윤서, 류초롱, 김송이, 신용민, 김혜원, 이성순, 이
 희원, 김남영, 김인표, 김화영, 김민영, 조성은, 안려홍, 고유리, 박혜원, 김
 서영, 김지우, 임경아, 이고윤, 전성근, 김효경, 김채경, 김민경, 김은영, 김
 은희, 김건양



노원달빛산책 언론홍보

조선일보 김승우, 서울행복플러스 취재팀, 동아일보 박영대, 한국경제 강영연,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SK브로드밴드 서주현, CNB뉴스 손예성, 뉴시스 조현아, 정병혁, 뉴스1 윤다정, 조태형, 전국매일신문 홍상수, 서울경제 박경훈, 지역연합신문 이경철, 내외통신 여성훈, 내일신문 이재형, 천지일보 김서정, 시민일보 홍덕표, 한국일보 강지원, 신아일보 허인, MBN 정주영, 바그로뉴스 박선우, 퍼스트신문 김형수, 뉴스포인트 박마틴, 한국공보뉴스 박규철, 세계뉴스통신 이은영,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서울복지신문 김수정, 우미자, 서울일보 박남수, 토크뉴스 최성종, 뉴스에이 천선우, 뉴스더원 정상현, 자치행정신문 임혜주, 이민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세이프타임즈 김소연, CNB저널 김응구, 뉴스로 신승희, 한국공보신문 박규철, 중앙뉴스라인 우제현, 경인뉴스투데이 곽희숙, 내손안에서올 이경호, 이병문, 이영남, 이정규, 조수봉, 조시승, 시사타임즈 이지아, 노원신문 백광현 편집인, 김명화, 시니어신문 정은조, 안마을신문 강봉훈, 우리뉴스 방현옥, 설현수, 강원정, 이가은, 지역연합신문 이경충 발행인

(주)중앙전기공사(전기팀)

천수중, 오진현, 이정세, 황정호, 김유창

행사운영

(주)윙플래닝 김완겸(대표), 포컴페니언 김동연(실장), 윤상원(팀장)

노원구 자율방범대

최명호 방범대장, 김광식, 김금숙, 김동운, 김막순, 김미라, 김미례, 김욱연, 김원식, 김은정, 김임옥, 김정희, 김해숙, 김현식, 김형수, 민기홍, 박동식, 박용희, 백인숙, 서원식, 손춘기, 신재인, 심길선, 오상근, 오순화, 오정일, 원성목, 이복순, 이순옥, 이옥수, 이원해, 이재희, 이정숙, 이정희, 이현경, 정규래, 정말태, 정범식, 정재동, 조기동, 조필구, 최미애, 최순자, 황순자

행사진행요원(가나다순)

박경득, 박도휘, 신성산, 신아현, 최푸름, 황민아

제작용역제안평가위원회

송파문화재단 배동범, 원주문화재단 황운용,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하남문화재단 최미경, 중앙문화재단 김수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종현, (주)티앤비컴퍼니 정용석

노원구청

최미숙(행정지원국장),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최광빈(힐링도시국장)문화체육과: 신호재(과장), 이해중(문화예술팀장), 남예운, 김민지, 윤보미, 이승운(문화정책팀장), 윤은미, 김윤선, 윤경선, 정민아, 김보미, 김수연, 이희병(전통문화체험관장), 강진주, 정정임(체육정책팀장), 민숙기, 김지

선, 이민우, 양현웅(체육시설팀장), 정영선, 최성수, 조민철, 장백선
자치안전과: 장재훈(과장), 박용길(중대재해안전팀장), 허예슬미디어
홍보담당관: 장주현(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언론팀장), 이경아, 정은선, 이현주, 박은영, 양문숙, 홍정아(홍보팀장), 김권식, 한유진, 정용채, 임수경(뉴미디어팀장), 서형철, 이호연, 김인형, 이규원, 윤정록(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유빛나,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김소희, 이정무, 박규리, 전승민, 이재희감사담당관: 홍성범(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 최재연(과장), 장세창(수학문화관장)
교통지도과: 이병용(과장), 김재훈(주차지도팀장)
자원순환과: 최용록(과장), 장영미(팀장)치수과: 유봉선(과장), 김상동(물관리팀장), 박종현(하수팀장), 김정호(하천설비팀장)
푸른도시과: 이용수(과장), 김응주(공원관리팀장), 이지현(조경팀장), 석명오(하천조경팀장), 박유하

노원문화재단

원응호(사무국장)

행정지원부: 김광득(부장), 박한준, 정경희, 손호성, 오진호, 김보은, 도용현, 국영일, 허종국, 이선용, 이소담

공연전시부: 김성곤(부장), 김보영, 김영일, 김춘술, 김혜련, 박소현, 박지예, 윤혜인, 장은웅, 정인철, 차지민, 최승이, 최은식, 최종희

정책기획부: 이종현(부장), 박태건

문화진흥팀: 윤금노(팀장), 김용식, 양은규, 엄성아, 이은지, 강동구

축제사업부: 홍지영(부장), 김준, 광규태, 김사운, 김배준, 김현진, 김유현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KB국민은행(물심양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성서대학교 이상일님(해마다 성서대학교의 많은 도움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수학문화관(행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서울시 시민기자단, 구민감사관, 당현천 살피미 모니터링단,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2022년 노원달빛산책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안전요원, 안내데스크 진행요원, 행사운영진, 당현천을 가꾸고 다듬는 많은 분과 구청과 재단의 많은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
Nowon
Moonlight
Walk

은
하
수
를
건
너
서

노원달빛산책

2022. 10. 14 - 10. 30.

주최/주관 노원문화재단

기획 전영일, 이수, 손이상

진행 홍지영, 박규태, 김준, 김사운, 김배준, 김현진, 김유현

협력 노원구청, 국민은행, 성서대학교, 노원수학문화관

사진 제이케이미디어

디자인 (주)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인쇄 (주)한국학술정보

발행인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최미숙

발행일 2022. 12. 6.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017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최/주관  노원문화재단 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노원  KB국민은행 협력: 한국성서대학교

© 노원문화재단, 2022 | NOW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2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작품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